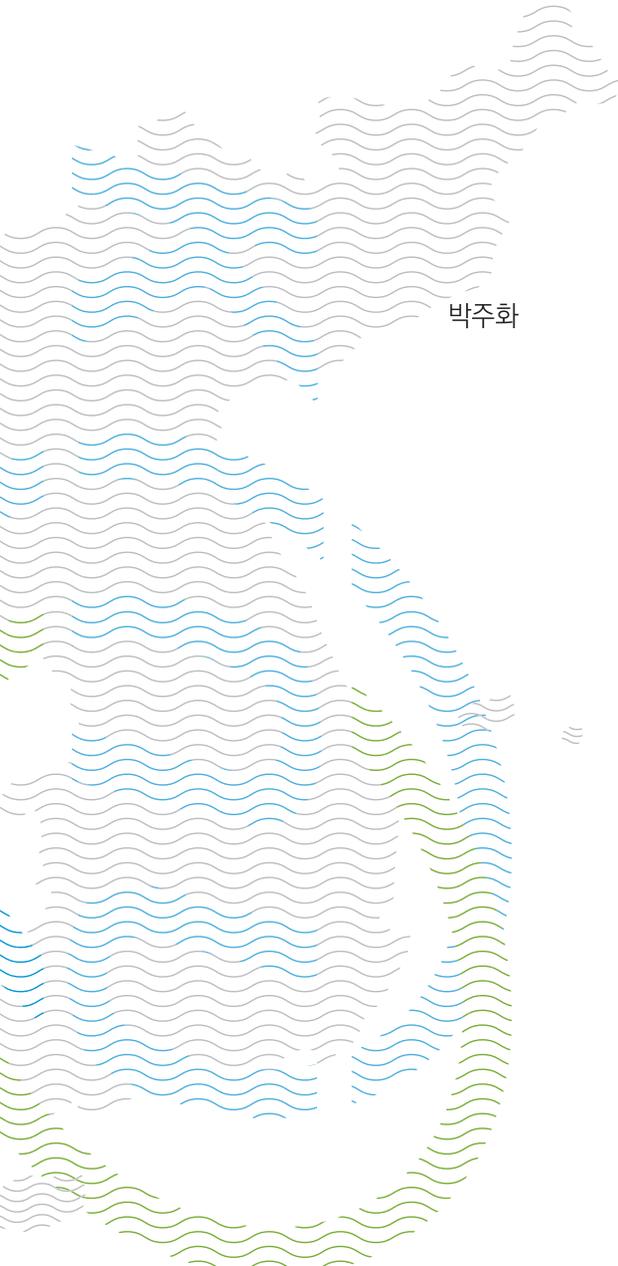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연구책임자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사업(2/4년차)

한반도 평화 연구(2): 평화인식과 평화교육의 간극과 함의

KINU 연구총서 19-22-01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저자	박주화
발행인	임강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I S B N	978-89-8479-990-5 94340 978-89-8479-989-9 (세트)
가격	18,500원

© 통일연구원, 201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

I. 가치관	9
1. 우익권위주의	11
2. 사회지배경향	22
3. Schwartz 기본적 가치	34
4. 자기고양 가치	49
5. 자기초월 가치	55
6. 향상초점	60
7. 예방초점	66
8. 현재 지향성	72
9. 미래지향성	78
10.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83
II. 사회적 신념과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	91
1. 주관적 안녕	93
2. 정치적 효능감	102
3. 한국사회의 불공정성	108
4. 집단의 본질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	114
5. 불안감	123
6. 한민족 정체감	140

7. 남한 정체감	146
8.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믿음	151
9. 자기검열	156

III. 분단의 마음 163

1. 전쟁에 대한 태도	165
2. 평화에 대한 태도	170
3.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군사력	176
4.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협력	181
5. 제로섬 인식	187
6. 경쟁적 희생자 인식	192
7. 북한에 대한 정서	197
8. 남한의 우월성	222
9. 북한에 대한 악마화	225
10. 단결, 일치 의 필요성	230
11. 북한에 대한 이미지	234
12. 남한의 정당성	240
13. 분단의 중심성	242
14. 남한사람 및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248

IV. 화해의 마음 251

- 1. 한반도 문제에 대한 희망 253
- 2. 북한에 대한 신뢰 257
- 3. 북한에 대한 공감 261
- 4. 공통의 희생자 인식 267
- 5. 단일민족 정체감 271
- 6. 북한에 관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개방성 276
- 7.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책임 282
- 8. 북한 문제에 대한 죄책감 286
- 9. 용서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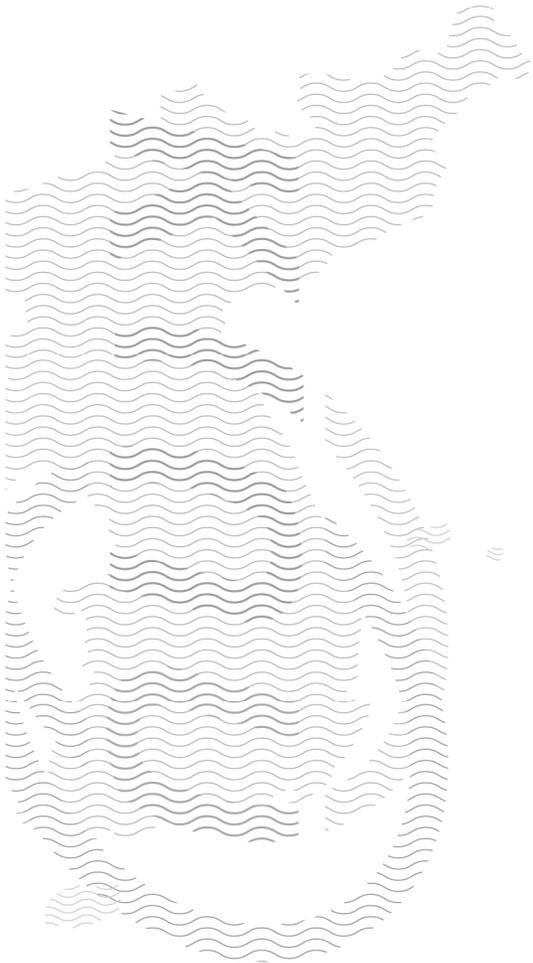
V. 통일, 대북정책, 올림픽 299

- 1. 통일에 대한 태도 301
- 2. 통일에 찬성하는 이유 316
- 3.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328
- 4. 통일의 의미 340
- 5. 대북·통일정책 346
- 6. 핵무기 포기를 위한 경제적 희생 357
- 7. 북한문제 이해도에 대한 평가 361

8. 올림픽에 대한 평가	370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381
최근 발간자료 안내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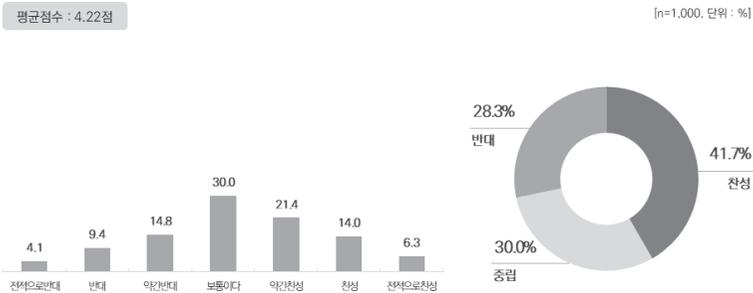
I. 가치관



1. 우익권위주의

가.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많은 선동가들의 말을 무시해야 한다 국가의 정당한 권위자들에 따른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언제나 낫다

- 전체 응답자의 41.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8.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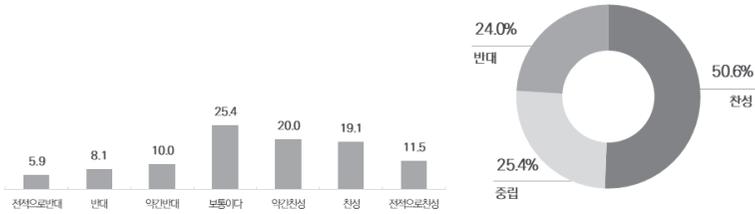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5.2%)이 여성(38.3%)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28.9%), 30대(30.3%), 40대(40.1%), 50대(49.8%), 60대+(52.3%)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37.4%, 여성: 19.5%), 30대(남성: 32.1%, 여성: 28.4%), 60세 이상(남성: 64.4%, 여성: 42.5%)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39%, 여성: 41.2%)와 50대(남성: 46.6%, 여성: 53.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39%)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그 외 종교(기독교: 44.2%, 불교: 44.3%, 천주교: 44.8%)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6.3%)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38.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51%)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35.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300만원 미만(34.7%)
 - 300~500만원 미만(40.6%), 500만원 이상(45.9%)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40.4%), 만난 경험 있음(43.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

나.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낙태, 포르노그래피, 결혼에 대한 신성한 도덕적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낙태, 포르노그래피, 결혼에 대한 신성한 도덕적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0.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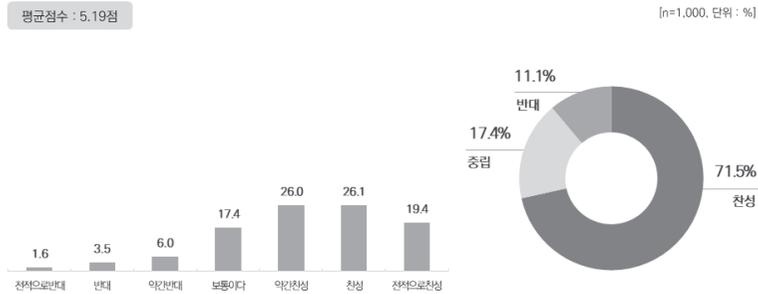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34.7%), 30대(42.4%), 40대(47.2%), 50대(59.2%), 60대 이상(62.1%)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36.3%, 여성: 32.9%), 50대(남성: 62.1%, 여성: 56.1%), 60세 이상(남성: 62.7%, 여성: 61.6%)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39.3%, 여성: 45.7%)와 40대(남성: 46%, 여성: 48.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62.7%)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3.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4.9%)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8.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57.1%)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45.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300만원 미만 (46.9%), 300~500만원 미만(48.7%), 500만원 이상(53.8%)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남 적 없음(46.9%), 만남 경험 있음(48.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8%)
- 성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음
 - 찬성비율(남성: 50.4%, 여성: 50.8%), 반대비율(남성: 23.6%, 여성: 24.4%)

**다.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것들을 파괴하려는 급진주의자, 비도
적적인 사람들이 많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막아야 한다.**

-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것들을 파괴하려는 급진주의자, 비도적인
인 사람들이 많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막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1.5%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
는 응답은 11.1%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73.6%)이 여성(69.4%)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82.6%)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54.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63.7%, 여성:
43.9%), 40대(남성: 69%, 여성: 62.9%), 60세 이상(남성: 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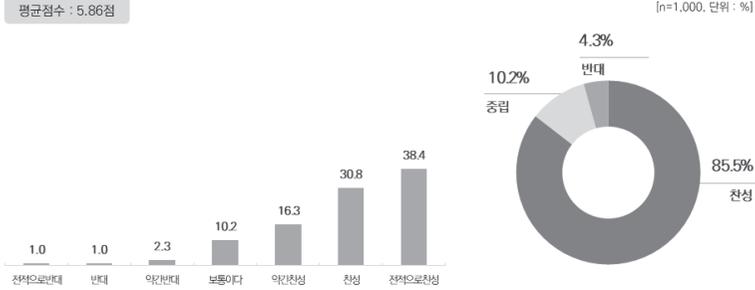
여성: 79.5%)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63.1%, 여성: 69.1%)와 50대(남성: 80.6%, 여성: 82.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9.9%)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68.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83.2%)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66.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78.7%)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67.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5.3%), 300~500만원 미만(71%), 500만원 이상(74.9%)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70.5%), 만난 경험 있음(7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라. 최근의 범죄, 성(性)적 부도덕과 사회무질서를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과 인물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최근의 범죄, 성(性)적 부도덕과 사회무질서를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과 인물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85.5%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남

평균점수 : 5.8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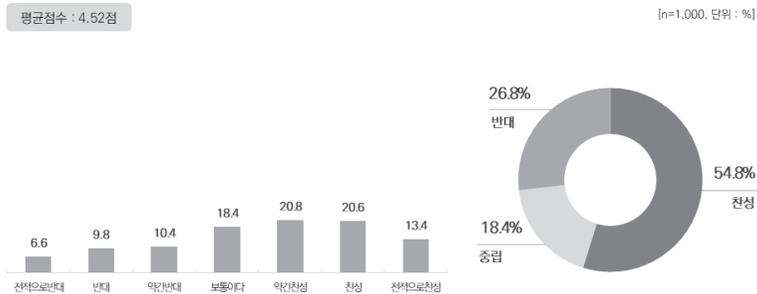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90.1%)이 남성(80.8%)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90.5%)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78.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찬성비율: 20대(남성: 70.3%, 여성: 87.8%), 30대(남성: 71.4%, 여성: 90.1%), 40대(남성: 85%, 여성: 90.7%), 50대(남성: 83.5%, 여성: 89.8%), 60대 이상(남성: 89.8%, 여성: 91.1%)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88.9%)와 천주교(88.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불교(83.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89.8%)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81.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87.8%)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81.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80.8%), 300~500만원 미만(84.3%), 500만원 이상(88.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86.2%), 만난 경험 있음(86.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

마. 정부는 질 낮고 역겨우며 혐오스러운 내용을 포함한 언론이나 인터넷을 검열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 ‘정부는 질 낮고 역겨우며 혐오스러운 내용을 포함한 언론이나 인터넷을 검열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4.8%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6.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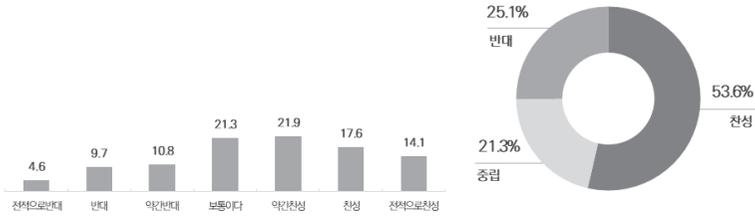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8.1%)이 남성(51.4%)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찬성비율: 20대(38.7%), 30대(51.5%), 40대(53.3%), 50대(61.7%), 60대 이상(63.3%)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39.6%, 여성: 37.8%)와 60세 이상(남성: 67.8%, 여성: 59.6%)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

(남성: 42.9%, 여성: 60.5%), 40대(남성: 51%, 여성: 55.7%), 50대(남성: 50.5%, 여성: 73.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61.3%)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9.9%)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1.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5.3%)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43.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1.2%), 300~500만원 미만(54.8%), 500만원 이상(56.6%)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만난 적 없음(54.7%), 만난 경험 있음(55.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0%)

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적 권리가 아니라 강력한 법과 질서이다.

-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적 권리가 아니라 강력한 법과 질서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3.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5.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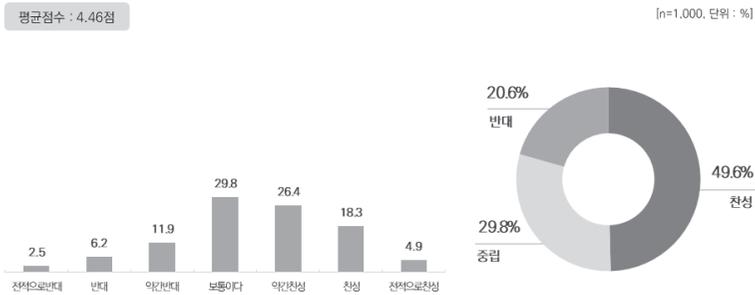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4.6%)이 여성(52.6%)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찬성비율: 20대(41%), 30대(44.8%), 40대(49.7%), 50대(61.2%), 60대 이상(64.4%)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45.1%, 여성: 36.6%)와 60세 이상(남성: 71.2%, 여성: 58.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44%, 여성: 45.7%), 40대(남성: 48%, 여성: 51.5%), 50대(남성: 59.2%, 여성: 63.3%)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0.9%)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9.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3.1%)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4.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3.4%)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5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6.9%), 300~500만원 미만(54.5%), 500만원 이상(56.1%)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2.4%), 만난 경험 있음(55.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사.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방식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방식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9.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0.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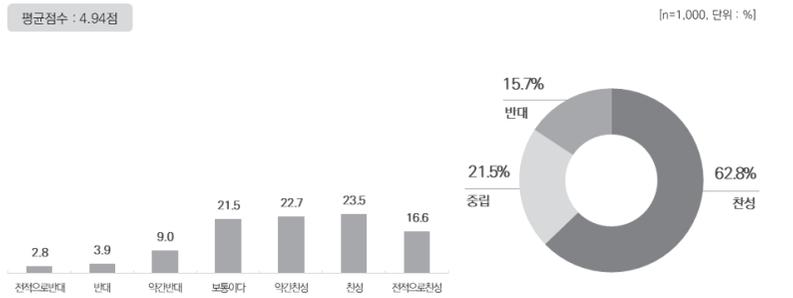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3%)이 여성(46.2%)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30.1%), 30대(43.6%), 40대(49.2%), 50대(53.2%), 60대 이상(63.6%)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의 경우(남성: 48%, 여성: 50.5%)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2.1%)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

- 교(45.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3.9%)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3.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54.3%)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45.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53.2%)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7.9%), 만난 경험 있음(53.2%),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

아.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악함을 제거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고한 지도자이다.

-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악함을 제거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고한 지도자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2.8%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5.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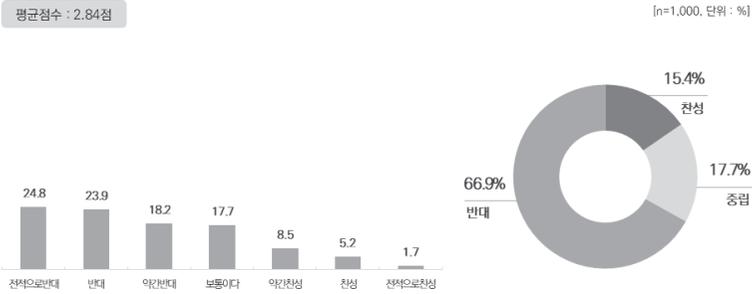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6.9%)이 여성(58.7%)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41.6%), 30대(53.9%), 40대(59.9%), 50대(72.1%), 60대 이상(77.3%)
 -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의 경우(남성: 64%, 여성: 55.7%)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살펴보면 불교(69%)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59.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70.1%)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60.6%)와 진보(60.2%)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73.2%)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56.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65.2%)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2.4%), 만난 경험 있음(63.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2. 사회지배경향

가. 열등한 개인, 집단과 계층은 자신들의 주제에 맞게 주어진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 ‘열등한 개인, 집단과 계층은 자신들의 주제에 맞게 주어진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15.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66.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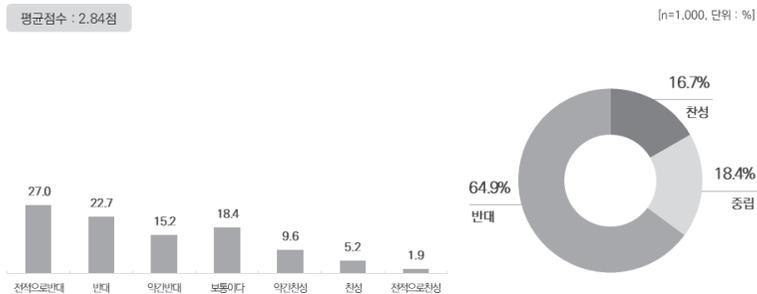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19%)이 여성(11.9%)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17.4%)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13.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50대의 경우(남성: 12.6%, 여성: 14.3%)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19%)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13.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18.4%)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12.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21%)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12.7%)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12.2%), 300~500만원 미만(15.7%), 500만원 이상(16.7%)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14.9%), 만난 경험 있음(13.9%),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0%)

나. 우월한 계층 또는 집단이 상위에 있고 열등한 계층과 집단은 하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우월한 계층 또는 집단이 상위에 있고 열등한 계층과 집단은 하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16.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64.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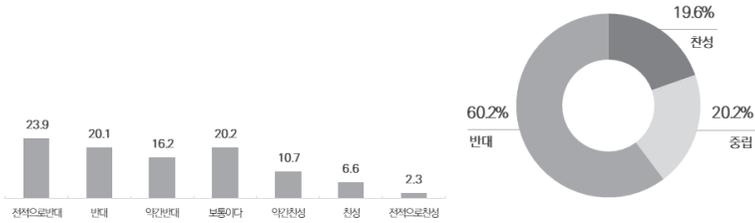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20.2%)이 여성(13.3%)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21.4%)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12.4%)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찬성: 28.6%, 반대: 13.4%), 30대(찬성: 23.8%, 반대:

14.8%), 40대(찬성: 20%, 반대: 16.5%), 50대(찬성: 15.5%, 반대: 9.2%), 60대 이상(찬성: 15.3%, 반대: 13%)

- 종교별로 보면 무교(17.3%)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14.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18%)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14.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 지역(22.9%)이 최고, 광주/전라 지역(13.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15%), 300~500만원 미만(17.1%), 500만원 이상(17.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15%), 만난 경험 있음(18.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3.3%)

다.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간 위계가 분명해야 한다. 어떤 계층은 상위에, 다른 계층은 하위에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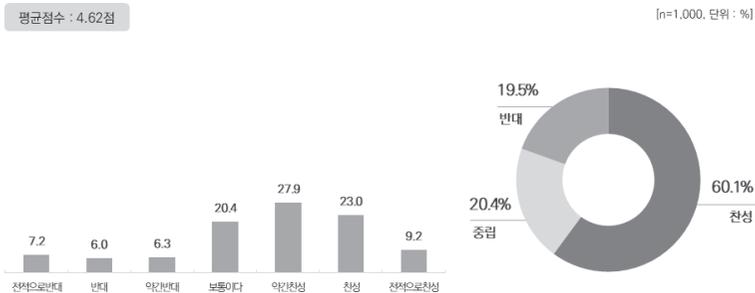
-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간 위계가 분명해야 한다. 어떤 계층은 상위에, 다른 계층은 하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19.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60.2%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23.4%)이 여성(15.9%)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21.4%)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17.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50대의 경우(남성: 20.4%, 여성: 22.4%)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23%)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17.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23.8%)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16%)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23.8%)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1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21.2%)인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18.8%), 만난 경험 있음(19%),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3.3%)

라. 세상에는 남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이 있다.

- ‘세상에는 남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0.1%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9.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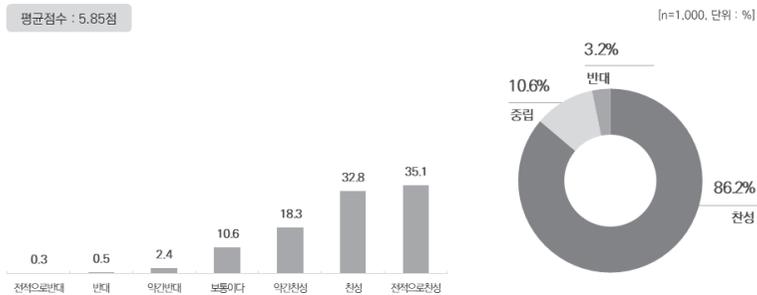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1.7%)이 여성(85.5%)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6.3%)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53.9%)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57.1%, 여성: 50.6%), 40대(남성: 66%, 여성: 57.7%), 60세 이상(남성: 72%, 여성: 61.6%)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6%, 여성: 57.3%)와 50대(남성: 54.4%, 여성: 62.2%)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기독교(61.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55.2%)에서 가장 낮음
- 보수(70.9%)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5.6%)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5.9%)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54.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55.9%)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61%), 만난 경험 있음(56.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마.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개인과 계층에게 동일하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개인과 계층에게 동일하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86.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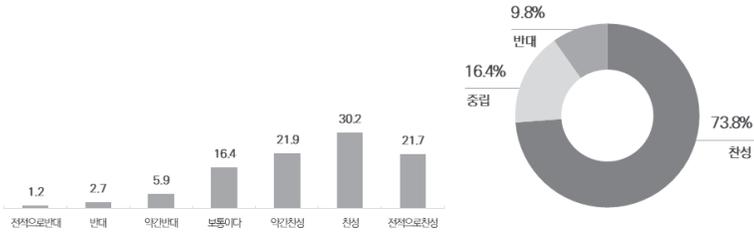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88.5%)이 남성(83.9%)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90%)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75.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3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20대(남성: 70.3%, 여성: 81.7%), 30대(남성: 85.7%, 여성: 86.4%), 40대(남성: 86%, 여성: 87.6%), 50대(남성: 87.4%, 여성: 92.9%), 60대 이상(남성: 88.1%, 여성: 91.1%)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88.9%)와 천주교(88.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무교(84.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91.8%)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82.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89.5%)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76.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89.3%)인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85.4%), 만난 경험 있음(90.9%),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바. 우리는 모든 사람과 계층에게 동일한 삶의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우리는 모든 사람과 계층에게 동일한 삶의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3.8%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9.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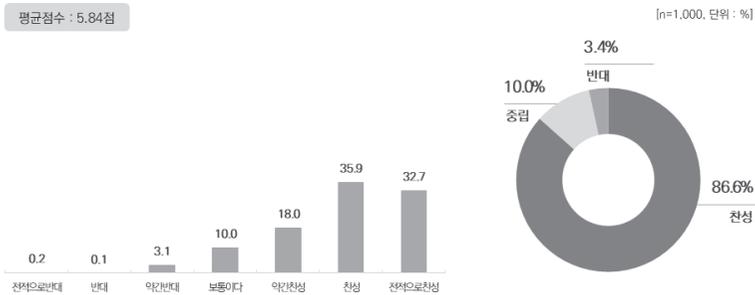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75.8%)이 남성(71.8%)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81.6%)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54.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6.2%, 여성: 63.4%), 30대(남성: 70.2%, 여성: 72.8%), 40대(남성: 80%, 여성: 73.2%), 50대(남성: 79.6%, 여성: 83.7%), 60대 이상(남성: 78.8% 여성: 80.8%)
- 종교별로 보면 불교(78.7%)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7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0.3%)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0.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78.6%)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68.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76.2%)인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73.5%), 만난 경험 있음(76.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6.7%)

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살면서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살면서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86.6%가 ‘찬성’한다고 응답, ‘반대’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88.9%)이 남성(84.3%)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90.5%)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77.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찬성비율: 20대(남성: 75.8%, 여성: 79.3%), 30대(남성: 79.8%, 여성: 88.9%), 40대(남성: 87%, 여성: 89.7%), 50대

(남성: 87.4%, 여성: 93.9%), 60대 이상(남성: 89%, 여성: 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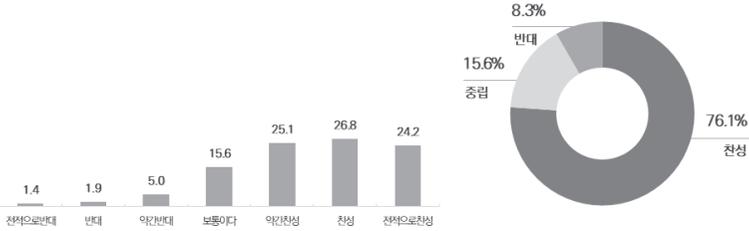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90.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84.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91.5%)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83.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88.6%)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79.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79.8%), 300~500만원 미만(88.1%), 500만원 이상(88.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85.5%), 만난 경험 있음(91.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0%)

아. 사람 간, 계층 간 평등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사람 간, 계층 간 평등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6.1%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8.3%로 나타남

평균점수 : 5.38점

[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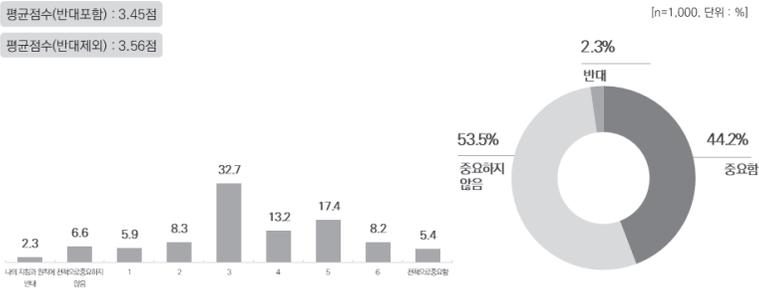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77.4%)이 남성(74.8%)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64.7%), 30대(74.5%), 40대(78.2%), 50대(78.6%), 60대 이상(81.1%)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77.4%, 여성: 71.6%)와 40대(남성: 79%, 여성: 77.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9.3%, 여성: 70.7%), 50대(남성: 76.7%, 여성: 80.6%), 60세 이상(남성: 79.7%, 여성: 82.2%)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8.7%)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74.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4%)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71.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79.7%)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68.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77.4%)인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76.6%), 만난 경험 있음(77.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3. Schwartz 기본적 가치

가. 권력(사회적 힘, 권위, 경제적 부)

- ‘권력(사회적 힘, 권위, 경제적 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44.2%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3.5%로 나타남
-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함



- 성별로 보면 남성(48.4%)이 여성(40.1%)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49.1%)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40.9%)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

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20대(남성: 49.5%, 여성: 48.8%), 30대(남성: 52.4%, 여성: 42%), 40대(남성: 44%, 여성: 41.2%), 50대(남성: 45.6%, 여성: 40.8%), 60대 이상(남성: 50.8%, 여성: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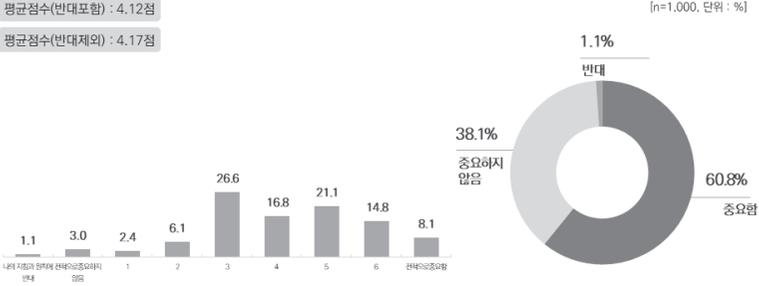
- 종교별로 보면 불교(47.1%)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7.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0%)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48.6%)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38.1%) 지역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1.9%), 300~500만원 미만(45.8%), 500만원 이상(48.9%)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3.5%), 만난 경험 있음(46.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3.3%)

나. 성취(성공, 유능, 야심, 사람과 사건(일)에 대한 영향력)

- ‘성취(성공, 유능, 야심, 사람과 사건(일)에 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0.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8.1%로 나타남
-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함

평균점수(반대포함) : 4.12점

평균점수(반대제외) : 4.1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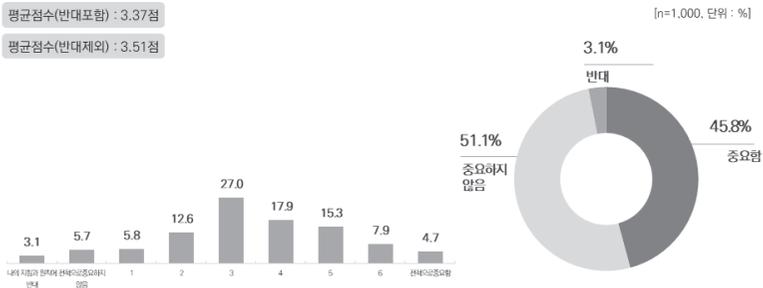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3.9%)이 여성(57.7%)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67.6%)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56.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남성: 61%, 여성: 51.5%)와 60세 이상(남성: 69.5%, 여성: 47.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20대(남성: 64.8%, 여성: 70.7%), 30대(남성: 61.9%, 여성: 63%), 50대(남성: 61.2%, 여성: 64.3%)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62.2%)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57.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3.1%)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8.6%)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66.8%)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53.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1.6%), 300~500만원 미만(60.9%), 500만원 이상(65.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1.3%), 만난 경험 있음(59.9%),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6.7%)

다. 쾌락(욕구의 만족, 즐거운 삶을 추구, 방종)

- ‘쾌락(욕구의 만족, 즐거운 삶을 추구, 방종)’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45.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1.1%로 나타남
-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함



- 성별로 보면 남성(50.2%)이 여성(41.5%)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64.7%)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3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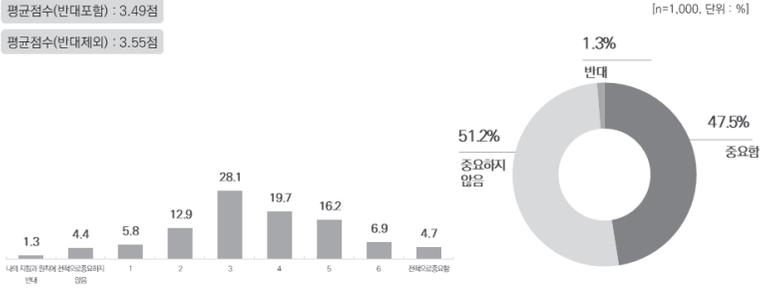
- 20대(남성: 54.9%, 여성: 75.6%), 30대(남성: 64.3%, 여성: 44.4%), 40대(남성: 50%, 여성: 33%), 50대(남성: 47.6%, 여성: 43.9%), 60대 이상(남성: 39%, 여성: 28.1%)
- 종교별로 보면 무교(50.6%)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36.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48.6%)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3.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51.2%)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43.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48.2%)인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7.2%), 만난 경험 있음(42.9%),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36.7%)

라. 자극(대범함, 다양한 삶, 도전하는 사람, 흥분되는 삶)

- ‘자극(대범함, 다양한 삶, 도전하는 사람, 흥분되는 삶)’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47.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1.2%로 나타남
-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함

평균점수(빈대포함) : 3.49점

평균점수(빈대제외) : 3.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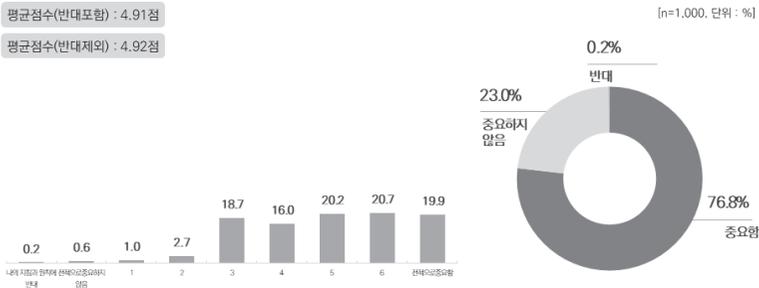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3.6%)이 여성(41.5%)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에서 가장 낮음
 - 20대(51.4%), 30대(50.3%), 40대(46.7%), 50대(48.8%), 60대 이상(42.8%)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52.7%, 여성: 50%), 30대(남성: 54.8%, 여성: 45.7%), 40대(남성: 58%, 여성: 35.1%), 50대(남성: 53.4%, 여성: 43.9%), 60대 이상(남성: 50%, 여성: 37%)
- 종교별로 보면 무교(49.8%)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4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2%)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5.5%)와 중도(45.3%)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56.1%)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41.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8%), 300~500만원 미만(48.1%), 500만원 이상(51.6%)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5.8%), 만난 경험 있음(50.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

마. 자율(창의성, 자유, 호기심, 독립심,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결정)

- ‘자율(창의성, 자유, 호기심, 독립심,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결정)’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6.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0%로 나타남
-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0.2%에 불과함



- 성별로 보면 남성(78%)이 여성(75.6%)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80.3%)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73.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77.4%, 여성: 69.1%)와 60세 이상(남성: 85.6%, 여성: 76%)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

면, 20대(남성: 74.7%, 여성: 80.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40대(남성: 78%, 여성: 78.4%)와 50대(남성: 72.8%, 여성: 73.5%)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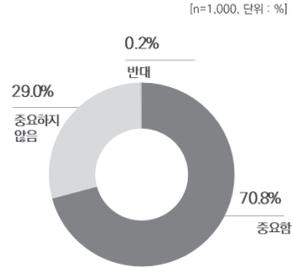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79.3%)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72.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2.8%)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73.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81.9%)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69.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70.4%), 300~500만원 미만(76.2%), 500만원 이상(80.3%)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75.2%), 만난 경험 있음(82.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바. 보편주의(편견이 없는, 자연과 예술의 존중, 사회적 정의, 평화로운 세상, 평등, 지혜, 자연과의 조화, 환경보호)

- ‘보편주의(편견이 없는, 자연과 예술의 존중, 사회적 정의, 평화로운 세상, 평등, 지혜, 자연과의 조화, 환경보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0.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9.0%로 나타남
-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0.2%에 불과함

평균점수(빈대포함) : 4.73점

평균점수(빈대제외) : 4.7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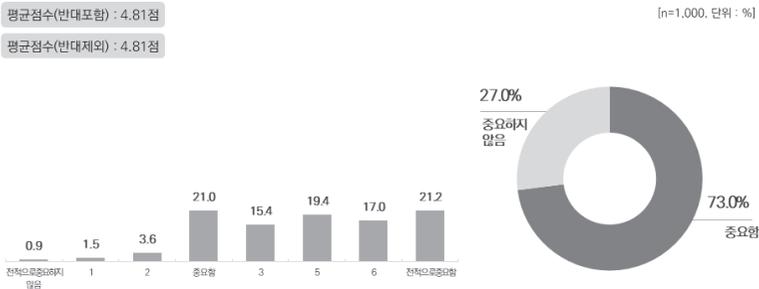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72.8%)이 남성(68.8%)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20대(63.6%), 30대(66.1%), 40대(71.6%), 50대(74.1%), 60대 이상(75.4%)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53.8%, 여성: 74.4%), 30대(남성: 64.3%, 여성: 67.9%), 40대(남성: 70%, 여성: 73.2%), 50대(남성: 70.9%, 여성: 77.6%), 60대 이상(남성: 80.5%, 여성: 71.2%)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75.1%)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63.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2.8%)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62.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74.5%)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62.7%)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7.1%), 300~500만원 미만(69.9%), 500만원 이상(73.3%)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9.4%), 만난 경험 있음(75.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사. 박애(도움이 되는, 정직함, 용서, 충실함, 책임감)

- ‘박애(도움이 되는, 정직함, 용서, 충실함, 책임감)’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3.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7.0%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73.8%)이 여성(72.2%)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9.9%)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62.4%)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69%, 여성: 65.4%)와 60세 이상(남성: 89.8%, 여성: 71.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20대(남성: 58.2%, 여성: 67.1%), 40대(남성: 74%, 여성: 78.4%), 50대(남성: 72.8%, 여성: 76.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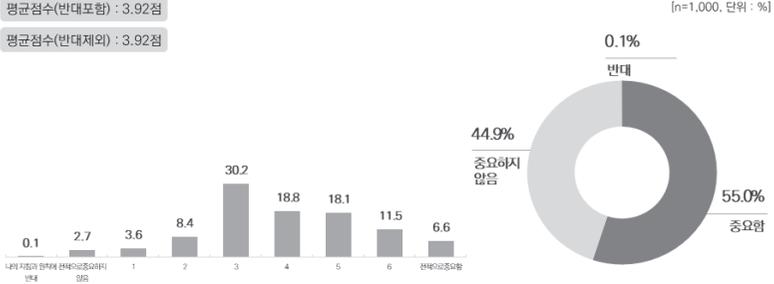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77.9%)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70.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2.8%)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6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76.2%)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67.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5.3%), 300~500만원 미만(72.5%), 500만원 이상(77.1%)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70.9%), 만난 경험 있음(80.2%),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아. 전통(전통에 대한 존중, 겸손함, 헌신, 겸양, 자신의 지위에 만족(안분지족))

- ‘전통(전통에 대한 존중, 겸손함, 헌신, 겸양, 자신의 지위에 만족(안분지족))’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5.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4.9%로 나타남
-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0.1%에 불과함

평균점수(반대포함) : 3.92점

평균점수(반대제외) : 3.9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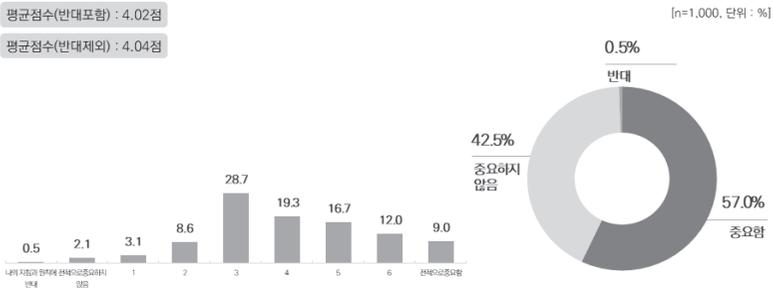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0.3%)이 여성(49.8%)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20대(35.3%), 30대(47.3%), 40대(53.8%), 50대(62.2%), 60대 이상(68.2%)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2.9%, 여성: 26.8%), 30대(남성: 50%, 여성: 44.4%), 40대(남성: 56%, 여성: 51.5%), 50대(남성: 64.1%, 여성: 60.2%), 60대 이상(남성: 81.4%, 여성: 57.5%)
- 종교별로 보면 불교(64.9%)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9.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0.7%)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2.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2.2%)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52.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8.8%), 300~500만원 미만(55.7%), 500만원 이상(57.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4.2%), 만난 경험 있음(58.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6.7%)

자. 동조(복종,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존경, 자기수양, 공손함과 정중함)

- ‘동조(복종,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존경, 자기수양, 공손함과 정중함)’은 전체 응답자의 57.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2.5%로 나타남
-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0.5%로 낮음



- 성별로 보면 남성(61.5%)이 여성(52.6%)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20대(43.9%), 30대(50.9%), 40대(55.3%), 50대(59.2%), 60대 이상(68.9%)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8.4%, 여성: 39%), 30대(남성: 56%, 여성: 45.7%), 40대(남성: 52%, 여성: 58.8%), 50대(남성: 66%, 여성: 52%), 60대 이상(남성: 79.7%, 여성: 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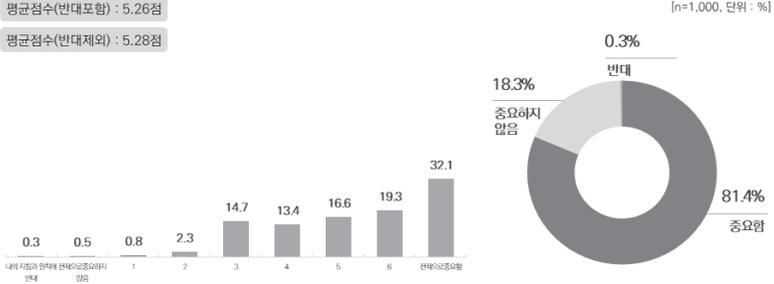
- 종교별로 보면 불교(61.5%)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4.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4.3%)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와 진보의 차이(중도: 54.7%, 진보: 54.5%)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8.3%)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51.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8.8%), 300~500만원 미만(58%), 500만원 이상(60.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5.2%), 만난 경험 있음(62.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6.7%)

차. 안전(국가안보, 가정의 안전, 사회적 질서, 단정함, 호의에 대한 보답)

- ‘안전(국가안보, 가정의 안전, 사회적 질서, 단정함, 호의에 대한 보답)’은 전체 응답자의 81.4%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8.3%로 나타남

평균점수(반대표함) : 5.26점

평균점수(반대제외) : 5.2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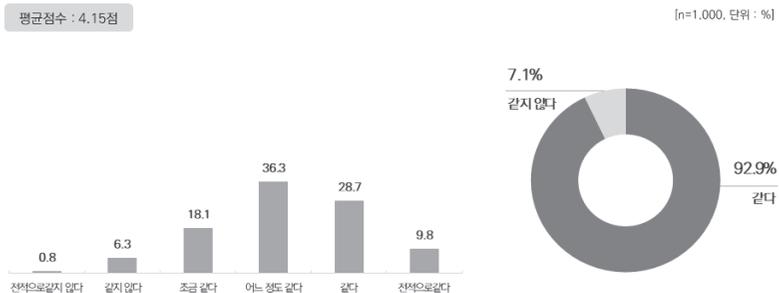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82.3%)이 여성(80.6%)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86.4%)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74.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75.8%, 여성: 80.5%), 30대(남성: 73.8%, 여성: 75.3%), 50대(남성: 81.6%, 여성: 85.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남성: 94.9%, 여성: 79.5%)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40대(남성: 81%, 여성: 81.4%)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84.3%)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78.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85.7%)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78.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86.7%)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77.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76.1%), 300~500만원 미만(80.9%), 500만원 이상(84.4%)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80.2%), 만난 경험 있음(85.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6.7%)

4. 자기고양 가치

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

- ‘즐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92.9%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같지 않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60%)이 여성(60%)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94.9%)에서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89%)에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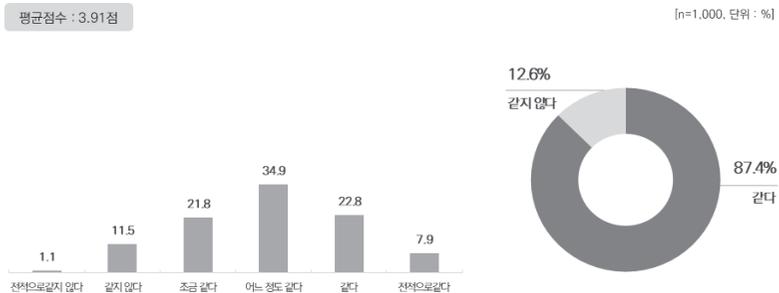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96.4%, 여성: 91.4%), 50대(남성: 97.1%, 여성: 90.8%), 60세 이상(남성: 94.1%, 여성: 84.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93.4%, 여성: 95.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40대(남성: 95%, 여성: 94.8%)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94.7%)에서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88.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91.4%)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고, 중도(93.6%)와 진보(93.1%)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97.6%)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88.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92%), 300~500만원 미만(92.5%), 500만원 이상(93.7%)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음
 - 만난 적 없음(93%), 만난 경험 있음(93.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86.7%)

나. 크게 성공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

- ‘크게 성공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87.4%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같지 않다’는 응답은 12.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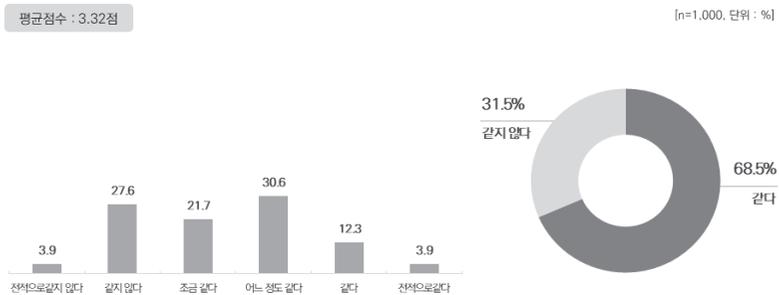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89.9%)이 여성(84.9%)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90.9%)에서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8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20대(남성: 89%, 여성: 87.8%), 30대(남성: 91.7%, 여성: 90.1%), 40대(남성: 86%, 여성: 86.6%), 50대(남성: 88.3%, 여성: 84.7%), 60대 이상(남성: 94.1%, 여성: 79.5%)
- 종교별로 보면 불교(89.1%)에서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외 종교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5.6%)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고, 보수(88.5%)와 중도(88.1%)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951%)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82.7%)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84%), 300~500만원 미만(87.8%), 500만원 이상(88.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정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만난 적 없음(87.3%), 만난 경험 있음(87.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86.7%)

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지 지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

-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지 지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8.5%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같지 않다’는 응답은 31.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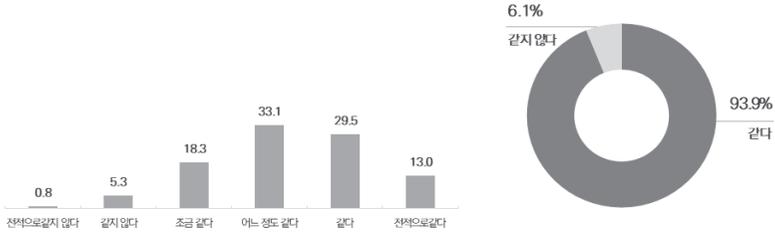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73.4%)이 여성(63.7%)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75.2%)에서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63.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70.3%, 여성: 61%), 30대(남성: 82.1%, 여성: 67.9%), 40대(남성: 65%, 여성: 61.9%), 50대(남성: 74.8%, 여성: 70.4%), 60대 이상(남성: 75.4%, 여성: 59.6%)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71.6%)에서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65.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1.7%)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63.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76.5%)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64.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66.7%)들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7.3%), 만난 경험 있음(7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6.7%)

라. 부유해지는 것이 그녀(그)에게는 중요하다

- ‘부유해지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93.9%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같지 않다’는 응답은 6.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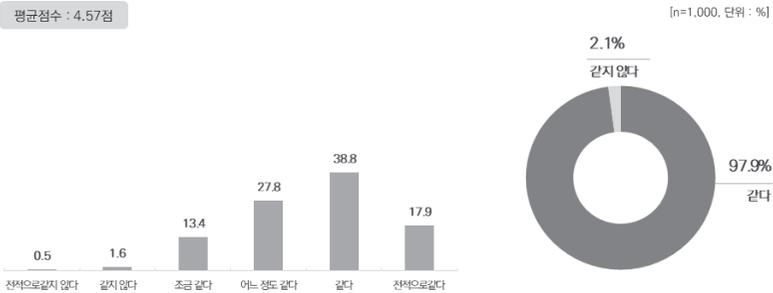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95%)이 여성(92.9%)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97%)에서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92.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96.7%, 여성: 93.9%), 50대(남성: 94.2%, 여성: 90.8%), 60세 이상(남성: 97.5%, 여성: 8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96.4%, 여성: 97.5%)와 40대의 경우(남성: 90%, 여성: 95.9%) 여성이 남성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94.8%)에서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92.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95.2%)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91.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과 대구/경북 지역(96.2%)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광주/전라 지역(89.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95.9%)들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없는 응답자(94.6%)들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5. 자기초월 가치

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

-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97.9%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같지 않다’는 응답은 2.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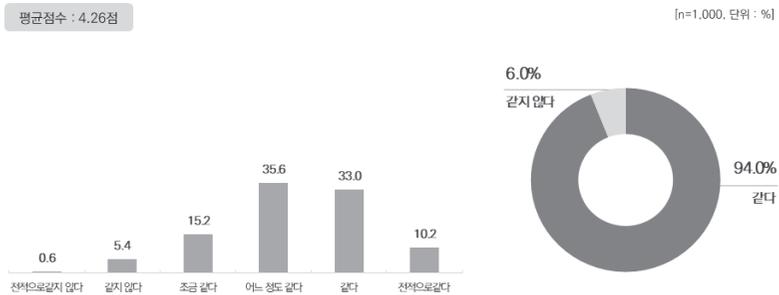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50대(99%)에서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95.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30대(남성: 96.4%, 여성: 93.8%)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99.1%)에서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96.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98.7%)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와 중도는 동일함(97.5%)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99%)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95.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96.7%), 300~500만원 미만(97.4%), 500만원 이상(98.9%)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98.3%), 만난 경험 있음(97.2%),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93.3%)
- 성별에 따른 차이(남성: 98%, 여성: 97.8%)는 크지 않음

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녀(그)에게는 중요하다.

-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녀(그)에게는 중요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94.0%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같지 않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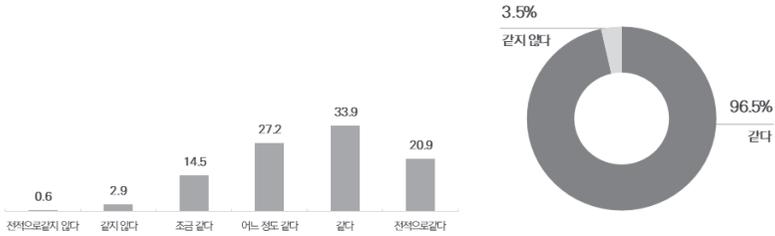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95.6%)이 여성(92.5%)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96.4%)에서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93.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92.3%, 여성: 93.9%), 30대(남성: 97.6%, 여성: 88.9%), 40대(남성: 97%, 여성: 95.9%), 50대(남성: 95.1%, 여성: 92.9%), 60대 이상(남성: 95.8%, 여성: 91.1%)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95.9%)에서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93.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95.2%)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92.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98%)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9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94.4%)들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94.4%), 만난 경험 있음(93.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90%)

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

-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96.5%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같지 않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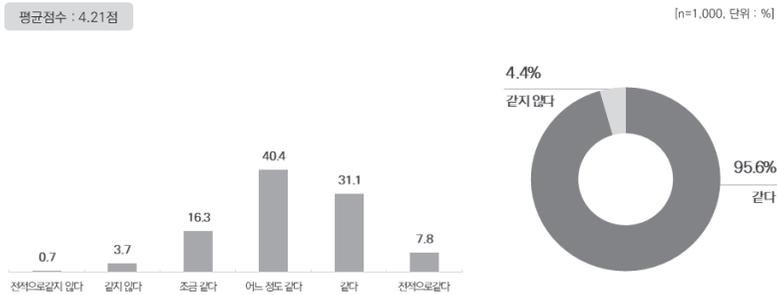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98%)이 남성(95%)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99.2%)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91.9%)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남성: 95%, 여성: 96.9%), 60세 이상(남성: 100%, 여성: 98.6%)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20대(남성: 87.9%, 여성: 96.3%), 30대(남성: 94%, 여성: 97.5%), 50대(남성: 93.2%, 여성: 100%)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99.1%)에서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95.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95.9%)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고, 중도(96.6%)와 진보(96.9%)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100%)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94.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97.4%)들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96.5%), 만난 경험 있음(97.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86.7%)

라.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들을 수용하는 것이 그녀(그)에게는 중요하다

-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들을 수용하는 것이 그녀(그)에게는 중요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95.6%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같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97%)에서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92.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94.5%, 여성: 90.2%), 50대(남성: 97.1%, 여성: 94.9%), 60세 이상(남성: 98.3%, 여성: 95.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94%, 여성: 96.3%)와 40대(남성: 94%, 여성: 99%)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96.6%)에서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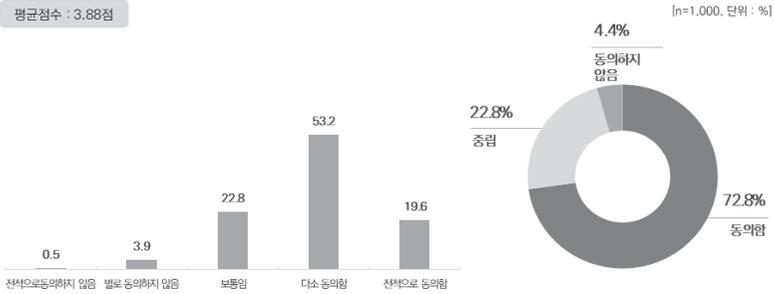
- 가장 높고, 무교(95.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96.6%)가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94.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97.6%)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92.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94.4%)들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본인과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95.3%), 만난 경험 있음(96.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93.3%)
 - 성별에 따른 차이(남성: 95.8%, 여성: 95.4%)는 크지 않음

6. 향상초점

가. 나는 어떤 일을 성취한 후 고무되어 그 일을 더 열심히 한 적이 있다.

- '나는 어떤 일을 성취한 후 고무되어 그 일을 더 열심히 한 적이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2.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남

평균점수 : 3.8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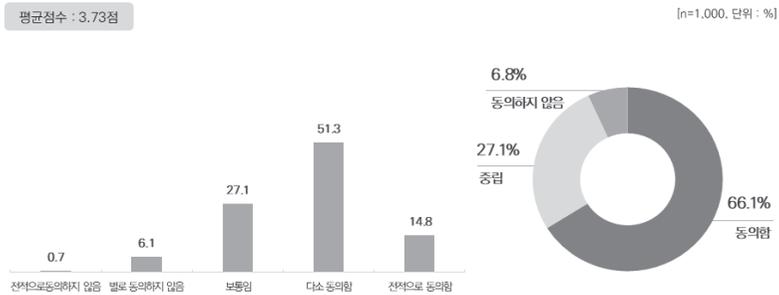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73.8%)이 남성(71.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60.1%), 30대(73.3%), 40대(73.6%), 50대(74.6%), 60대 이상(78.8%)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남성: 75%, 여성: 72.2%)와 60세 이상(남성: 79.7%, 여성: 78.1%)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6%, 여성: 64.6%), 30대(남성: 72.6%, 여성: 74.1%), 50대(남성: 72.8%, 여성: 76.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74.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71.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7.5%)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67.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80.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61.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0.1%), 300~500만원 미만(73%), 500만원 이상(78.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70.8%), 만난 경험 있음(80.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6.7%)

나. 나는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들을 잘 해내는 편이다.

- ‘나는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들을 잘 해내는 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6.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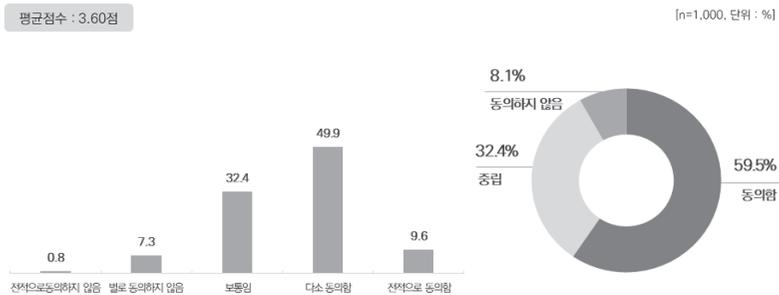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68.5%)이 남성(63.7%)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7.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52.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20대(남성: 51.6%, 여성: 53.7%), 30대(남성: 57.1%, 여성: 67.9%), 40대(남성: 57%, 여성: 63.9%), 50대(남성: 69.9%,

여성: 72.4%), 60대 이상(남성: 78%, 여성: 77.4%)

- 종교별로 보면 불교(72.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61.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59.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보수(71.3%)와 진보(70.8%)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73.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60.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2.6%), 300~500만원 미만(67.2%), 500만원 이상(71.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4.5%), 만난 경험 있음(71.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

다.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나는 계획대로 잘 진행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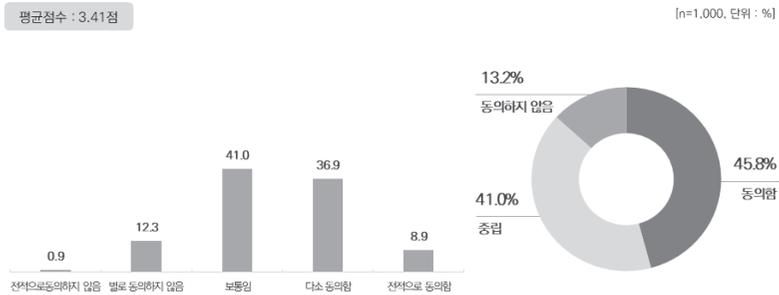
-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나는 계획대로 잘 진행하는 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9.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1%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60.7%)이 남성(58.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1.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44.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61.9%, 여성: 53.1%)와 60세 이상(남성: 73.7%, 여성: 69.2%)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44%, 여성: 45.1%), 40대(남성: 57%, 여성: 62.9%), 50대(남성: 51.5%, 여성: 65.3%)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67.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4.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6.4%)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3.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75.6%)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52.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4.1%), 300~500만원 미만(60.9%), 500만원 이상(65.8%)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8.4%), 만난 경험 있음(63.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라.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흥미를 끌거나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취미나 활동들을 자주 발견했다.

-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흥미를 끌거나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취미나 활동들을 자주 발견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5.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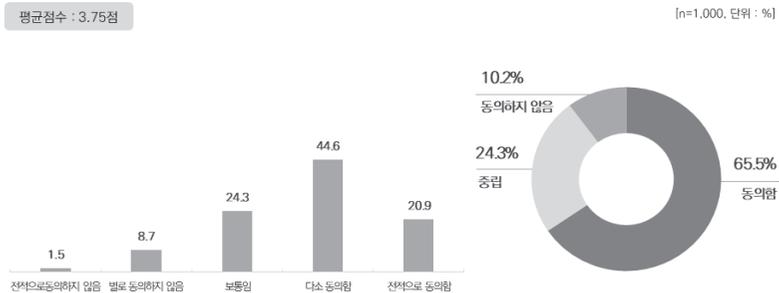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8.6%)이 여성(43.1%)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38.7%), 30대(43.6%), 40대(44.2%), 50대(48.8%), 60대 이상(50.8%)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2.9%, 여성: 34.1%), 30대(남성: 46.4%, 여성: 40.7%), 40대(남성: 50%, 여성: 38.1%), 50대(남성: 49.5%, 여성: 48%), 60대 이상(남성: 52.5%, 여성: 49.3%)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49.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4.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2.9%)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0.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56.1%)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42.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6.6%), 300~500만원 미만(43.8%), 500만원 이상(51.8%)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3.2%), 만난 경험 있음(52%),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6.7%)

7. 예방초점

가.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께서 도를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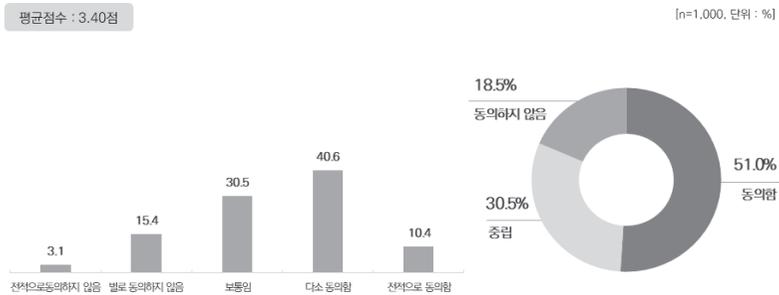
-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께서 도를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5.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2%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61.7%)이 남성(69.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59%), 30대(60.6%), 40대(61.4%), 50대(62.7%), 60대 이상(78%)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30대(남성: 61.9%, 여성: 59.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51.6%, 여성: 67.1%), 40대(남성: 59%, 여성: 63.9%), 50대(남성: 55.3%, 여성: 70.4%), 60대 이상(남성: 77.1%, 여성: 78.8%)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69.1%)와 천주교(6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무교(6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62.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보수(67.6%)와 진보(67.7%)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9.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60.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7.3%), 300~500만원 미만(66.1%), 500만원 이상(69%)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5.6%), 만난 경험 있음(66.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나.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화내실 만한 일들은 하지 않았다.

-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화내실 만한 일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1.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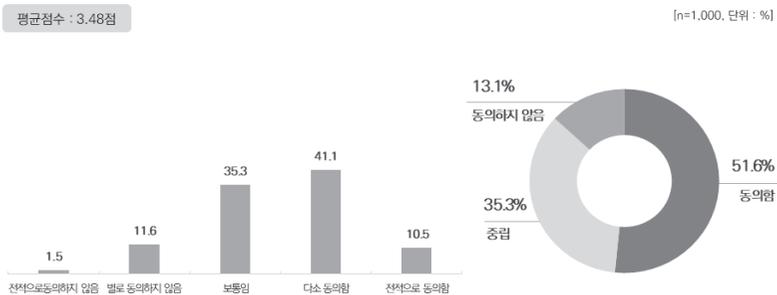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5.2%)이 남성(46.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59.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43.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의 경우(남성: 52.4%, 여성: 50.6%)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2.9%, 여성: 45.1%), 40대(남성: 51%, 여성: 55.7%), 50대(남성: 37.9%, 여성: 49%), 60대 이상(남성: 50%, 여성: 67.1%)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90%)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5.3%)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8.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56.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41.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3.7%), 300~500만원 미만(49.9%), 500만원 이상(55.4%)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51.3%), 만난 경험 있음(49.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6.7%)

다. 나는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통제에 착실하게 따랐다.

- ‘나는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통제에 착실하게 따랐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1.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1%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52.2%)이 남성(51%)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3.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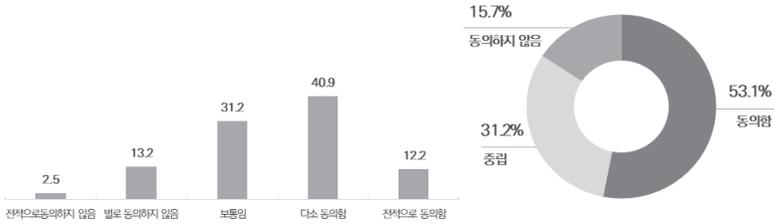
고, 20대(43.4%)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44%, 여성: 42.7%)와 30대(남성: 48.8%, 여성: 46.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46.6%, 여성: 48%)와 60세 이상의 경우(남성: 62.7%, 여성: 64.4%)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40대의 경우(남성: 50.4%, 여성: 50.8%)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0.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6.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8.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8.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55.6%)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40.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2.3%), 300~500만원 미만(49.9%), 500만원 이상(57.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9.9%), 만난 경험 있음(5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6.7%)

라.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들은 하지 않았다.

-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3.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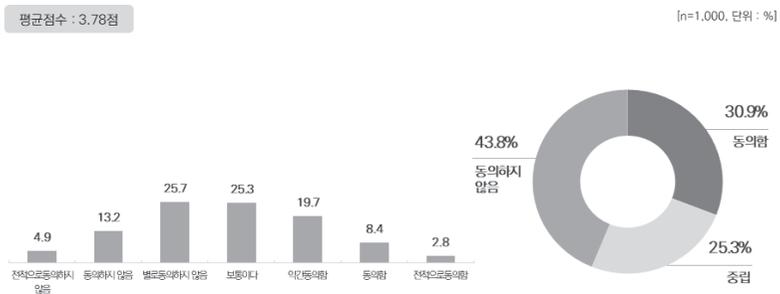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5.2%)이 남성(51%)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5.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46.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49.5%, 여성: 46.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47.6%, 여성: 52%)와 60세 이상(남성: 60.2%, 여성: 70.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남성: 50%, 여성: 50.6%)와 40대(남성: 46%, 여성: 46.4%)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61.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9.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9.8%)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8.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지역(56.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4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7.4%), 300~500만원 미만(49.6%), 500만원 이상(58.6%)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3.1%), 만난 경험 있음(53.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0%)

8. 현재 지향성

가. 나는 미래의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면한 현재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행동한다.

- ‘나는 미래의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면한 현재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행동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30.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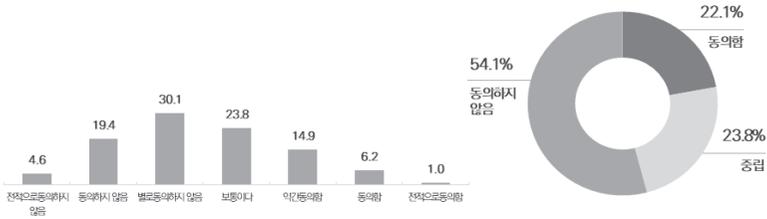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2.9%)이 여성(29%)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35.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27.9%)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38.5%, 여성:

- 29.3%), 30대(남성: 34.5%, 여성: 24.7%), 40대(남성: 31%, 여성: 24.7%)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34%, 여성: 37.8%)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60세 이상의 경우(남성: 28%, 여성: 28.1%)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32.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28.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26.3%)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보수(34.4%)와 진보(34.5%)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43.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25.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300만원 미만(31%), 300~500만원 미만(31.3%), 500만원 이상(30.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0.5%), 만난 경험 있음(30.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3.3%)

나. 나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문제들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다.

- ‘나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문제들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22.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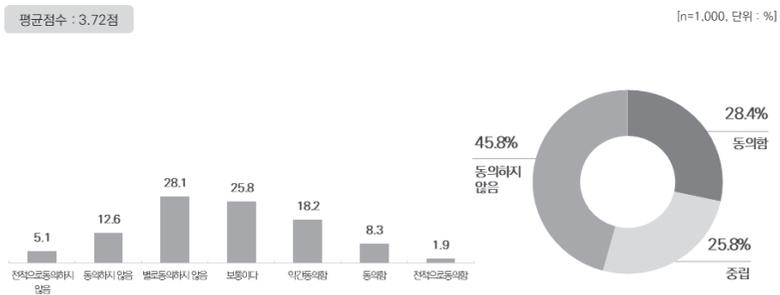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25.6%)이 여성(18.7%)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27.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18.3%)와 60세 이상(18.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33%, 여성: 22%), 30대(남성: 32.1%, 여성: 21%), 40대(남성: 26%, 여성: 10.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21.4%, 여성: 23.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60세 이상의 경우(남성: 18.6%, 여성: 17.8%)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28.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19.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23.8%)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20.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29.6%)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16.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19.7%), 300~500만원 미만(20.6%), 500만원 이상(24.4%)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0.5%), 만난 경험 있음(24.2%),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3.3%)

다. 미래의 결과들은 나중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미래의 결과들은 나중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28.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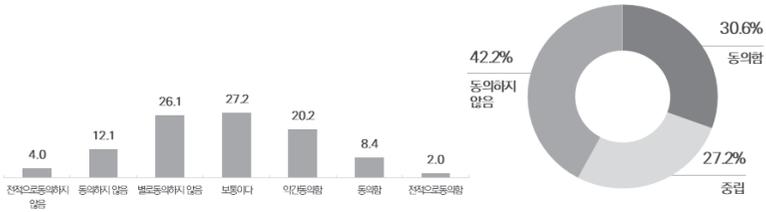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29.6%)이 여성(27.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34.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26.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36.3%, 여성: 32.9%), 30대(남성: 33.3%, 여성: 25.9%), 40대(남성: 33%, 여성: 19.6%)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24.3%, 여성: 29.6%)와 60세

이상(남성: 23.7%, 여성: 28.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31%) 및 천주교(3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26.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30.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26.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34.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22.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30.1%)인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7.6%), 만난 경험 있음(28.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6.7%)

라. 미래의 문제들은 나중에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행동한다.

- ‘미래의 문제들은 나중에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행동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30.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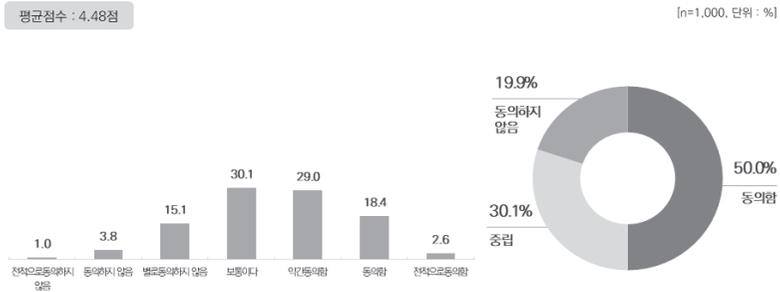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5.1%)이 여성(26.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35.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23.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39.6%, 여성: 30.5%), 30대(남성: 28.6%, 여성: 18.5%), 40대(남성: 36%, 여성: 22.7%), 50대(남성: 35.9%, 여성: 29.6%), 60대 이상(남성: 34.7%, 여성: 28.1%)
- 종교별로 보면 불교(38.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26.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29.3%)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보수(31.1%)와 진보(32%)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34.8%)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26.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300만원 미만(30.5%), 300~500만원 미만(30.7%), 500만원 이상(30.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9.2%), 만난 경험 있음(32.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0%)

9. 미래지향성

가. 나는 보통 달성하는 데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미래의 성과를 얻기 위해 행동에 착수한다.

- ‘나는 보통 달성하는 데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미래의 성과를 얻기 위해 행동에 착수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0.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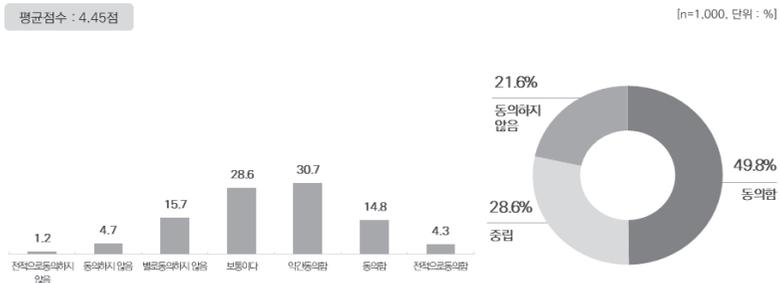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2.2%)이 여성(47.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55.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41.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50대의 경우(남성: 53.4%, 여성: 58.2%) 여성이 남성

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56.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7.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5.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6%)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1%)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42.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1.3%), 300~500만원 미만(52.2%), 500만원 이상(52.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7.6%), 만난 경험 있음(5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6.7%)

나. 나는 미래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행복이나 웰빙을 기꺼이 희생할 의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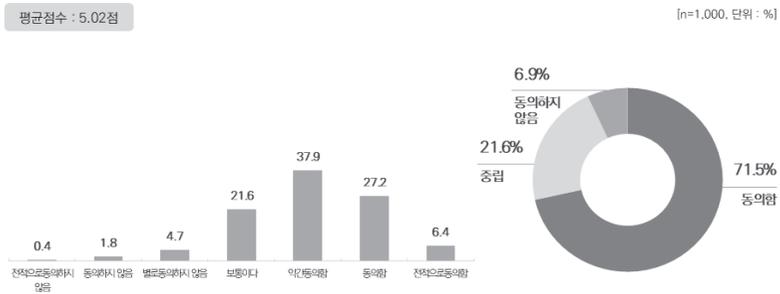
- ‘나는 미래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행복이나 웰빙을 기꺼이 희생할 의향이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9.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6%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55.8%)이 여성(43.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56.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44.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50.5%, 여성: 37.8%), 30대(남성: 58.3%, 여성: 54.3%), 40대(남성: 55%, 여성: 42.3%), 50대(남성: 59.2%, 여성: 45.9%), 60대 이상(남성: 55.9%, 여성: 41.1%)
- 종교별로 보면 불교(55.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5.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3.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8.3%)와 진보(48.9%)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51.6%)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40.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0.4%), 300~500만원 미만(50.1%), 500만원 이상(54.1%)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7.5%), 만난 경험 있음(5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다. 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몇 년 동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몇 년 동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1.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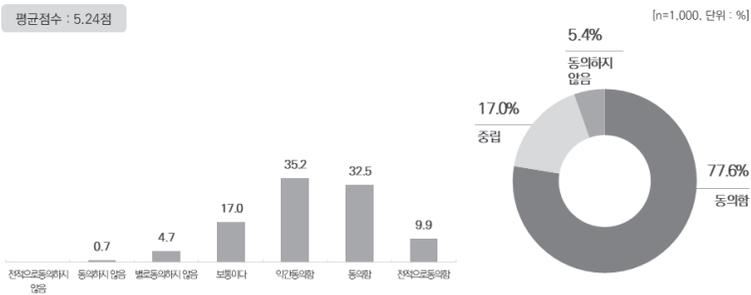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73.2%)이 남성(69.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5.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63.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20대의 경우(남성: 65.9%, 여성: 61%)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7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70.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8.1%)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 중도(65.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80.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63.7%)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6.2%), 300~500만원 미만(71.3%), 500만원 이상(74.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70.2%), 만난 경험 있음(75.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0%)

라.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이 결정이 미래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한다.

-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이 결정이 미래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7.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20대(남성: 64.8%, 여성: 73.2%), 30대(남성: 71.4%, 여성: 79%), 40대(남성: 77%, 여성: 80.4%), 50대(남성: 75.7%, 여성: 81.6%), 60대 이상(남성: 83.1%, 여성: 83.6%)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82.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74.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1.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74.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95.1%)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65.7%)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7.1%), 300~500만원 미만(79.1%), 500만원 이상(81.4%)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75.8%), 만난 경험 있음(82.9%),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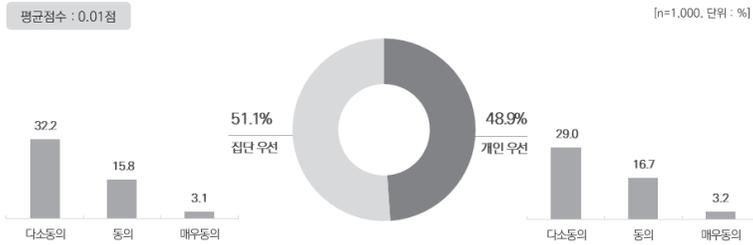
10.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가. 집단의 목표와 개인 목표 우선순위

-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상충하면 ‘집단의 목표에 우선순위

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51.1%, ‘개인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48.9%로 나타남

- 집단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 중 ‘다소 동의’가 32.2%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소 동의’가 29.0%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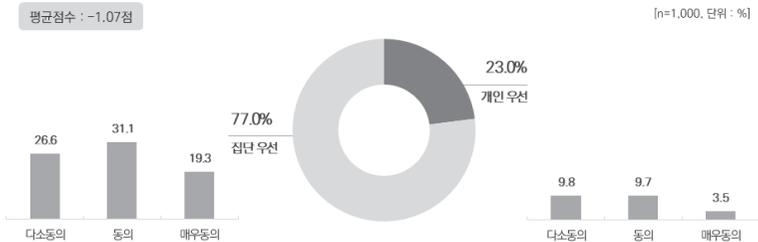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녀모두 집단 우선이 높음(남성: 51.2%, 여성: 51%)
- 연령별로 보면 20대(개인우선: 64.7%)와 30대(개인우선: 52.7%)의 경우 개인 우선이 높고, 40대(집단우선: 56.9%), 50대(집단우선: 54.2%), 60세 이상(집단우선: 57.2%)의 경우 집단 우선이 높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61.5%, 여성: 68.3%)와 30대(남성: 54.8%, 여성: 50.6%)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개인 우선이 높은 반면, 40대(남성: 58%, 여성: 55.7%), 50대(남성: 56.3%, 여성: 52%), 60세 이상(남성: 55.1%, 여성: 58.9%)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집단 우선이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집단 우선이 높고, 무교(개인우선: 53.3%)의 경우 개인 우선이 높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개인우선: 51.5%)와 진보(개인우선: 50.8%)는 개인 우선이 높고, 보수(집단우선: 58.2%)는 집단 우선이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전/충청/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집단 우선이 높고, 서울(개인우선: 51.3%)과 대전/충청/세종(개인우선: 52.4%)의 경우 개인 우선이 높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집단 우선이 높음
 - 300만원 미만(46.5%), 300~500만원 미만(50.4%), 500만원 이상(53.8%)
- 북한이탈주민과 만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집단 우선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51.5%), 만난 경험 있음(52.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0%)

나. 집단 성공에서의 중요도(구성원 간 협동/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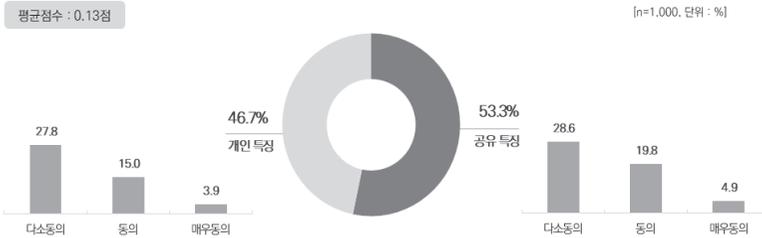
- 집단 성공의 원동력은 ‘구성원 간의 협동이다’는 의견이 77.0%, ‘구성원 간의 경쟁이다’는 23.0%로 나타남
- 집단 성공의 원동력은 구성원 간의 협동이다라는 의견 중 ‘동의’가 31.1%로 가장 높았으며, 구성원 간의 경쟁이다라는 의견은 ‘다소 동의’가 9.8%로 가장 높음



-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남성: 75.2%, 여성: 78.8%) 집단 우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집단 우선 비율(남성: 75.2%, 여성: 78.8%)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집단 우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60세 이상(집단우선: 79.9%)에서 집단 우선 비율이 가장 높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녀 차이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집단 우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20대(남성: 75.8%, 여성: 80.5%), 30대(남성: 58.3%, 여성: 74.1%), 40대(남성: 76%, 여성: 83.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집단 우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81.6%, 여성: 75.5%)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집단 우선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60세 이상의 경우(남성: 80.5%, 여성: 79.5%)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모든 종교에서 집단 우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불교(집단우선: 79.3%)에서 집단 우선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집단우선: 75.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모든 성향에서 집단 우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진보(집단우선: 80.9%)가 집단 우선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집단우선: 71.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집단 우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강원/제주 지역(85.4%)이 집단 우선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집단우선: 75.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79.2%)들이 집단 우선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78.6%)들이 집단 우선이 가장 높음

다. 개인 특징/공유 특징 중요성

- 나에게는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통된 특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53.3%, ‘구별되는 나만의 특징이 중요하다’는 46.7%로 나타남
- 공통된 특징이 중요하다는 의견 중 ‘다소 동의’가 27.8%로 가장 높았으며, 구별되는 나만의 특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다소 동의’가 28.6%로 가장 높음



- 성별로 보면 남성(54.6%)과 여성(52%) 모두 집단 우선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개인우선: 57.%)와 40대(개인우선: 52.8%)의 경우 개인 우선 비율이 높고, 30대(집단우선: 50.9%), 50대(집단우선: 53.7%), 60세 이상(집단우선: 65.9%)의 경우 집단 우선 비율이 높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남성(개인우선: 62.6%)과 여성(개인우선: 51.2%) 모두 개인 우선이 높은 반면, 50대(남성 집단우선: 55.3%, 여성 집단우선: 52%)와 60세 이상(남성 집단우선: 72.9%, 여성 집단우선: 60.3%)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집단 우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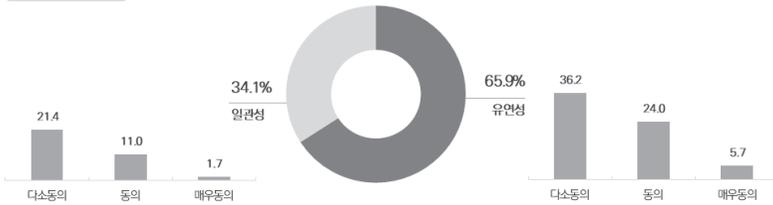
- 30대의 경우 남성(집단우선: 61.9%)은 집단 우선, 여성(개인 우선: 60.5%)은 개인 우선이 높은 반면, 40대의 경우 남성(개인우선: 58%)은 개인 우선, 여성(집단우선: 52.6%)은 집단 우선이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모든 종교에서 집단 우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천주교(58.6%)에서 집단 우선 비율이 가장 높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모든 성향에서 집단 우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도(55.4%)에서 집단 우선 비율이 가장 높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집단 우선이 높은 반면, 대구/경북 지역(개인우선: 53.9%)의 경우 개인 우선이 높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55.9%)들이 집단 우선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집단우선: 55.2%)들이 집단 우선이 가장 높음

라. 상대방 및 상황에 대한 일관성/유연성

- 나는 함께 있는 상대방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행동한다’는 의견은 34.1%, ‘상황에 따라 종종 다르게 행동한다’는 의견은 65.9%로 나타남
- 일관되게 행동한다는 의견 중 ‘다소 동의’가 21.4%로 가장 높았으며, 종종 다르게 행동한다는 의견도 ‘다소 동의’가 36.2%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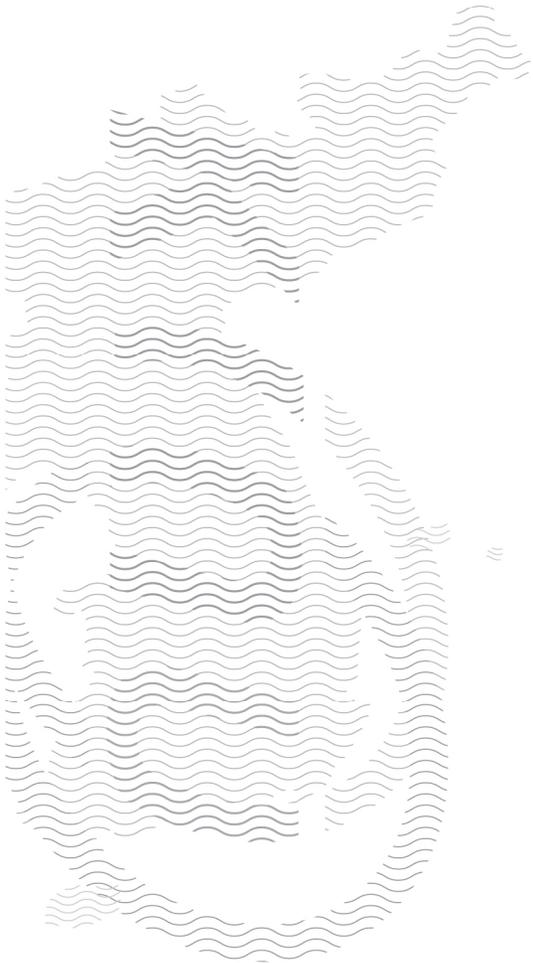
평균점수 : 0.53점

[n=1,000, 단위 : %]



-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집단 우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 (69%)이 남성(62.7%)보다 집단 우선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집단 우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20대(74%)에서 집단 우선 비율이 가장 높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녀 차이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집단 우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40대(남성: 67%, 여성: 63.9%)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집단 우선이 상대적으로 높음
 - 40대의 경우(남성: 67%, 여성: 63.9%) 남성이 여성보다 집단 우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모든 종교에서 집단 우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무교(67.7%)에서 집단 우선 비율이 가장 높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모든 성향에서 집단 우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진보(67.4%)가 집단 우선 비율이 가장 높음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집단 우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전/충청/세종 지역(71.4%)이 집단 우선 비율이 가장 높음
- 월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집단 우선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8.5%), 300~500만원 미만(66.4%), 500만원 이상(64.3%)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집단 우선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7.3%), 만난 경험 있음(63.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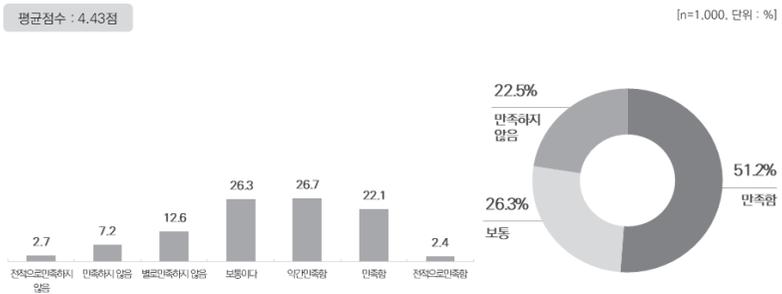
II. 사회적 신념과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



1. 주관적 안녕

가. 현재 당신의 삶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 ‘현재 전체적인 자신의 삶’에 전체 응답자의 51.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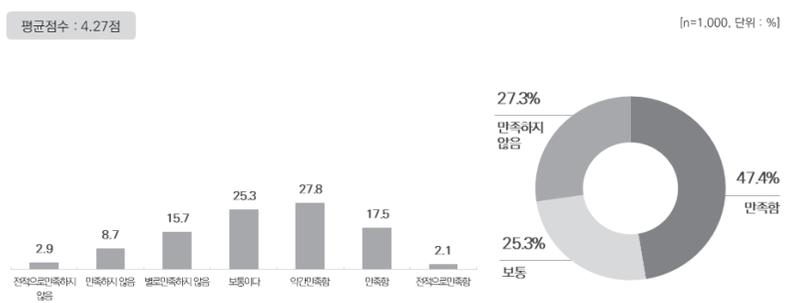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3.4%)이 남성(49%)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54.7%)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49.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30대의 경우(남성: 50%, 여성: 48.1%)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57.1%)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49.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9%)가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3.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56.5%)이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

- 산/울산/경남 지역(43.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5.7%), 300~500만원 미만(48.7%), 500만원 이상(60.6%)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51%), 만난 경험 있음(52%),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0%)

나. 현재 당신의 객관적 생활조건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현재 자신의 객관적 생활조건’에 전체 응답자의 47.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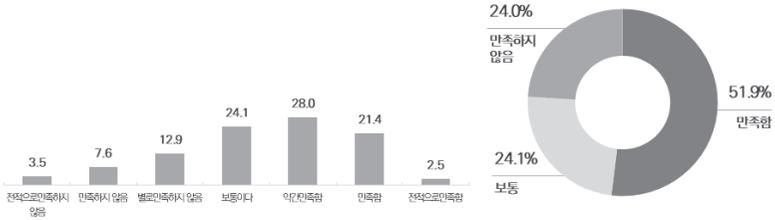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48.4%)이 남성(46.4%)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44.5%), 30대(46.1%), 40대(46.7%), 50대(48.8%), 60대 이상(49.6%)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49.5 %, 여성:

39%)와 30대(남성: 50%, 여성: 42%)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46%, 여성: 47.4%), 50대(남성: 41.7%, 여성: 56.1%), 60세 이상(남성: 45.8%, 여성: 52.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54%)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1.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4.1%)가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3.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52.3%)이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4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0.5%), 300~500만원 미만(42.6%), 500만원 이상(59.3%)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6.4%), 만난 경험 있음(49.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다. 당신은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현재 자신의 삶’에 전체 응답자의 51.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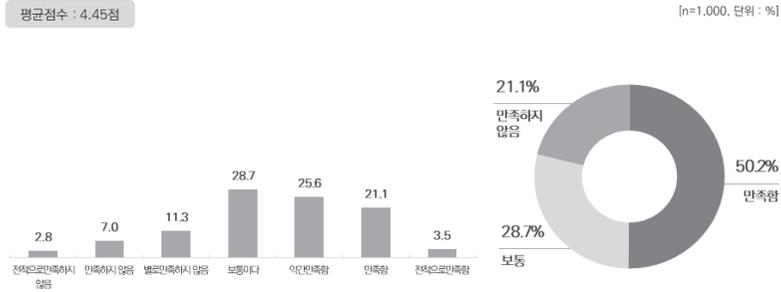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50대(54.2%)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50.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7.1%, 여성: 45.1%), 30대(남성: 53.6%, 여성: 49.4%), 40대(남성: 52%, 여성: 49.5%)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46.6%, 여성: 62.2%)와 60세 이상(남성: 50.8%, 여성: 52.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57.6%)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7%)가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7.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3.4%)이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44.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7.1%), 300~500만원 미만(50.4%), 500만원 이상(60.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0.4%), 만난 경험 있음(54.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 성별(남성: 51.8%, 여성: 52%)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라. 당신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행복한지’에 50.2%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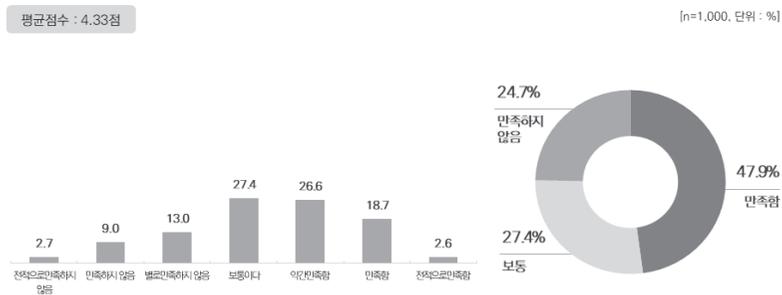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1.4%)이 남성(49%)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52%)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45.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8.2%, 여성: 45.1%)와 60세 이상(남성: 51.7%, 여성: 48.6%)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47%, 여성: 55.7%)와 50대(남성: 42.7%, 여성: 61.2%)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남성: 45.2%, 여성: 45.7%)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54.8%)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5.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5.3%)가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 중도(47.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56.2%)이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47.1%) 및 부산/울산/경남(47.1%) 지역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9.4%), 300~500만원 미만(47.2%), 500만원 이상(57.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9%), 만난 경험 있음(51.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마. 당신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신의 객관적 생활 조건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한 자신의 객관적 생활조건’에 전체 응답자의 47.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7%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49%)이 여성(46.8%)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94.2%)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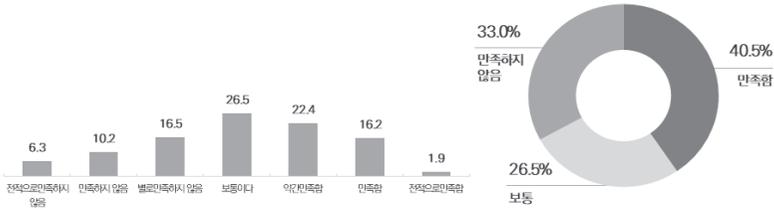
(46.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3.8%, 여성: 42.7%), 30대(남성: 52.4%, 여성: 44.4%), 60세 이상(남성: 51.7%, 여성: 43.8%)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48%, 여성: 50.5%)와 50대(남성: 39.8%, 여성: 53.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51.7%)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5.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1.6%)가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4.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56.1%)이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40.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4.7%), 300~500만원 미만(44.3%), 500만원 이상(5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6.1%), 만난 경험 있음(51.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

바. 당신이 바라는 이상과 비교하면 현재 당신의 삶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 ‘이상과 비교한 현재 자신의 삶’에 전체 응답자의 40.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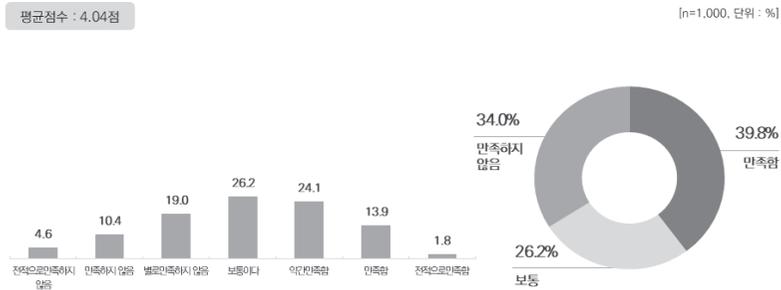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30대(43%)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39.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42.9%, 여성: 36.6%), 30대(남성: 48.8%, 여성: 37%), 60세 이상(남성: 44.1%, 여성: 37.7%)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36%, 여성: 43.3%)와 50대(남성: 31.1%, 여성: 49%)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46.1%)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35.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3.4%)가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37.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51.2%)이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3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1%), 300~500만원 미만(39.4%), 500만원 이상(45.9%)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8.9%), 만난 경험 있음(41.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0%)

- 성별(남성: 40.3%, 여성: 40.7%)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사. 당신이 바라는 이상과 비교하면 자신의 객관적 생활조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이상과 비교한 자신의 객관적 생활조건’에 전체 응답자의 39.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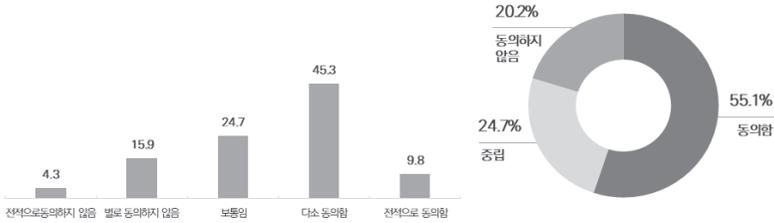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41.3%)이 남성(38.3%)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40.8%)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39.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42.9%, 여성: 35.4%), 30대(남성: 41.7%, 여성: 39.5%), 60세 이상(남성: 43.2%, 여성: 36.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30%, 여성: 48.5%)와 50대(남성: 34%, 여성: 48%)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45.7%)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 무교(3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2.6%)가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37.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44.8%)이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35.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6.3%), 300~500만원 미만(36.2%), 500만원 이상(49.1%)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8.3%), 만난 경험 있음(42.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2. 정치적 효능감

가. 나 같은 일반시민들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나 같은 일반시민들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5.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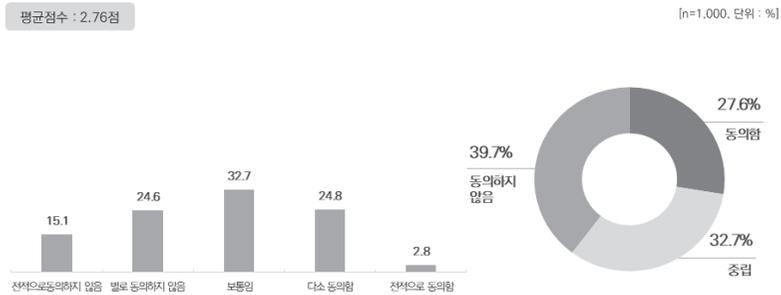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7.3%)이 남성(52.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63.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47.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6%, 여성: 72%), 40대(남성: 49%, 여성: 59.8%), 50대(남성: 53.4%, 여성: 56.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48.8%, 여성: 45.7%), 60세 이상(남성: 55.9%, 여성: 54.8%)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60.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51.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63%)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9.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2.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46.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3.2%), 300~500만원 미만(50.7%), 500만원 이상(64.3%)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53.9%), 만난 경험 있음(59.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0%)

나. 정부는 나 같은 일반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 ‘정부는 나 같은 일반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27.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7%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50대(32.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20.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29.7%, 여성: 24.4%), 30대(남성: 32.1%, 여성: 24.7%), 40대(남성: 33%, 여성: 29.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30.1%, 여성: 34.7%), 60세 이상(남성: 16.1%, 여성: 24.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29.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

- 독교(24.4%)가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5.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22.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36.6%)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2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2.5%), 300~500만원 미만(26.1%), 500만원 이상(31.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27%), 만난 경험 있음(27.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3.3%)
- 성별(남성: 27.6%, 여성: 27.6%)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다.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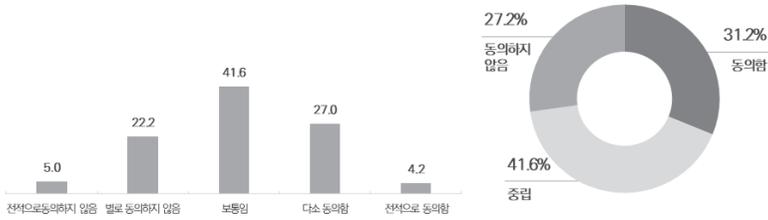
-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5.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3%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54.5%)이 여성(36.9%)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56.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34.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5.1%, 여성: 23.2%), 30대(남성: 47.6%, 여성: 27.2%), 40대(남성: 56%, 여성: 32%), 50대(남성: 63.1%, 여성: 50%), 60대 이상(남성: 57.6%, 여성: 44.5%)
- 종교별로 동의 비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무교(42.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3.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36.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5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42.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9.1%), 300~500만원 미만(45.5%), 500만원 이상(53.6%)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42.2%), 만난 경험 있음(52.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라. 나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보다 정치나 행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 ‘나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보다 정치나 행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31.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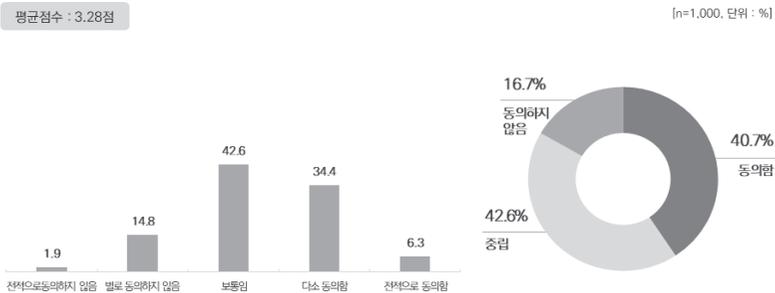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9.3%)이 여성(23.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35.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24.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34.1%, 여성: 13.4%), 30대(남성: 38.1%, 여성: 19.8%), 40대(남성: 39%, 여성: 20.6%), 50대(남성: 37.9%, 여성: 32.7%), 60대 이상(남성: 45.8%, 여성: 26%)
- 종교별로 보면 불교(39.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29.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2.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22.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38.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20.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1.6%), 300~500만원 미만(29.6%), 500만원 이상(37.1%)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8.3%), 만난 경험 있음(35.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3. 한국사회의 불공정성

가. 나의 노력에 비해 내가 처한 현실은 공정하지 않다.

- ‘나의 노력에 비해 내가 처한 현실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0.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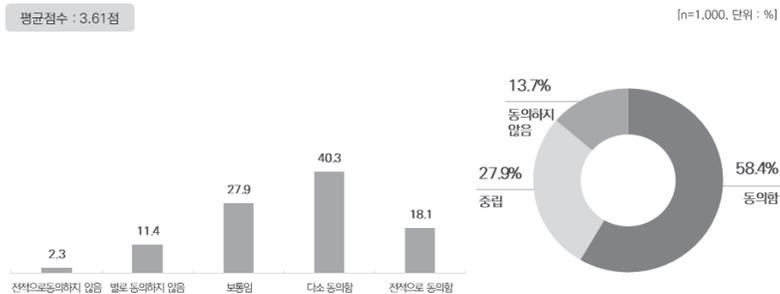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2.3%)이 여성(39.1%)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45.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34.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36.9%, 여성: 32.1%), 50대(남성: 42.7%, 여성: 41.2%), 60세 이상(남성: 49.2%, 여성: 42.5%)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38.5%, 여성: 40.2%)

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40대(남성: 42%, 여성: 41.2%)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4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5.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45.8%)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37.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47.1%)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33.7%)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44.1%)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42.5%)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나. 한국은 재화와 기회의 분배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공정성 혁명”이 필요하다.

- ‘한국은 재화와 기회의 분배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공정성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8.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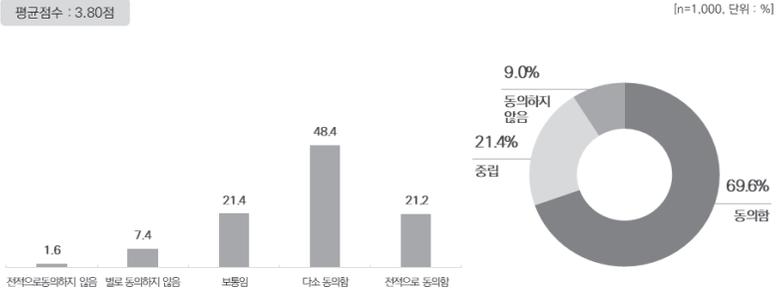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9.3%)이 여성(57.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65.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40.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54.8%, 여성: 50.6%), 50대(남성: 68.9%, 여성: 62.2%), 60세 이상(남성: 64.4%, 여성: 62.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39.6%, 여성: 41.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40대(남성: 65%, 여성: 64.9%)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0.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57.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1.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8.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8.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54.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63.8%)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60.7%)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성별, 지역, 연령, 사회적 배경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

- ‘한국에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성별, 지역, 연령, 사회적 배경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9.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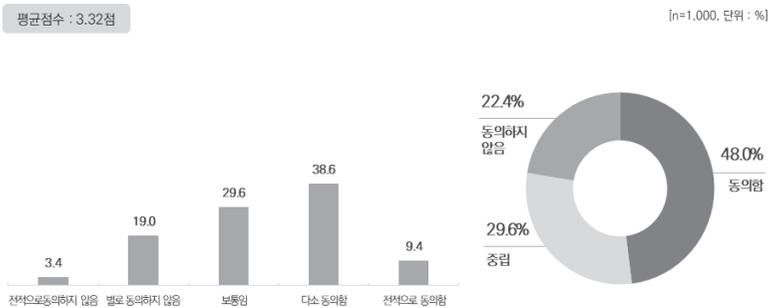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73.8%)이 남성(65.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61.8%), 30대(67.3%), 40대(70.6%), 50대(71.6%), 60대 이상(73.9%)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9.5%, 여성: 75.6%), 30대(남성: 66.7%, 여성: 67.9%), 40대(남성: 70%, 여성: 71.1%), 50대(남성: 66%, 여성: 77.6%), 60대 이상(남성: 72%, 여성: 75.3%)
- 종교별로 보면 불교(7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62.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6.8%)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65.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76.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5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7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70.9%), 만난 경험 있음(68.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6.7%)

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내 처지가 더 나아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내 처지가 더 나아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8.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4%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49.2%)이 남성(46.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50.9%), 30대(50.9%), 40대(46.7%), 50대(46.3%), 60대 이상(46.6%)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남성: 44%, 여성:

49.5%), 50대(남성: 40.8%, 여성: 52%), 60세 이상(남성: 45.8%, 여성: 47.3%)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3.8%, 여성: 47.6%)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남성: 51.2%, 여성: 50.6%)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50%)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46.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2.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4.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52.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43.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300만원 미만(53.1%), 300~500만원 미만(48.4%), 500만원 이상(45.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50.8%)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4. 집단의 본질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

가. 집단 또는 조직의 근본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다(노인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미국 속담은 맞는 것 같다.

- ‘집단 또는 조직의 근본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다(노인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미국 속담은 맞는 것 같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3.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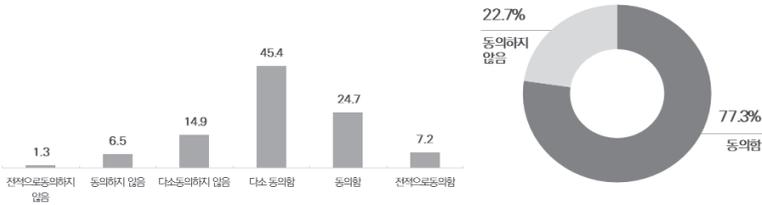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65.5%)이 남성(62.1%)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77.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49.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70.3%, 여성: 74.4%), 40대(남성: 69%, 여성: 72.2%), 60세 이상(남성: 39.8%, 여성: 57.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61.2%, 여성: 53.1%)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남성: 77.4%, 여성: 77.8%)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68.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57.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69.3%)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55.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70.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58.7%)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5.9%), 300~500만원 미만(65.8%), 500만원 이상(66.1%)
- 북한이탈주민과 만난 경험이 없는 응답자(65.5%)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나. 집단이나 조직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 ‘집단이나 조직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7.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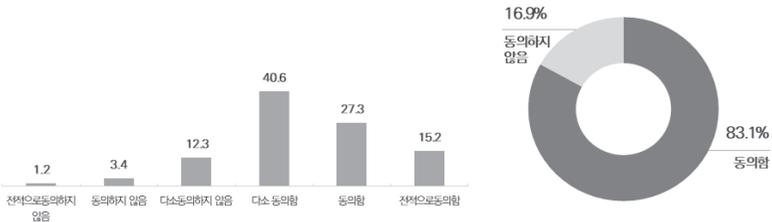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30대(81.2%) 및 40대(81.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72.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73.6%, 여성: 84.1%), 30대(남성: 78.6%, 여성: 84%), 40대(남성: 80%, 여성: 82.5%), 50대(남성: 72.8%, 여성: 78.6%), 60대 이상(남성: 66.1%, 여성: 77.4%)
- 종교별로 보면 무교(79.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71.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80.3%)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74.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82.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74.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인 응답자들(80.3%)이 동의하는 가장 비율이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78.7%), 만난 경험 있음(75.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

다. 폭력적 집단은 그들의 행동 방식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 ‘폭력적 집단은 그들의 행동 방식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83.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남

평균점수 : 4.35점

[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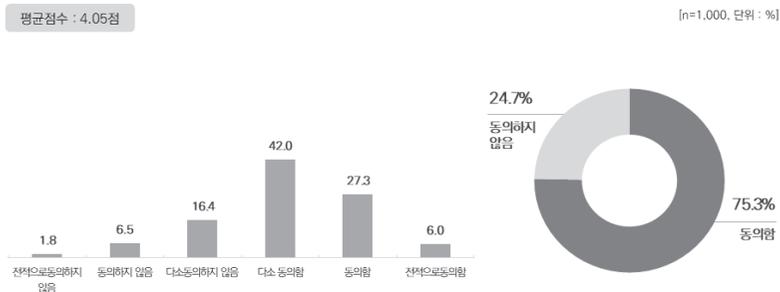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84.3%)이 남성(81.9%)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86.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7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74.7%, 여성: 81.7%), 40대(남성: 82%, 여성: 85.6%), 50대(남성: 80.6%, 여성: 82.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84.5%, 여성: 84%)와 60세 이상(남성: 86.4%, 여성: 86.3%)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88.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79.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87.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80.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86.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80.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인 응답자(85.5%)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84%), 만난 경험 있음(81.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6.7%)

라. 모든 집단이나 조직, 국가는 바꿀 수 없는 도덕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 ‘모든 집단이나 조직, 국가는 바꿀 수 없는 도덕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5.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7%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77.2%)이 남성(73.4%)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72.3%), 30대(73.3%), 40대(75.6%), 50대(75.6%), 60대 이상(78%)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은 반면, 60세 이상(남성: 78.8%, 여성: 77.4%)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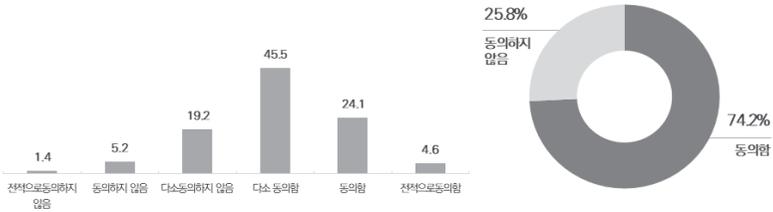
- 종교별로 보면 불교(78.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72.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6.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74.6%)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76.8%)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68.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70.4%), 300~500만원 미만(75.9%), 500만원 이상(77.1%)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76.5%), 만난 경험 있음(73.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마. 설사 분쟁과 갈등에 관련된 모든 쟁점과 환경이 다루어지더라도, 분쟁(갈등)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 ‘설사 분쟁과 갈등에 관련된 모든 쟁점과 환경이 다루어지더라도, 분쟁(갈등)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4.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8%로 나타남

평균점수 : 4.00점

[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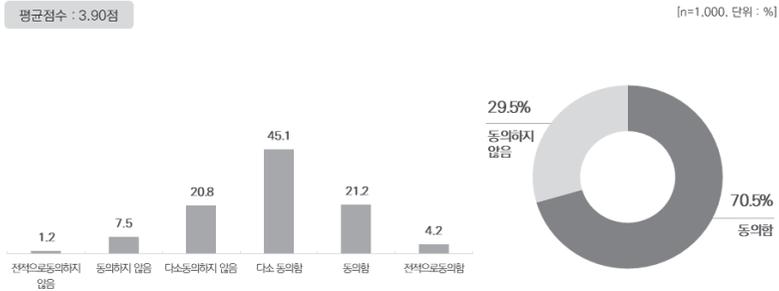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30대(76.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7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75.8%, 여성: 76.8%), 30대(남성: 72.6%, 여성: 80.2%), 60세 이상(남성: 71.2%, 여성: 72.6%)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77%, 여성: 73.2%)와 50대(남성: 74.8%, 여성: 70.4%)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7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7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6.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72.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82.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65.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77%), 300~500만원 미만(73.9%), 500만원 이상(73.1%)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76.7%)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성별(남성: 74.2%, 여성: 74.2%)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바. 분쟁(갈등)의 본질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갈등)의 고유한 측면은 변할 수 없다.

○ ‘분쟁(갈등)의 본질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갈등)의 고유한 측면은 변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0.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5%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72.4%)이 남성(68.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75.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66.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66.7%, 여성: 72.8%), 40대(남성: 66%, 여성: 76.3%), 50대(남성: 63.1%, 여성: 69.4%)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남성: 71.2%, 여성: 69.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75.8%, 여성: 75.6%)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73.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69%) 및 불교(6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69.6%)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보수(71.3%)와 진보(71.2%)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75.6%)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65.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인 응답자(71.6%)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72.1%), 만난 경험 있음(66.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사. 분쟁(갈등)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분쟁(갈등)의 핵심과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 ‘분쟁(갈등)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분쟁(갈등)의 핵심과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1.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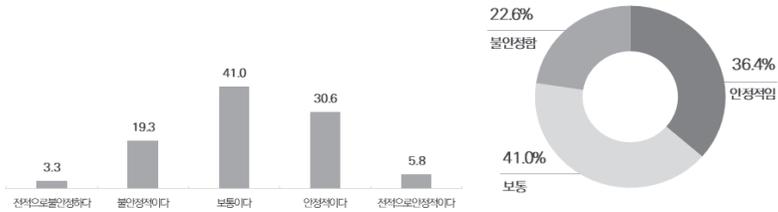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72%)이 남성(70.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75.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69%, 여성: 79%), 40대(남성: 73%, 여성: 77.3%), 60세 이상(남성: 65.3%, 여성: 71.2%)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71.4%, 여성: 69.5%)와 50대(남성: 72.8%, 여성: 64.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71.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6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2.5%)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70.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74.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63.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인 응답자들(73.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72%), 만난 경험 있음(69.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5. 불안감

가. 건강 상황

- ‘건강 상황’에 전체 응답자의 36.4%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불안정함’ 응답은 22.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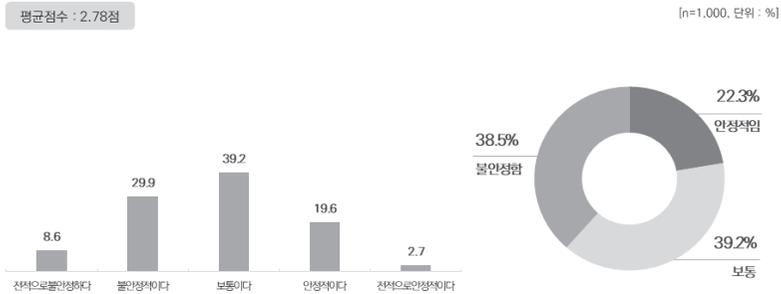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6.9%)이 여성(35.9%)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46.8%)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31.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1.6%, 여성: 41.5%), 30대(남성: 41.7%, 여성: 33.3%), 60세 이상(남성: 34.7%, 여성: 29.5%)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30%, 여성: 42.3%)와 50대(남성: 29.1%, 여성: 36.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40.8%)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34.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40.4%)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33.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42.9%)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29.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3.5%), 300~500만원 미만(33.9%), 500만원 이상(44.6%)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5.4%), 만난 경험 있음(37.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나. 나의 경제적 상황

- ‘경제적 상황’에 전체 응답자의 22.3%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불안정함’ 응답은 38.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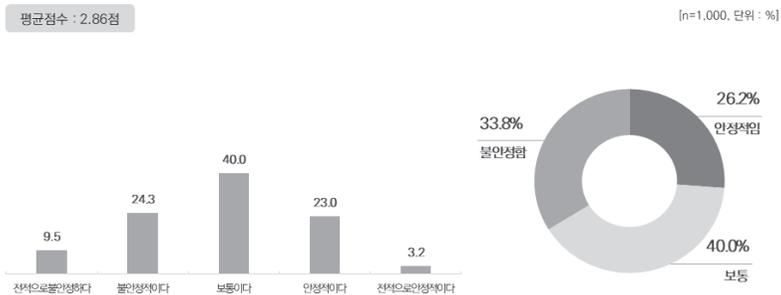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30대(27.3%)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18.4%)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23.1%, 여성: 20.7%), 30대(남성: 28.6%, 여성: 25.9%), 60세 이상(남성: 24.6%, 여성: 19.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21%, 여성: 24.7%)와 50대(남성: 15.5%, 여성: 21.4%)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26.4%)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20.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24.6%)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20.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29.3%)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18.7%)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13.6%), 300~500만원 미만(19.4%), 500만원 이상(28.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0.9%), 만난 경험 있음(24.2%),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0%)
- 성별(남성: 22.4%, 여성: 22.2%)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다. 직장생활

- ‘직장생활’에 전체 응답자의 26.2%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불안정함’ 응답은 33.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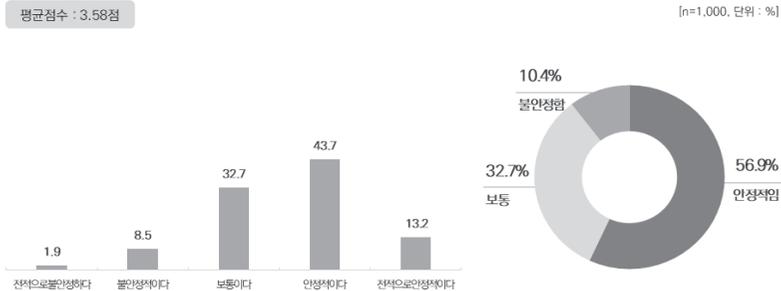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27.2%)이 여성(25.2%)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33.9%)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 및 60세 이상(23.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34.5%, 여성: 33.3%)와 40대(남성: 35%, 여성: 22.7%)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23.3%, 여성: 24.5%)와 60세 이상(남성: 22%, 여성: 24%)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23.1%, 여성: 23.2%)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30.5%)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23.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28.8%)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23.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46.3%)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21.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13.6%), 300~500만원 미만(23.8%), 500만원 이상(34.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4.8%), 만난 경험 있음(2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라. 가족관계

- ‘가족관계’에 전체 응답자의 56.9%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불안정함’ 응답은 10.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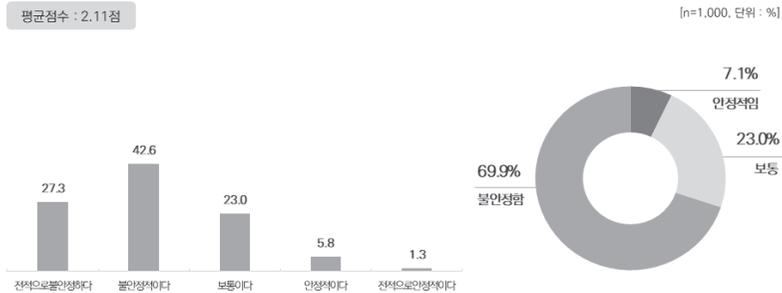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8.9%)이 여성(55%)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61.2%)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53.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64.3%, 여성: 58%), 40대(남성: 58%, 여성: 56.7%), 60세 이상(남성: 61.9%, 여성: 52.1%)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3.8%, 여성: 53.7%)와 50대(남성: 56.3%, 여성: 56.1%)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0.9%)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53.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4.9%)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고, 중도(57.2%)와 진보(58%)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5.9%)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

- 월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54.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1.8%), 300~500만원 미만(52.5%), 500만원 이상(67.6%)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4.5%), 만난 경험 있음(62.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마. 국가적 실업률

- ‘국가적 실업률’에 전체 응답자의 7.1%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불안정함’ 응답은 69.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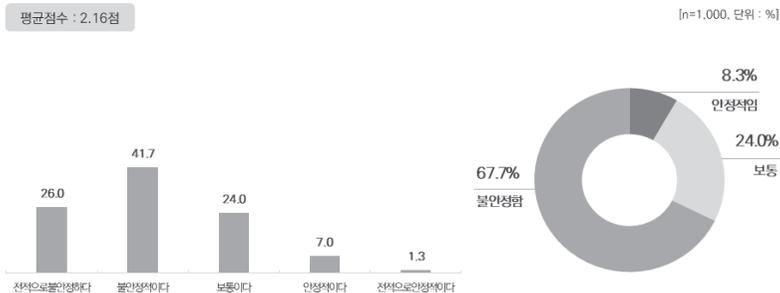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8.5%)이 여성(5.8%)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10.4%)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4%)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13.2%, 여성: 7.3%), 30대(남성: 11.9%, 여성: 7.4%), 40대(남성: 11%, 여성: 7.3%)

5.2%)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2.9%, 여성: 5.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60세 이상(남성: 5.1%, 여성: 4.8%)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7.7%)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5.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3%)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고, 중도(7.8%)와 진보(7.5%)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9.8%)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4.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인 응답자(8.4%)들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20%)들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바. 국가의 경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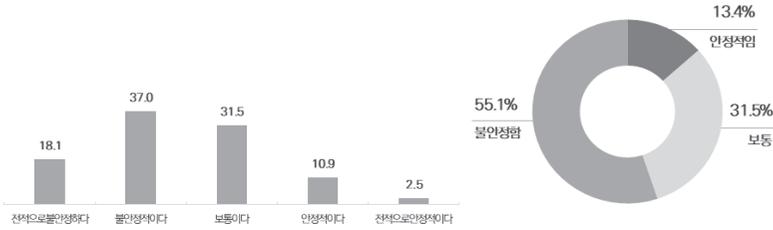
- ‘국가의 경제 상황’에 전체 응답자의 8.3%가 ‘안정적’이라고 응답 하였으며 ‘불안정함’ 응답은 67.7%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10.5%)이 여성(6.2%)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13.9%)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5.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9%, 여성: 8.2%)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9.2%)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6.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11.3%)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5.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12.2%)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4.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인 응답자들(9.9%)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4%), 만난 경험 있음(10.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36.7%)

사. 외교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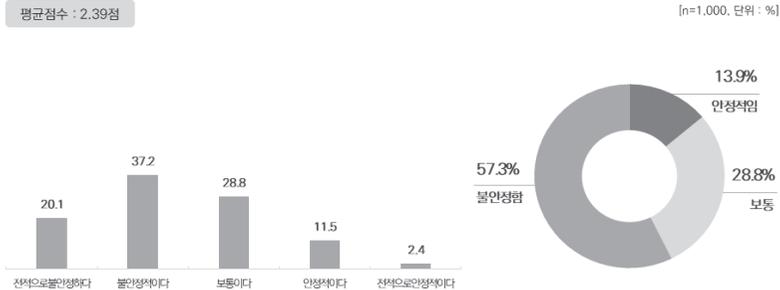
- ‘외교관계’에 전체 응답자의 13.4%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불안정함’ 응답은 55.1%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15.3%)이 여성(11.5%)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20%)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11.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20대(남성: 11%, 여성: 12.2%)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17.2%)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11.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21.6%)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7.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19.4%)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7.7%)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인 응답자들(15.1%)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10.7%), 만난 경험 있음(19.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26.7%)

아. 북한과의 갈등

- ‘북한과의 갈등’에 전체 응답자의 13.9%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불안정함’ 응답은 57.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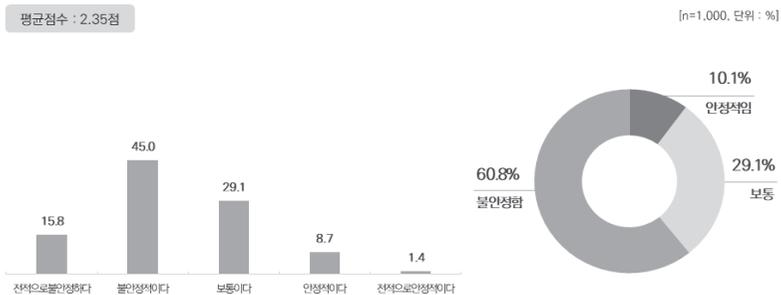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15.9%)이 여성(11.9%)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19.4%)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9.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12.1%, 여성: 15.9%)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17.2%)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11.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21.3%)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17.1%)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17.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11.7%)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12.3%), 만난 경험 있음(16.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30%)

자. 한국의 사회적 상황

- ‘한국의 사회적 상황’에 전체 응답자의 10.1%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불안정함’ 응답은 60.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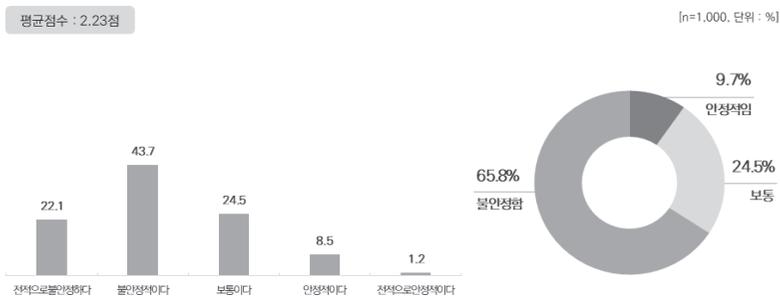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11.1%)이 여성(9.1%)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13.3%)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7.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14.3%, 여성: 12.3%), 40대(남성: 13%, 여성: 6.2%), 60세 이상(남성: 10.2%, 여성: 5.5%)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9.9%, 여성: 11%)와 50대(남성: 8.7%, 여성: 13.3%)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안

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10.8%)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9.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14.7%)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14.6%)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7.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인 응답자들(11.6%)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8.6%), 만난 경험 있음(12.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23.3%)

차. 노후문제

- ‘노후문제’에 전체 응답자의 9.7%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불안정함’ 응답은 65.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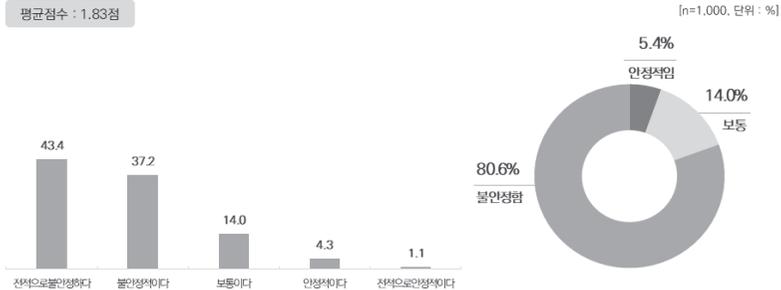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10.5%)이 여성(8.9%)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12.1%)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8%) 및 60세 이상(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13.2%, 여성: 6.1%), 40대(남성: 13%, 여성: 10.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11.9%, 여성: 12.3%), 50대(남성: 7.8%, 여성: 8.2%), 60세 이상(남성: 7.6%, 여성: 8.2%)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12.9%)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7.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10.3%)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9.4%)와 중도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17.1%)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6.7%)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6%), 300~500만원 미만(9.6%), 500만원 이상(11.8%)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8.6%), 만난 경험 있음(10.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26.7%)

카. 저출산 문제

- ‘저출산 문제’에 전체 응답자의 5.4%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불안정함’ 응답은 80.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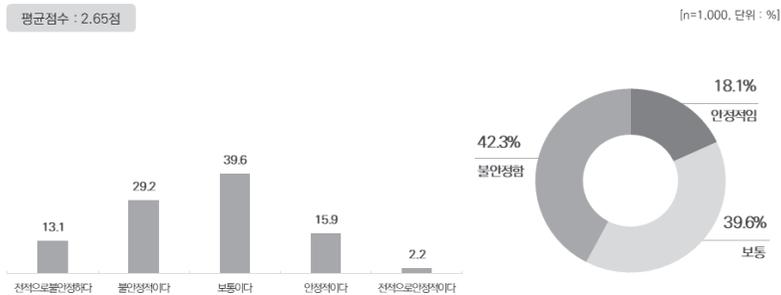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7.3%)이 여성(3.6%)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9.7%)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11%, 여성: 2.4%), 30대(남성: 15.5%, 여성: 3.7%), 50대(남성: 4.9%, 여성: 3.1%)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5%, 여성: 5.2%)와 60세 이상(남성: 2.5%, 여성: 3.4%)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3%)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4.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6.4%)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9%)와 진보(4.4%)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7.1%)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7.5%)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2%), 만난 경험 있음(6.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23.3%)

타. 민주주의의 위기

- ‘민주주의의 위기’에 전체 응답자의 18.1%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불안정함’ 응답은 42.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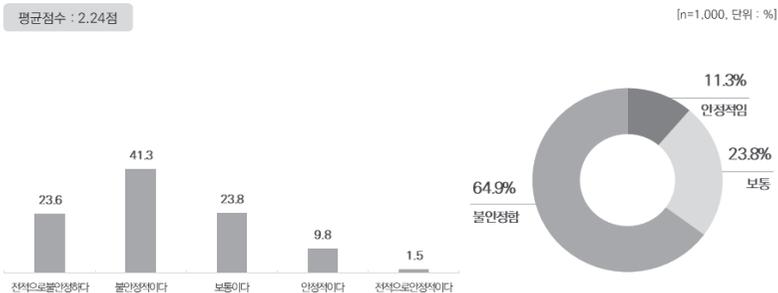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20.2%)이 여성(16.1%)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21.4%)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15.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남성: 12.7%, 여성: 17.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20.7%)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14.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28.8%)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11.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21.4%)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12.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16.4%), 300~500만원 미만(18.3%), 500만원 이상(18.8%)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15.5%), 만난 경험 있음(23.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33.3%)

파. 범죄 문제

- ‘범죄 문제’에 전체 응답자의 11.3%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불안정함’ 응답은 64.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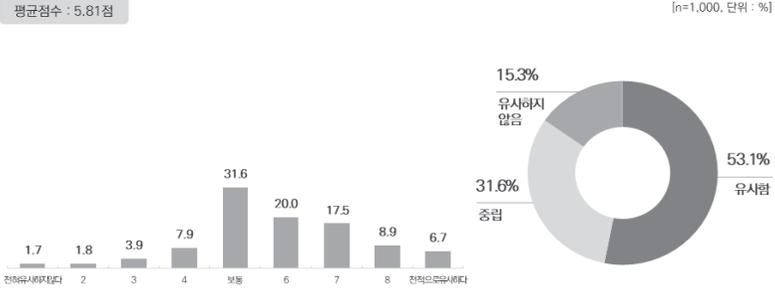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14.9%)이 여성(7.7%)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16.8%)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남성: 7.6%, 여성: 8.2%)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12.6%)에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10.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13.2%)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9.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22.4%)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6.9%)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10%), 만난 경험 있음(12.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33.3%)
- 월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6. 한민족 정체감

가. 전반적으로 귀하는 한민족 구성원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니까?

- ‘한민족 구성원과의 유사성’에 전체 응답자의 53.1%가 ‘유사’하

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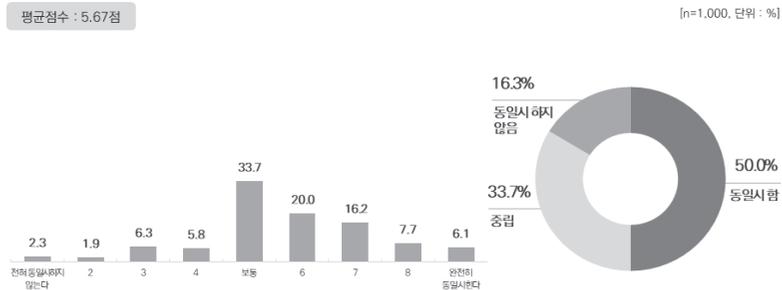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7.1%)이 여성(46.2%)보다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62.2%)에서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42.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58.3%, 여성: 42%), 40대(남성: 52%, 여성: 45.4%), 60세 이상(남성: 69.5%, 여성: 48.6%)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59.2%, 여성: 65.3%)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2.9%, 여성: 42.7%)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1.5%)에서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8.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60.2%)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7.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0.2%)이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

- 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46.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7.6%), 300~500만원 미만(51.9%), 500만원 이상(61.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57.9%)이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나. 귀하는 한민족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 ‘한민족과의 동일성’에 전체 응답자의 50.0%가 ‘동일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일시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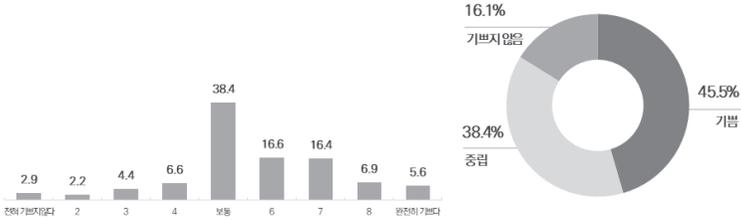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3.8%)이 여성(46.2%)보다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20대(31.2%), 30대(41.8%), 40대(48.2%), 50대(60.2%), 60대 이상(61%)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 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28.6%, 여성: 34.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60.3%)에서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5.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43.5%)가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고, 보수(55.3%)와 진보(54.9%)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1%)이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46.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8.5%), 300~500만원 미만(50.4%), 500만원 이상(55.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6.7%), 만난 경험 있음(58.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

다. 귀하는 귀하가 한민족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 ‘한민족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기쁨’에 전체 응답자의 45.5%가 ‘기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쁘지 않다’라는 응답은 16.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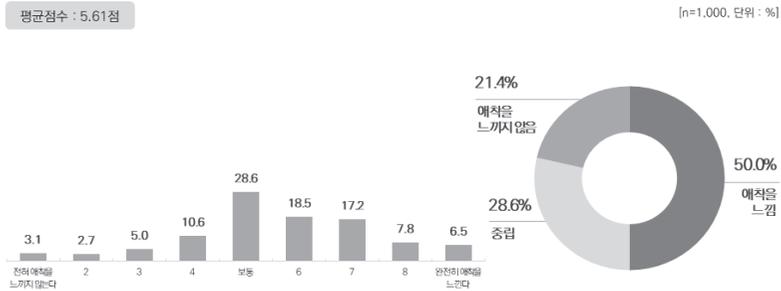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0%)이 여성(41.1%)보다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52.7%)에서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33.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38.5%, 여성: 28%), 30대(남성: 51.2%, 여성: 35.8%), 40대(남성: 48%, 여성: 40.2%), 50대(남성: 54.4%, 여성: 51%), 60대 이상(남성: 55.9%, 여성: 45.2%)
- 종교별로 보면 불교(52.3%)에서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39.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1.7%)가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2.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49%)이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4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8%), 300~500만원 미만(46.1%), 500만원 이상(48.6%)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남 적 없음(42.1%), 만남 경험 있음(53.2%),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라. 스스로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낍니까?

- ‘한민족에 대한 애착’에 전체 응답자의 50.0%가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21.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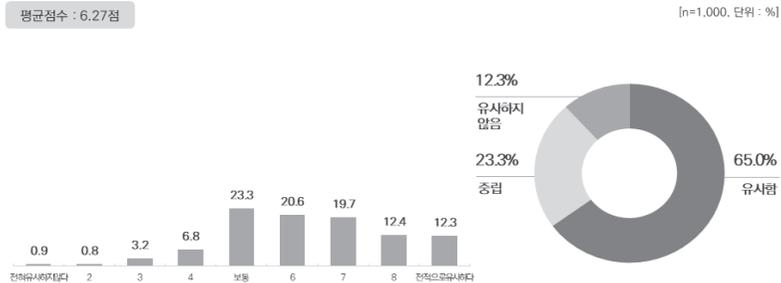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1.8%)이 여성(48.2%)보다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20대(34.1%), 30대(43%), 40대(50.8%), 50대(55.7%), 60대 이상(59.8%)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36.3%, 여성: 31.7%), 30대(남성: 51.2%, 여성: 34.6%), 60세 이상(남성: 61.9%, 여성: 58.2%)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51%, 여성: 50.5%)와 50대(남성: 55.3%, 여성: 56.1%)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58.6%)에서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3.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47.6%)가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고, 보수(52%)와 진보(51.7%)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0.2%)이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45.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2.3%), 300~500만원 미만(50.1%), 500만원 이상(53.6%)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56%)이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7. 남한 정체감

가. 전반적으로 귀하는 남한 국민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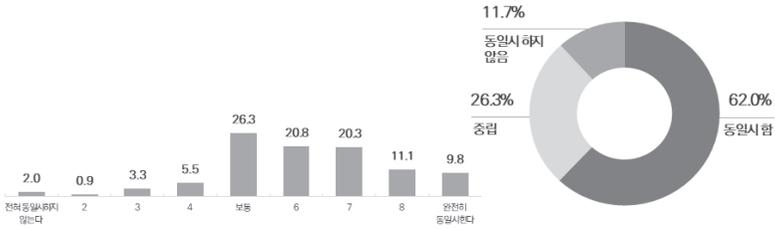
- ‘남한 국민과의 유사성’에 전체 응답자의 65.0%가 ‘유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사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2.3%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67.3%)이 여성(62.7%)보다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2.3%)에서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57.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65.5%, 여성: 49.4%), 40대(남성: 63%, 여성: 59.8%), 60세 이상(남성: 82.2%, 여성: 64.4%)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1.6%, 여성: %)와 50대(남성: 69.9%, 여성: 71.4%)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71%)에서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60.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61.3%)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고, 보수(68%)와 진보(67.7%)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75.5%)이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61.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2.6%), 300~500만원 미만(65.8%), 500만원 이상(70.4%)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70.6%)이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나. 귀하는 남한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 ‘남한 국민과의 동일성’에 전체 응답자의 62.0%가 ‘동일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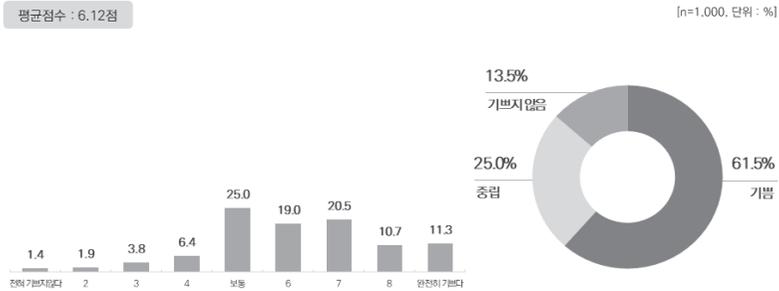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2.7%)이 여성(61.3%)보다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20대(48.6%), 30대(51.5%), 40대(63.5%), 50대(67.7%), 60대 이상(72%)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50대(남성: 64.1%, 여성: 71.4%)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70.7%)에서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6.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7.6%)가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7.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73.2%)이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55.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4%), 300~500만원 미만(62.3%), 500만원 이상(65.6%)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68.7%)이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다. 귀하는 귀하가 남한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 ‘남한 국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기쁨’에 전체 응답자의 61.5%가 ‘기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쁘지 않다’라는 응답은 13.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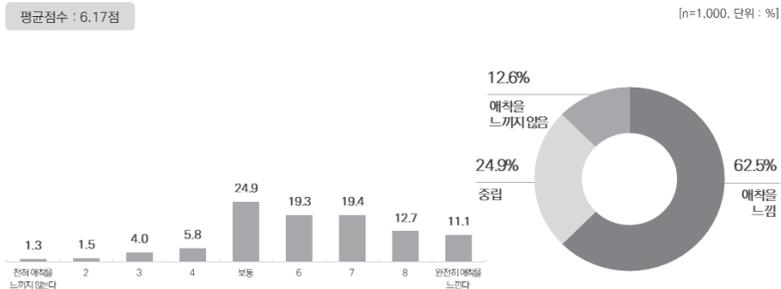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62.5%)이 남성(60.5%)보다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20대(47.4%), 30대(51.5%), 40대(64%), 50대(66.7%), 60대 이상(71.2%)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54.8%, 여성: 48.1%), 40대(남성: %, 여성: %), 60세 이상(남성: %, 여성: %)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 여성: %), 50대(남성: %, 여성: %)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69.6%)에서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5.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60.6%)가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고, 보수(61.9%)와 진보(62.4%)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9.4%)이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5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1.2%), 300~500만원 미만(63.8%), 500만원 이상(64.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71.8%)들이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라. 귀하는 스스로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십니까?

- '남한에 대한 애착'에 전체 응답자의 62.5%가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12.6%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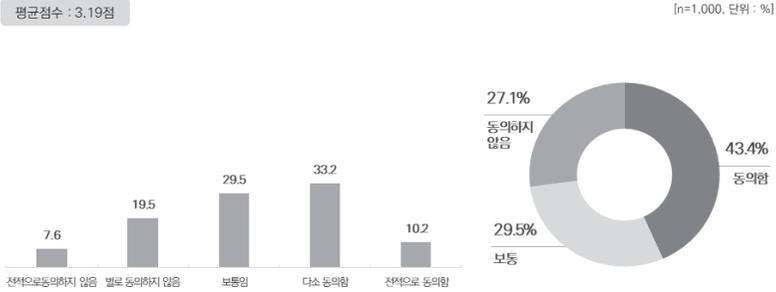
- 20대(49.7%), 30대(54.5%), 40대(62.4%), 50대(64.7%), 60대 이상(74.2%)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1.6%, 여성: 47.6%), 30대(남성: 59.5%, 여성: 49.4%), 60세 이상(남성: 75.4%, 여성: 73.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61%, 여성: 63.9%)와 50대(남성: 62.1%, 여성: 67.3%)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70.5%)에서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8.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60%)가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고, 보수(64.3%)와 진보(64.6%)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72.4%)이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5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1.2%), 300~500만원 미만(63.8%), 500만원 이상(6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71.4%)이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성별(남성: 62.7%, 여성: 62.3%)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8.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믿음

가. 남한과 북한은 단일민족으로서 유사성이 높은 집단이다

- '남한과 북한은 단일민족으로서 유사성이 높은 집단이다'라는 주

장에 전체 응답자의 43.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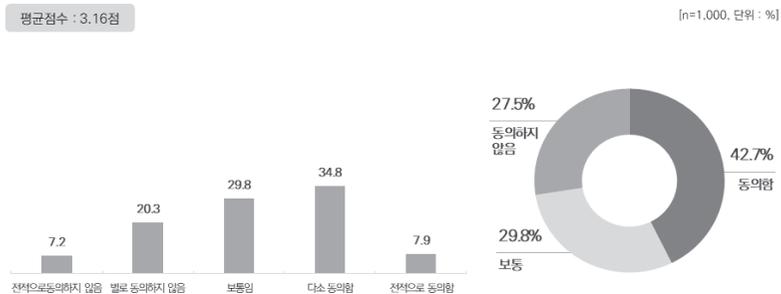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5.4%)이 여성(41.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54.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32.4%)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33%, 여성: 31.7%), 30대(남성: 36.9%, 여성: 33.3%), 40대(남성: 47%, 여성: 36.1%), 50대(남성: 55.3%, 여성: 53.1%), 60대 이상(남성: 50.8%, 여성: 47.3%)
- 종교별로 보면 불교(49.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1.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4.5%)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36.6%)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48%)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34.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5.2%), 300~500만원 미만(43.2%), 500만원 이상(47.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0.9%), 만난 경험 있음(49.2%),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나. 남한과 북한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으로 비슷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 ‘남한과 북한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으로 비슷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2.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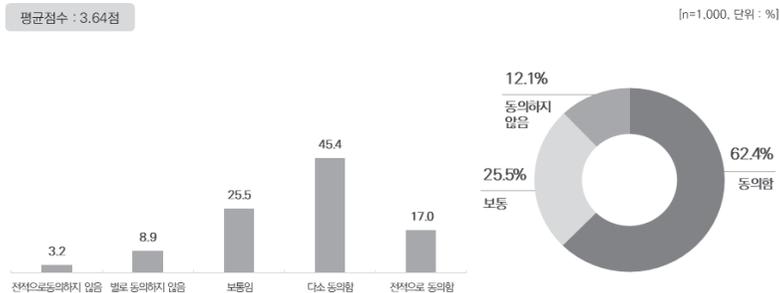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7.%)이 여성(38.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49.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32.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20대(남성: 30.8%, 여성: 35.4%)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48.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37.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1.4%)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38.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50.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26.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8%), 300~500만원 미만(42%), 500만원 이상(45.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46.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다. 남한과 북한은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 ‘남한과 북한은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2.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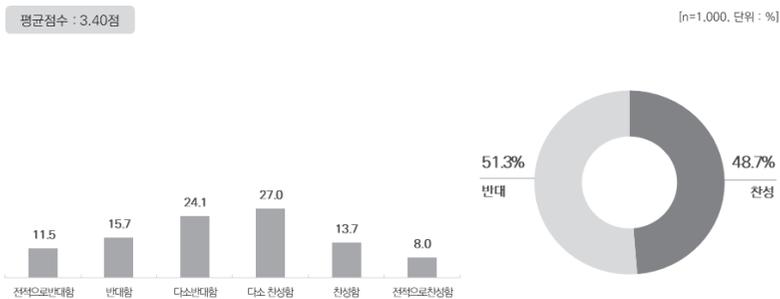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2.9%)이 여성(61.9%)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52.6%), 30대(53.9%), 40대(61.4%), 50대(68.7%), 60대 이상(70.1%)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60.7%, 여성: 46.9%)와 40대(남성: 66%, 여성: 56.7%)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0.5%, 여성: 54.9%)와 50대(남성: 64.1%, 여성: 73.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60세 이상(남성: 70.3%, 여성: 69.9%)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70.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8.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2.1%)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6.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7.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57.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4.9%), 300~500만원 미만(62.6%), 500만원 이상(65.8%)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65.1%)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9. 자기검열

가. 우리 집단, 또는 조직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내부 고발자들은 그 정보가 정확하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 ‘우리 집단, 또는 조직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내부 고발자들은 그 정보가 정확하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8.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51.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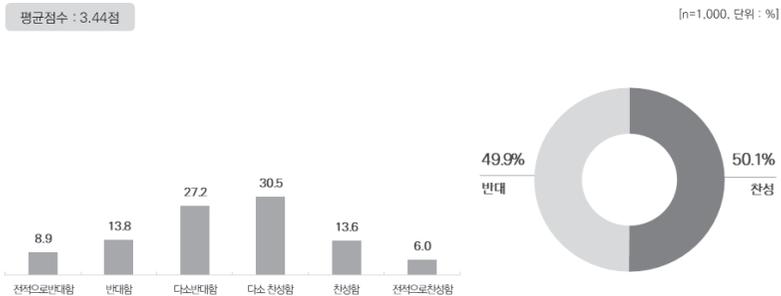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3.6%)이 남성(43.8%)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50.4%)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46.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7.3%, 여성: 52.4%), 30대(남성: 41.7%, 여성: 51.9%), 40대(남성: 46%, 여성: 48.5%), 50대(남성: 39.8%, 여성: 58.2%), 60대 이상(남성: 44.1%, 여성: 55.5%)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56%)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5.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3%)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1.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1.2%)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4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50.9%)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0.4%), 만난 경험 있음(44.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0%)

나. 우리 집단의 부정적인 측면을 노출시키는 사람들은 적들에게 돌아나는 것이다.

- ‘우리 집단의 부정적인 측면을 노출시키는 사람들은 적들에게 돌아나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0.1%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49.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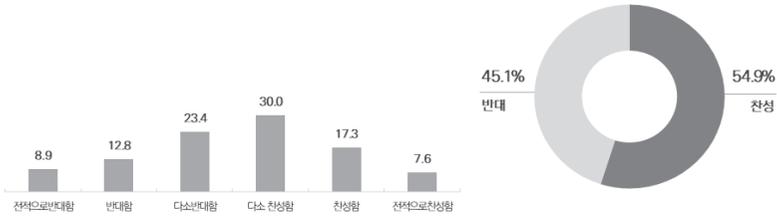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1.8%)이 남성(48.4%)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53.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45.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8.2%, 여성: 41.5%), 30대(남성: 46.4%, 여성: 44.4%), 40대(남성: 48%, 여성: 44.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46.6%, 여성: 59.2%)와 60세 이상(남성: 44.1%, 여성: 61.6%)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56.3%)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4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51.5%)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8.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58.2%)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44.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인 응답자들(48.1%)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48%)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집단과 조직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집단과 조직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4.9%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45.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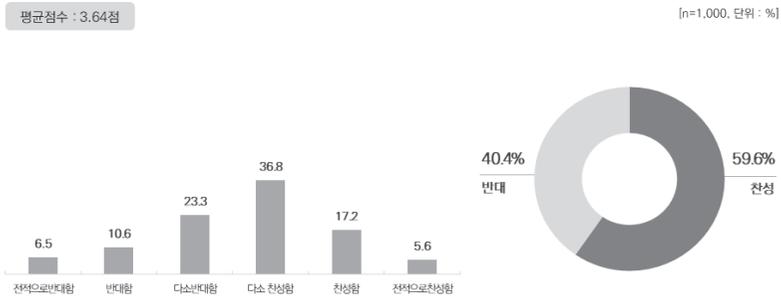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8.5%)이 남성(51.2%)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42.2%), 30대(50.9%), 40대(55.3%), 50대(59.2%), 60대 이상(62.1%)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남성: 50%, 여성: 60.8%), 50대(남성: 51.5%, 여성: 67.3%), 60세 이상(남성: 57.6%, 여성: 65.8%)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53.6%, 여성: 48.1%)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1.8%, 여성: 42.7%)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3.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0.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55.8%)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53.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58.5%)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5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300만원 미만(53.1%), 300~500만원 미만(53.3%), 500만원 이상(5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4%), 만난 경험 있음(56.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라. 팩트에 부합하고 신뢰가 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부합하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 ‘팩트에 부합하고 신뢰가 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부합하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9.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40.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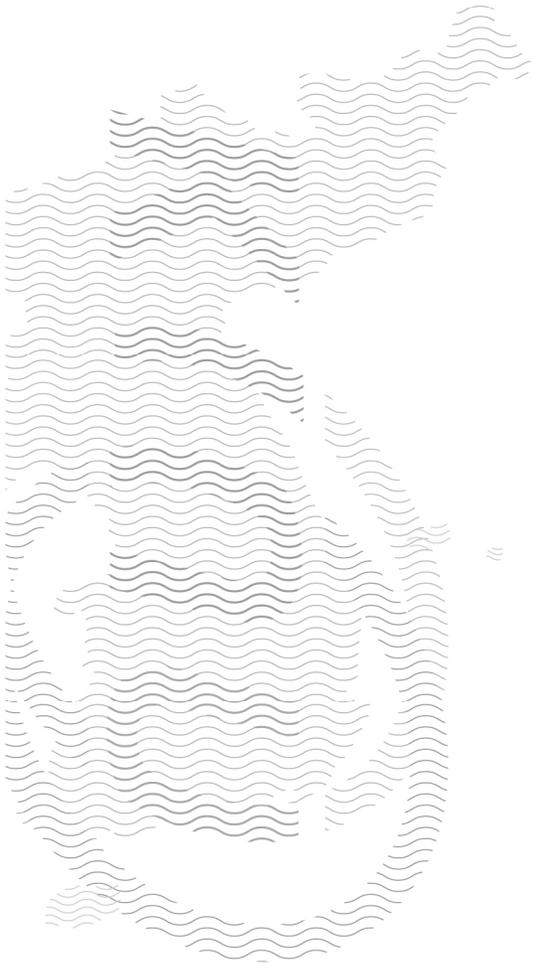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63.7%)이 남성(5.4%)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51.4%), 30대(55.8%), 40대(56.3%), 50대(58.2%), 60대 이상(70.8%)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

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56%, 여성: 55.6%)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6.7%)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6.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3.1%)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7.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5.9%)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53.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58.8%)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63.3%)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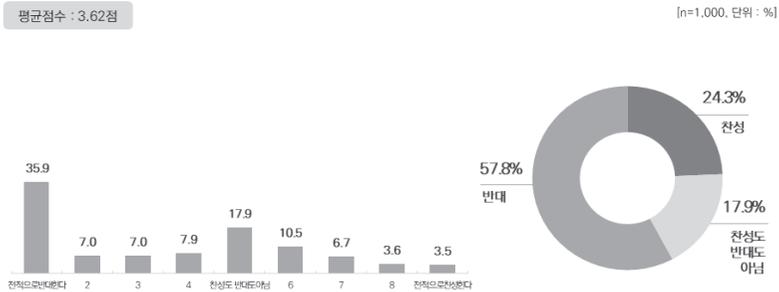
III. 분단의 마음



1. 전쟁에 대한 태도

가. 한반도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이 필요할 수 있다.

- ‘한반도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24.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57.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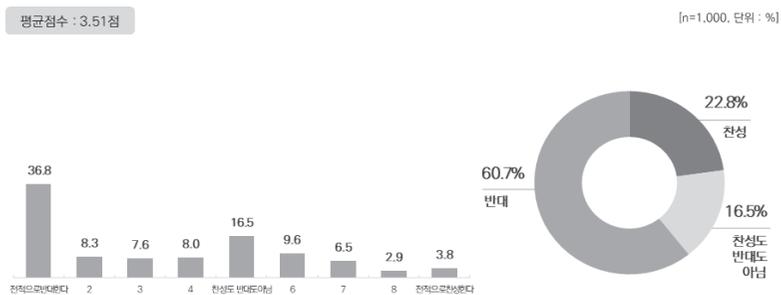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3.5%)이 여성(15.3%)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28.9%)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18.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39.6%, 여성: 17.1%), 30대(남성: 27.4%, 여성: 14.8%), 40대(남성: 23%, 여성: 13.4%), 50대(남성: 36.9%, 여성: 16.3%), 60대 이상(남성: 39%, 여성: 15.1%)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25.3%)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22.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0.6%)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17.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32.4%)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12.2%)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0.8%), 만난 경험 있음(32.9%),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36.7%)
- 월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300만원 미만(24.4%), 300~500만원 미만(23.8%), 500만원 이상(24.7%)

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끔찍한 것이지만 유용한 측면도 있다.

-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끔찍한 것이지만 유용한 측면도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22.8%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60.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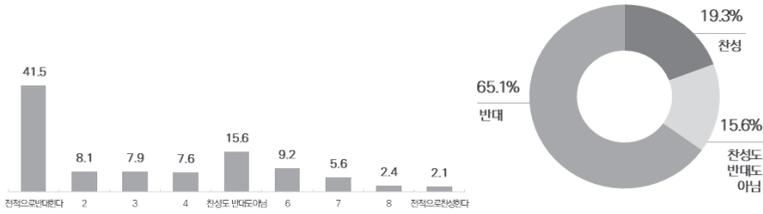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0.6%)이 여성(15.1%)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25.4%)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

대(17.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35.2%, 여성: 14.6%), 30대(남성: 28.6%, 여성: 14.8%), 40대(남성: 24%, 여성: 11.3%), 50대(남성: 30.1%, 여성: 18.4%), 60대 이상(남성: 34.7%, 여성: 15.8%)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25.9%)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19.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34%)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17.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28.4%)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18.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0.7%), 300~500만원 미만(23.2%), 500만원 이상(23.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0.1%), 만난 경험 있음(27.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0%)

다. 남북 간의 전쟁은 남북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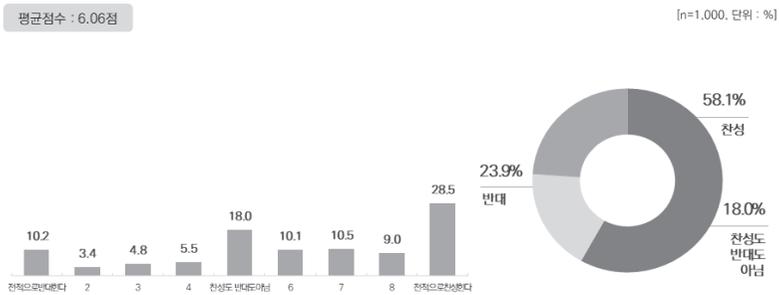
- ‘남북 간의 전쟁은 남북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19.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65.1%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25.6%)이 여성(13.1%)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21.6%)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15.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25.3%, 여성: 4.9%), 30대(남성: 26.2%, 여성: 16.0%), 40대(남성: 24.0%, 여성: 12.4%), 50대(남성: 21.4%, 여성: 16.3%), 60대 이상(남성: 30.5%, 여성: 14.4%)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23.3%)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17.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27.5%)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13.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24.5%)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7.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인 응답자들(20.0%)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17.3%), 만난 경험 있음(21.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0.0%)

라.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 외에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

-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 외에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8.1%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3.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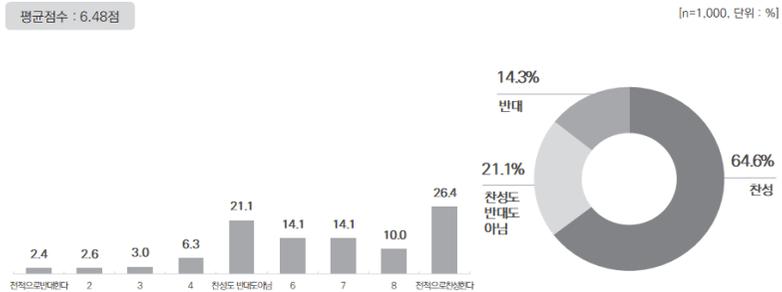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9.1%)이 남성(57.1%)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61.4%)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53.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30대(남성: 60.7%, 여성: 55.6%)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62.1%)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56.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65.2%)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3.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60.8%) 및 대구/경북 지역(60.8%)이 찬

- 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43.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0.2%), 300~500만원 미만(59.1%), 500만원 이상(61.1%)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61.5%)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2. 평화에 대한 태도

가.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

-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4.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4.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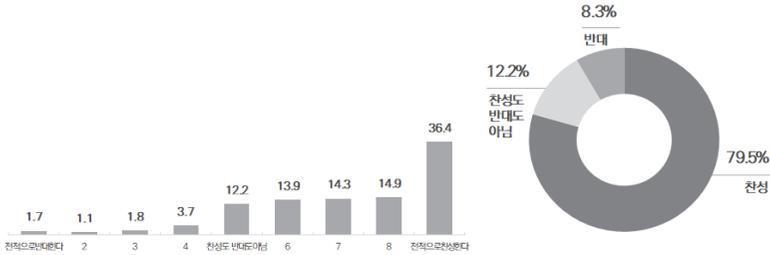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6.1%)이 여성(63.1%)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52.6%), 30대(53.9%), 40대(67.5%), 50대(70.1%), 60대 이상(72.7%)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0.5%, 여성: 54.9%)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67.2%)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62.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3.7%)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5.6%)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74.%)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56.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7.3%), 300~500만원 미만(62.9%), 500만원 이상(69.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68.7%)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나. 모든 남북 간 갈등은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모든 남북 간 갈등은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9.5%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8.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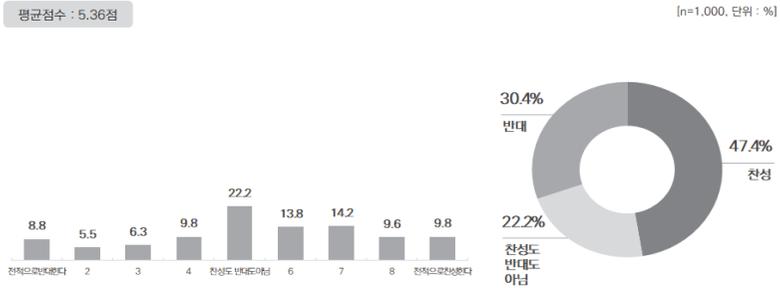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82.9%)이 남성(76.0%)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에(84.8%)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72.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61.5%, 여성: 86.6%), 40대(남성: 81.0%, 여성: 88.7%), 50대(남성: 77.7%, 여성: 83.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73.8%, 여성: 70.4%)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60세 이상(남성: 83.1%, 여성: 83.6%)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82.5%)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77.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7.5%)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72.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86.7%)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73.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74.2%), 300~500만원 미만(77.4%), 500만원 이상(83.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82.9%)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다.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7.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30.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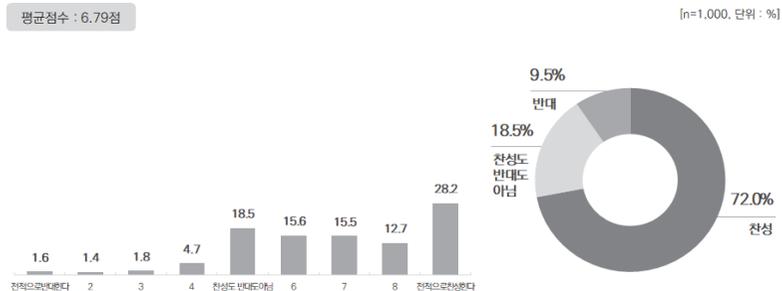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5.4%)이 여성(39.5%)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52.7%)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34.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2.9%, 여성: 25.6%), 30대(남성: 53.6%, 여성: 30.9%), 40대(남성: 63.0%, 여성: 39.2%), 50대(남성: 60.2%, 여성: 44.9%), 60대 이상(남성: 55.9%, 여성: 48.6%)
- 종교별로 보면 불교(52.3%)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

- 주교(42.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9.2%)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1.4%)와 중도(42.1%)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57.1%)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44.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9.0%), 300~500만원 미만(45.8%), 500만원 이상(52.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5.4%), 만난 경험 있음(51.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0%)

라. 남북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사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 ‘남북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사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2.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9.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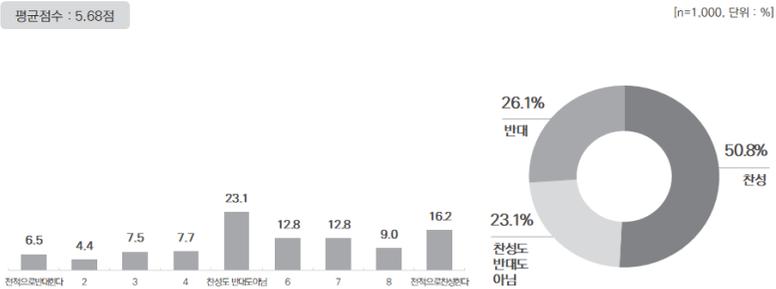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72.8%)이 남성(71.2%)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80.7%)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60.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7.1%, 여성: 63.4%), 40대(남성: 77.0%, 여성: 84.5%), 50대(남성: 74.8%, 여성: 79.6%)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65.5%, 여성: 56.8%)와 60세 이상(남성: 78.0%, 여성: 74.7%)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75.0%)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70.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0.3%)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67.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76.5%)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63.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2.4%), 300~500만원 미만(69.9%), 500만원 이상(78.3%)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75.4%)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3.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군사력

가. 강력한 군사력만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다.

- ‘강력한 군사력만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0.8%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6.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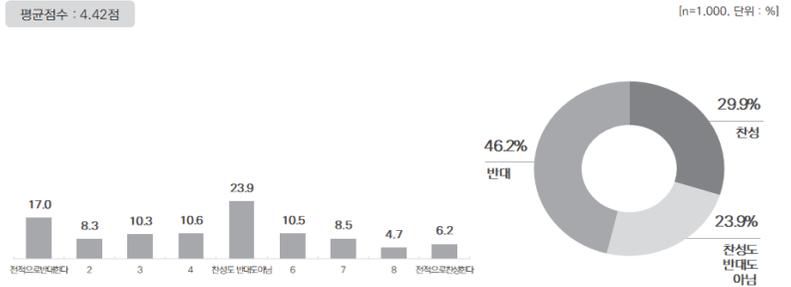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0.7%)이 여성(41.1%)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62.7%)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40.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50.5%, 여성: 31.7%), 30대(남성: 50.0%, 여성: 34.6%), 40대(남성: 50.0%, 여성: 30.9%), 50대(남성: 72.8%, 여성: 52.0%), 60대 이상(남성: 74.6%, 여성: 49.3%)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57.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8.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0.9%)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2.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52.9%)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46.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4.1%), 300~500만원 미만(51.6%), 500만원 이상(53.4%)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56.7%)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나.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29.9%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46.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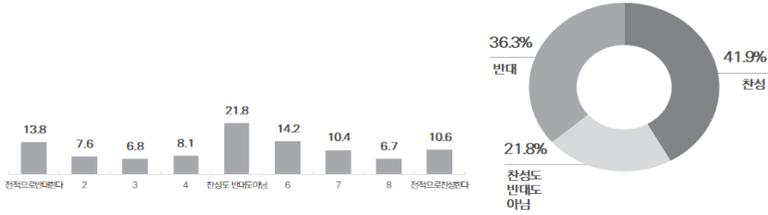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8.5%)이 여성(21.4%)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37.3%)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

대(18.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37.4%, 여성: 18.3%), 30대(남성: 33.3%, 여성: 14.8%), 40대(남성: 25.0%, 여성: 12.4%), 50대(남성: 41.7%, 여성: 32.7%), 60대 이상(남성: 51.7%, 여성: 25.3%)
- 종교별로 보면 불교(33.9%)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27.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1.0%)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20.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36.8%)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24.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5.4%), 300~500만원 미만(30.1%), 500만원 이상(31.9%)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6.3%), 만난 경험 있음(37.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0.0%)

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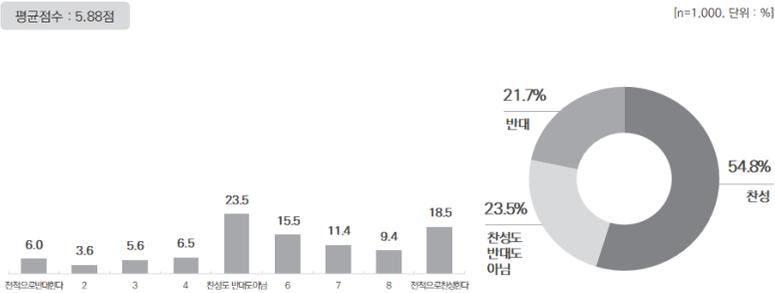
-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1.9%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46.2%)이 여성(37.7%)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47.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30.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40대(남성: 29.0%, 여성: 32.0%)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48.9%)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7.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4.9%)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32.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46.1%)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26.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44.1%)인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0.3%), 만난 경험 있음(44.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6.7%)

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만 한반도 평화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만 한반도 평화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4.8%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1.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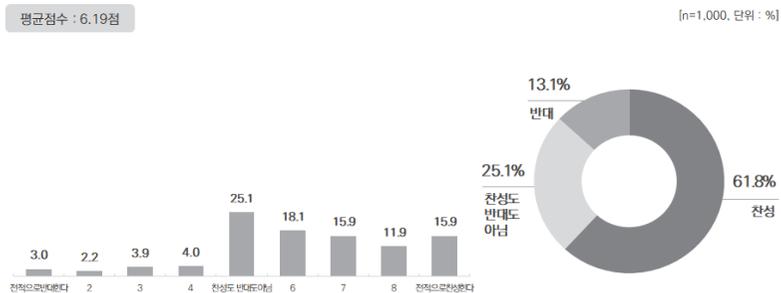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1.9%)이 여성(47.8%)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7.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39.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58.2%, 여성: 32.9%), 30대(남성: 56.0%, 여성: 39.5%), 40대(남성: 43.0%, 여성: 36.1%), 50대(남성: 74.8%, 여성: 56.1%), 60대 이상(남성: 73.7%, 여성: 63.0%)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59.5%)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1.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2.1%)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6.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60.0%)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49.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인 응답자들(56.8%)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2.6%), 만난 경험 있음(59.9%),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4.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협력

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남북 간 비군사적 수단과 협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남북 간 비군사적 수단과 협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1.8%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3.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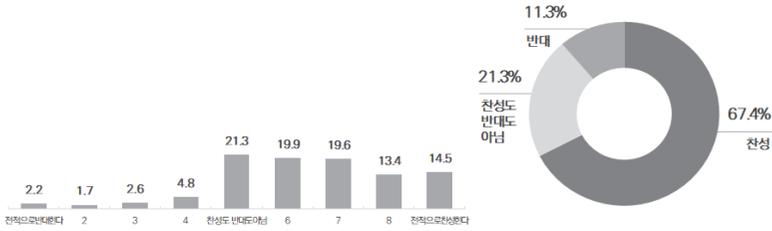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40대(68.0%)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56.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7.1%, 여성: 56.1%), 30대(남성: 63.1%, 여성: 55.6%), 40대(남성: 70.0%, 여성: 66.0%)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60.2%, 여성: 64.3%)와 60세 이상(남성: 57.6%, 여성: 65.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63.3%)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61.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6.5%)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51.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9.4%)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54.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4.0%), 300~500만원 미만(62.9%), 500만원 이상(64.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63.5%)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7.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1.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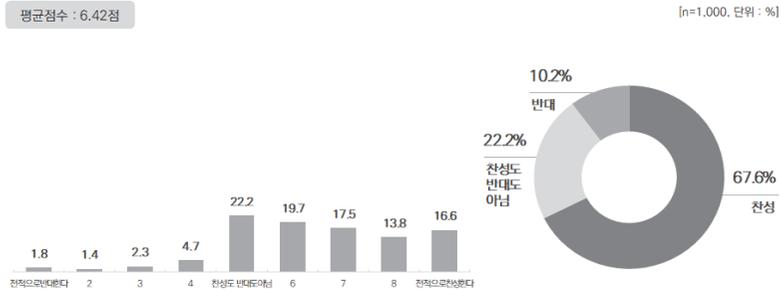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68.1%)이 남성(66.7%)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74.1%)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63.0%) 및 30대(63.0%)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65.5%, 여성: 60.5%)와 40대(남성: 76.0%, 여성: 72.2%)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4.9%, 여성: 72.0%)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50대(남성: 70.9%, 여성: 70.4%)와 60세 이상(남성: 65.3%, 여성: 65.8%)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69.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66.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3.4%)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59.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75.5%)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58.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0.6%), 300~500만원 미만(65.5%), 500만원 이상(72.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74.6%)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다.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간 평화는 실현될 수 있다

-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간 평화는 실현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7.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0.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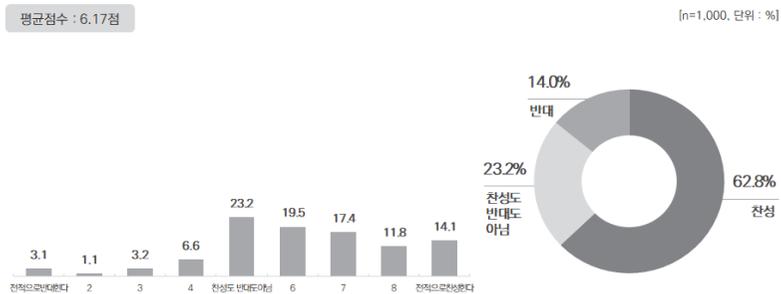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9.0%)이 여성(66.3%)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75.1%)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59.4%)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남성: 77.0%, 여성: 73.2%), 50대(남성: 72.8%, 여성: 70.4%), 60세 이상(남성: 73.7%, 여성: 63.0%)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9.3%, 여성: 64.6%)와 30대(남성: 58.3%, 여성: 60.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1.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64.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0.3%)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61.9%)와 중도(61.6%)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75.5%)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59.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71.3%)인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73.4%)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라. 남북 간 평화는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 ‘남북 간 평화는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2.8%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4.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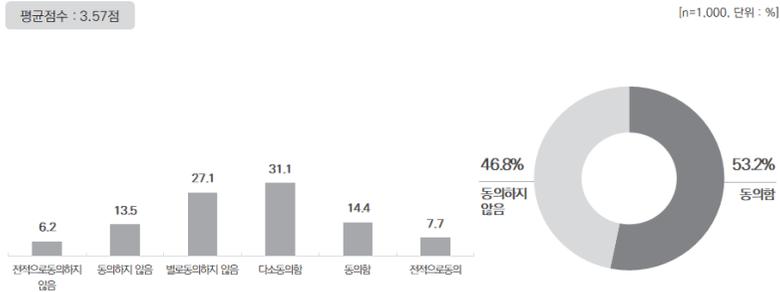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63.9%)이 남성(61.7%)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69.5%)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57.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0.5%, 여성: 69.5%), 50대(남성: 64.1%, 여성: 69.4%), 60세 이상(남성: 56.8%, 여성: 58.2%)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64.3%, 여성: 59.3%)와 40대(남성: 73.0%, 여성: 66.0%)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7.2%)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60.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8.4%)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50.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9.4%)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51.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4.0%), 300~500만원 미만(62.3%), 500만원 이상(67.4%)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2.4%), 만난 경험 있음(63.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0.0%)

5. 제로섬 인식

가.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손해이다.

-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손해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3.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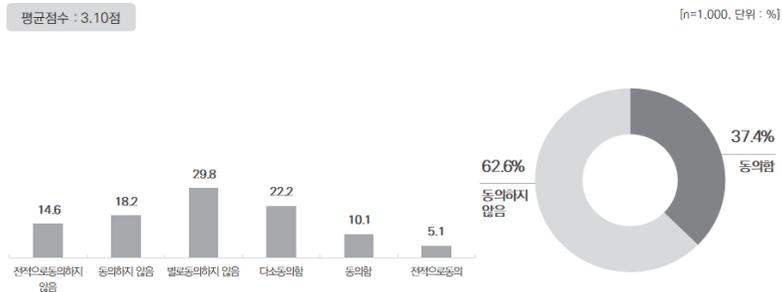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6.9%)이 남성(49.4%)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61.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46.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20대(남성:62.6%, 여성: 61.0%)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3.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9.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8.0%)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 진보(39.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61.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48.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500만원 미만(58.0%)인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51.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나. 남북관계는 테니스 경기와 같다 한쪽이 패배해야만 다른 쪽이 승리할 수 있다.

- ‘남북관계는 테니스 경기와 같다. 한쪽이 패배해야만 다른 쪽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37.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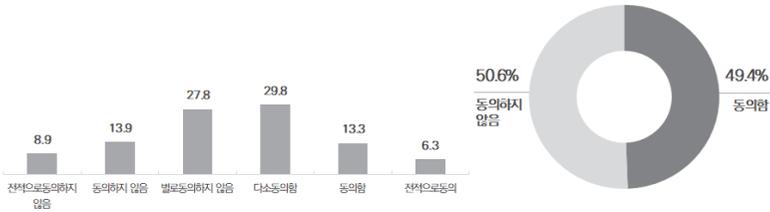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9.7%)이 여성(35.1%)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43.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33.0%)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

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34.0%, 여성: 36.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47.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34.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0.4%)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26.0%)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43.8%), 부산/울산/경남(43.2%), 대구/경북 지역(43.1%)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42.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36.8%), 만난 경험 있음(37.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다. 남북관계에서 한 쪽이 다른 쪽을 배려한다면 그 쪽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 ‘남북관계에서 한 쪽이 다른 쪽을 배려한다면 그 쪽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9.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6%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51.0%)이 남성(47.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59.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40.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65.9%, 여성: 52.4%)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55.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7.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1.5%)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34.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60.6%)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41.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52.8%)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66.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라. 남북관계에서 한국과 북한의 이해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충돌한다.

- ‘남북관계에서 한국과 북한의 이해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충돌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3.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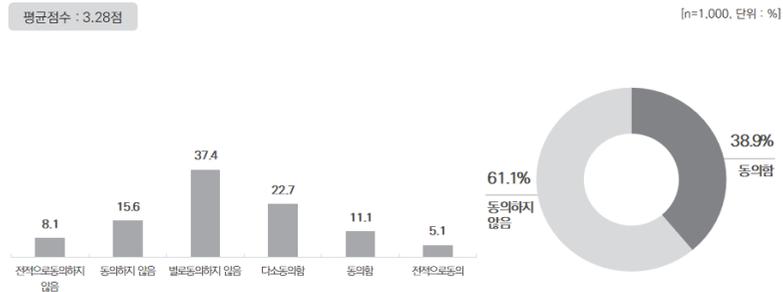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1.0%)이 남성(47.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59.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41.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65.9%, 여성: 52.4%)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55.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7.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1.5%)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34.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43.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 광주/전라 지역(41.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1.2%), 300~500만원 미만(52.8%), 500만원 이상(45.9%)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48.8%)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6. 경쟁적 희생자 인식

가. 지난 70년의 분단기간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고통에 시달렸다.

- ‘지난 70년의 분단기간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고통에 시달렸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38.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1.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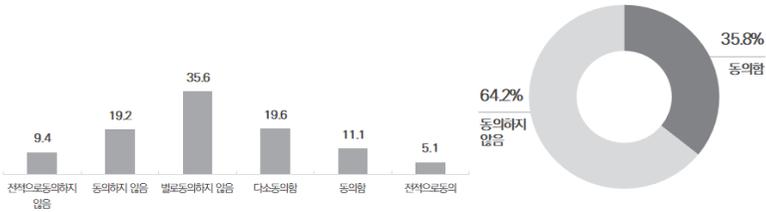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9.9%)이 여성(37.9%)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44.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31.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7.1%, 여성: 30.5%)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30대(남성: 31.0%, 여성: 32.1%)와 60세 이상(남성: 39.0%, 여성: 47.3%)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40대(남성: 37.0%, 여성: 37.1%)와 50대(남성: 35.9%, 여성: 35.7%)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46.0%)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36.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4.3%)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29.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43.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34.7%)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 300~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42.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8.0%), 만난 경험 있음(39.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6.7%)

나. 지난 70년의 분단기간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 ‘지난 70년의 분단기간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35.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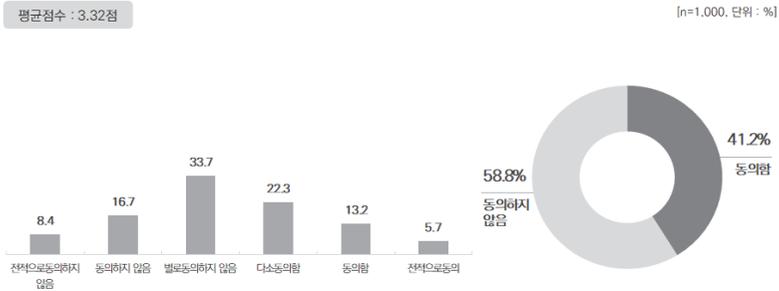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36.7%)이 남성(34.9%)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43.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31.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0.5%, 여성: 36.6%), 30대(남성: 34.5%, 여성: 32.1%)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26.2%, 여성: 36.7%), 60세 이상(남성: 31.4%, 여성: 41.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40대(남성: 34.0%, 여성: 34.0%)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43.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1.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1.0%)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28.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44.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33.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8.0%), 300~500만원 미만(35.7%), 500만원 이상(34.8%)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60.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다. 지난 70년의 분단기간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

- ‘지난 70년의 분단기간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1.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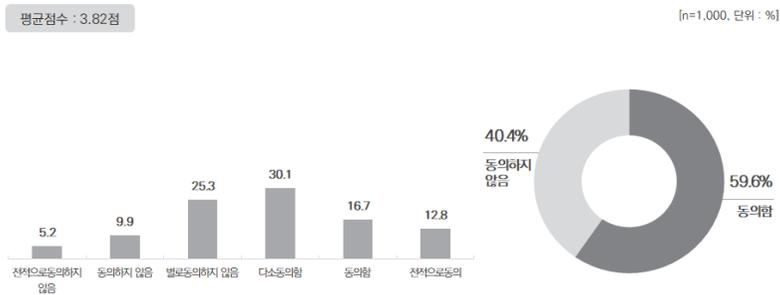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5.6%)이 여성(36.9%)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46.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35.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50대(남성: 35.0%, 여성: 36.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54.0%)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2.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7.1%)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33.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45.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36.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5.5%), 300~500만원 미만(43.8%), 500만원 이상(37.1%)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0.1%), 만난 경험 있음(42.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0%)

라. 지난 70년의 분단을 돌아보면 북한은 가해자, 남한은 피해자의 역사였다.

- ‘지난 70년의 분단을 돌아보면 북한은 가해자, 남한은 피해자의 역사였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9.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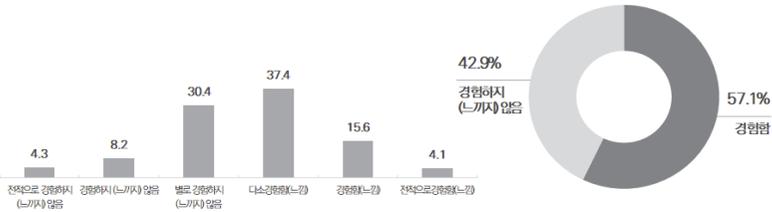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2.5%)이 여성(56.7%)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5.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49.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75.8%, 여성: 39.0%), 30대(남성: 52.4%, 여성: 46.9%), 50대(남성: 55.3%, 여성: 54.1%)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52.0%, 여성: 53.6%), 60세 이상(남성: 74.6%, 여성: 76.0%)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9.0%)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3.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4.6%)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6.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8.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55.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의 응답자들(61.7%)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56.3%), 만난 경험 있음(67.9%),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0.0%)

7. 북한에 대한 정서

가. 북한에 대한 정서 : 두려운

- 전체 응답자의 57.1%가 북한에 대해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2.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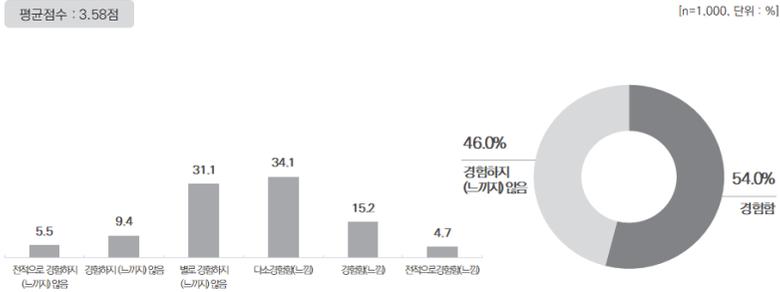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7.5%)이 남성(56.7%)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5.9%)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52.0%)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47.3%, 여성: 57.3%)와 50대(남성: 54.4%, 여성: 57.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59.5%, 여성: 58.0%), 40대(남성: 54.0%, 여성: 45.4%), 60세 이상(남성: 66.1%, 여성: 65.8%)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6.1%)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4.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5.2%)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52.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62.6%)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51.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9.2%), 300~500만원 미만(56.8%), 500만원 이상(56.3%)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60.7%)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나. 북한에 대한 정서 : 무서운

- 전체 응답자의 54.0%가 북한에 대해 '무서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6.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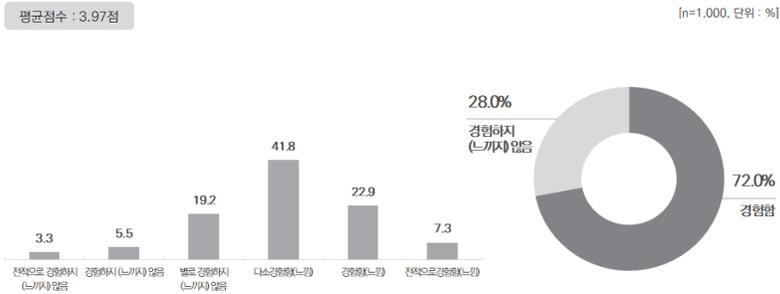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5.2%)이 남성(52.8%)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3.6%)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46.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54.0%, 여성: 43.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2.6%)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0.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1.9%)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7.6%)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57.4%)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49.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57.7%)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55.2%)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다. 북한에 대한 정서 : 긴장하는

- 전체 응답자의 72.0%가 북한에 대해 ‘긴장하는’을 경험했다고 응답 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8.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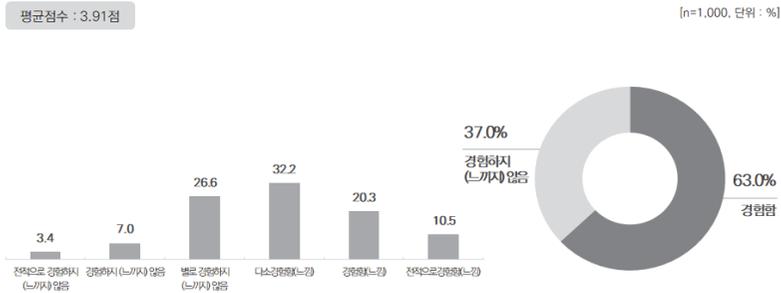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74.4%)이 남성(69.6%)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8.4%)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65.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남성: 78.0%, 여성: 78.8%)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5.9%)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69.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69.3%)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고, 보

- 수(73.8%)와 진보(73.7%)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78.0%)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66.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9.5%), 300~500만원 미만(70.7%), 500만원 이상(74.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76.2%)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라. 북한에 대한 정서 : 분노하는

- 전체 응답자의 63.0%가 북한에 대해 ‘분노’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7.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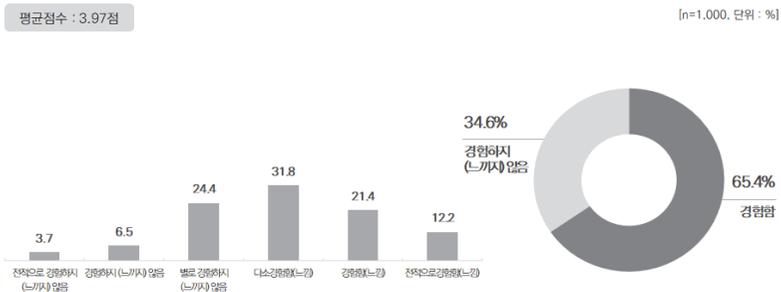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4.5%)이 여성(61.5%)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2.7%)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55.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60.2%, 여성: 71.4%)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

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2.4%)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8.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4.6%)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55.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67.4%)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57.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64.6%)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65.5%)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마. 북한에 대한 정서 : 화가 나는

- 전체 응답자의 65.4%가 북한에 대해 ‘화가남’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4.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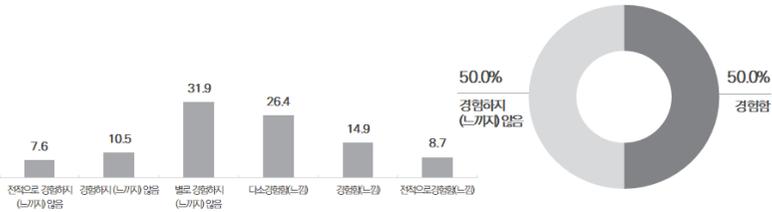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6.1%)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57.0%)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67.0%, 여성:

53.7%)와 60세 이상(남성: 77.1%, 여성: 75.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57.0%, 여성: 59.8%)와 50대(남성: 65.0%, 여성: 73.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남성: 57.1%, 여성: 56.8%)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5.9%)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60.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7.0%)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59.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71.0%)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62.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67.2%)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70.2%)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바. 북한에 대한 정서 : 증오스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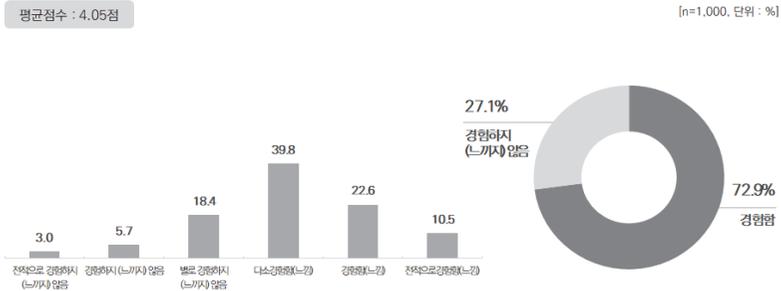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50.0%가 북한에 대해 ‘증오스러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0.0%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54.0%)이 여성(46.0%)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2.1%)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39.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52.4%, 여성: 53.2%)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3.2%)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6.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4.3%)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1.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54.9%)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45.7%)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50.7%)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49.4%), 만난 경험 있음(51.2%),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사. 북한에 대한 정서 : 불안한

- 전체 응답자의 72.9%가 북한에 대해 ‘불안함’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7.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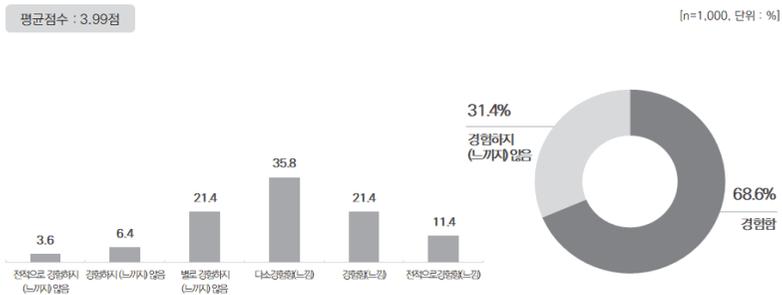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76.0%)이 남성(69.3%)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8.4%)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68.0%)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7.1%, 여성: 80.0%), 50대(남성: 68.0%, 여성: 79.6%), 60세 이상(남성: 76.3%, 여성: 80.1%)의 경우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72.0%, 여성: 63.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남성: 73.8%, 여성: 74.1%)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6.4%)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69.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80.3%)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70.3%)와 진보(70.8%)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78.2%)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

- 전라 지역(64.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73.7%)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74.2%)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아. 북한에 대한 정서 : 수상한

- 전체 응답자의 68.6%가 북한에 대해 ‘수상함’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1.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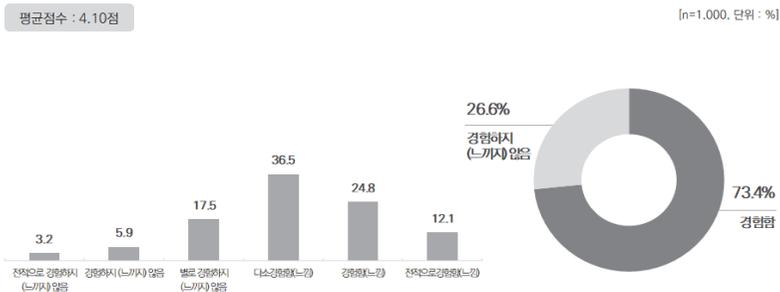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9.2%)이 여성(68.1%)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4.6%)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61.4%)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72.5%, 여성: 69.5%), 30대(남성: 69.0%, 여성: 67.9%), 40대(남성: 66.0%, 여성: 56.7%)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50대(남성: 65.0%, 여성: 66.3%)와 60세 이상(남성: 72.9%, 여성: 76.0%)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8.7%)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65.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8.3%)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59.6%)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75.6%)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58.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71.0%)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69.2%), 만난 경험 있음(68.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자. 북한에 대한 정서 : 걱정스러운

- 전체 응답자의 73.4%가 북한에 대해 ‘걱정스러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6.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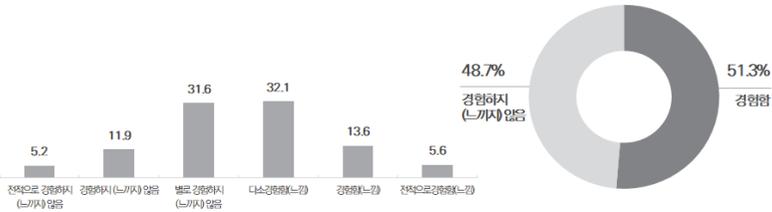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76.4%)이 남성(70.4%)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음
 - 20대(64.2%), 30대(70.3%), 40대(72.1%), 50대(75.1%), 60

대 이상(81.1%)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남성: 32.2%, 여성: 80.1%)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77.9%)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69.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9.1%)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69.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76.3%)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69.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70.0%), 300~500만원 미만(71.0%), 500만원 이상(76.9%)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78.2%)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차. 북한에 대한 정서 : 절망스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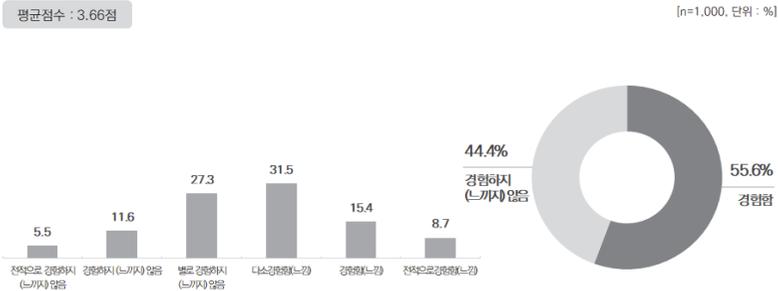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51.3%가 북한에 대해 '절망스러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8.7%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52.0%)이 여성(50.6%)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2.5%)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39.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46.2%, 여성: 31.7%), 40대(남성: 47.0%, 여성: 44.3%), 60세 이상(남성: 63.6%, 여성: 61.6%)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47.6%, 여성: 49.4%)와 50대(남성: 52.4%, 여성: 57.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2.1%)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5.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5.2%)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2.6%)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59.8%)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43.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55.9%)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55.6%)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카. 북한에 대한 정서: 성가신

- 전체 응답자의 55.6%가 북한에 대해 ‘성가심’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4.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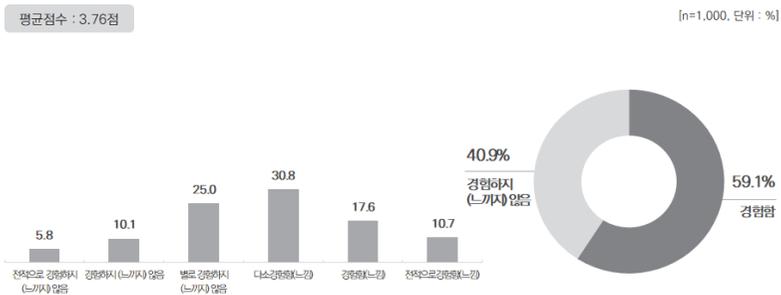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8.7%)이 여성(52.6%)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4.8%)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47.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63.7%, 여성: 41.5%), 30대(남성: 61.9%, 여성: 48.1%), 60세 이상(남성: 67.3%, 여성: 62.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51.5%, 여성: 56.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40대(남성: 48.0%, 여성: 47.4%)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3.2%)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2.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7.2%)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8.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60.8%)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 강원/제주 지역(46.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57.1%)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58.7%)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타. 북한에 대한 정서 : 지겨움

- 전체 응답자의 59.1%가 북한에 대해 ‘지겨움’을 경험했다고 응답 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0.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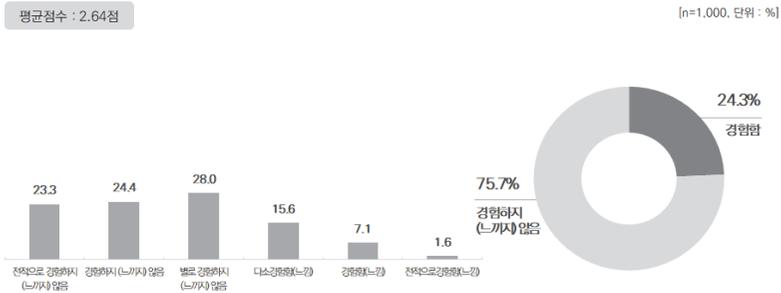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0.9%)이 여성(57.3%)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7.0%)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50.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60.2%, 여성: 67.3%)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0.7%)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5.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1.3%)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9.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66.7%)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55.1%)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57.9%), 만난 경험 있음(61.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 월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파. 북한에 대한 정서 : 즐거운

- 전체 응답자의 24.3%가 북한에 대해 ‘즐거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5.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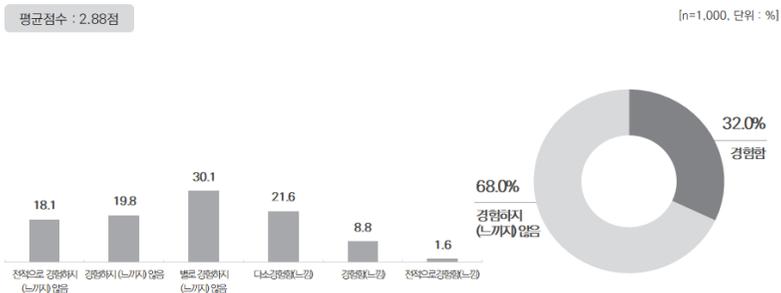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28.6%)이 여성(20.0%)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30.3%)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17.4%)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21.4%, 여성: 28.6%)의 경우 여성의 경험한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29.3%)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20.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19.7%)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고, 중도(25.9%)와 진보(25.7%)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27.6%)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21.9%)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25.1%)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2.7%), 만난 경험 있음(27.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33.3%)

하. 북한에 대한 정서 : 정겨운

- 전체 응답자의 32.0%가 북한에 대해 '정겨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0%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35.1%)이 여성(29.0%)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38.6%)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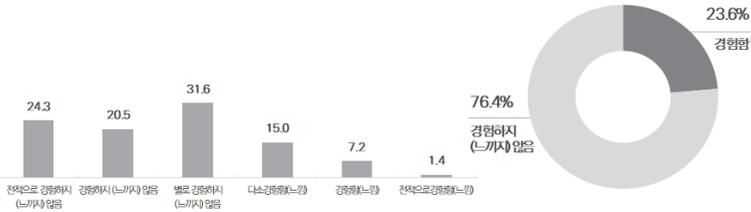
이상(26.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45.2%, 여성: 25.9%)와 40대(남성: 48.0%, 여성: 28.9%), 50대(남성: 29.1%, 여성: 27.6%)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31.9%, 여성: 35.4%)와 60세 이상(남성: 24.6%, 여성: 28.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37.9%)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29.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5.4%)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25.0%)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전라 지역(37.3%)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27.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33.8%)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0.4%), 만난 경험 있음(35.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3.3%)

거. 북한에 대한 정서 : 행복한

- 전체 응답자의 23.6%가 북한에 대해 '행복함'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6.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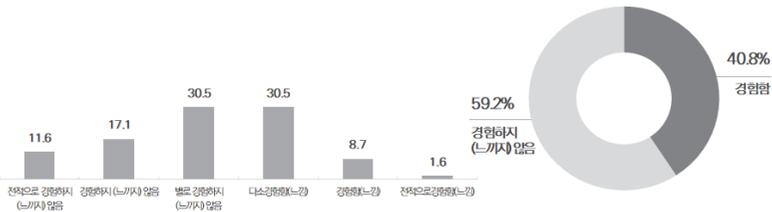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27.6%)이 여성(19.6%)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27.9%)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18.9%)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50대(남성: 25.2%, 여성: 25.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28.7%)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22.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20.5%)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고, 중도(24.3%)와 진보의(25.1%)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32.7%)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19.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0.7%), 300~500만원 미만(24.1%), 500만원 이상(24.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2.0%), 만난 경험 있음(25.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3.3%)

나. 북한에 대한 정서 : 마음이 약해지는

- 전체 응답자의 40.8%가 북한에 대해 ‘마음이 약해짐’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9.2%로 나타남

평균점수 : 3.12점

[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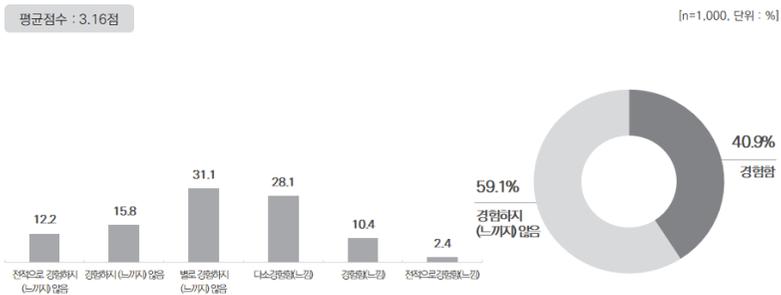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40대(46.2%)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34.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29.7%, 여성: 40.2%), 50대(남성: 40.8%, 여성: 44.9%), 60세 이상(남성: 32.2%, 여성: 39.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52.4%, 여성: 38.3%)와 40대(남성: 53.0%, 여성: 39.2%)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45.6%)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3.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46.4%)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36.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51.0%)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36.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42.5%)이 경험한 비율

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9.8%), 만난 경험 있음(42.9%),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6.7%)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ד. 북한에 대한 정서 : 공감하는

- 전체 응답자의 40.9%가 북한에 대해 ‘공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9.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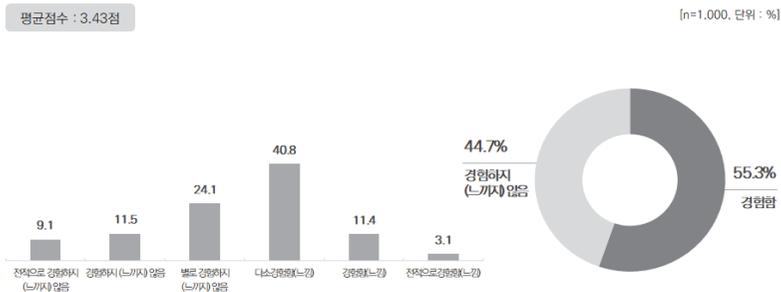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30대(46.1%)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34.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40.7%, 여성: 39.0%), 30대(남성: 54.8%, 여성: 37.0%), 40대(남성: 50.0%, 여성: 41.2%)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37.9%, 여성: 44.9%)와 60세 이상(남성: 28.0%, 여성: 39.7%)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43.1%)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

- 교(37.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8.7%)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32.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44.0%)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31.7%)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42.8%)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9.6%), 만난 경험 있음(43.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러. 북한에 대한 정서 : 연민

- 전체 응답자의 55.3%가 북한에 대해 ‘연민’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4.7%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55.8%)이 여성(54.8%)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57.9%)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52.0%)에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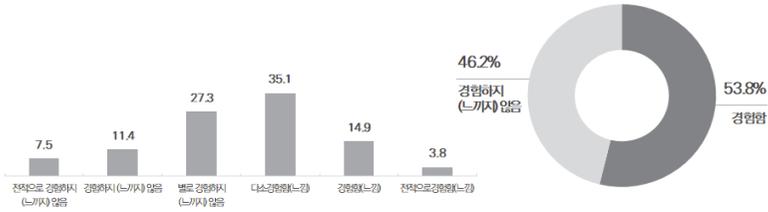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46.2%, 여성: 58.5%), 50대(남성: 56.3%, 여성: 58.2%), 60세 이상(남성: 51.7%, 여성: 53.4%)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64.3%, 여성: 50.6%)와 40대(남성: 62.0%, 여성: 53.6%)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56.9%)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53.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65.2%)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6.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1.2%)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53.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3.1%), 300~500만원 미만(55.4%), 500만원 이상(56.3%)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59.9%)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머. 북한에 대한 정서 : 슬픈

- 전체 응답자의 53.8%가 북한에 대해 '슬픔'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6.2%로 나타남

평균점수 : 3.50점

[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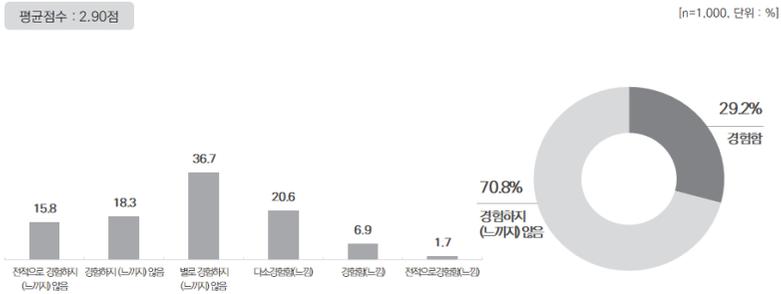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40대(57.4%)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46.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54.8%, 여성: 49.4%), 50대(남성: 58.3%, 여성: 56.1%)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41.8%, 여성: 52.4%)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40대(남성: 57.0%, 여성: 57.7%)와 60세 이상(남성: 54.2%, 여성: 54.1%)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58.6%)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50.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60.2%)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8.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6.1%)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56.1%)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50.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5.4%), 300~500만원 미만(53.6%), 500만원 이상(53.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1.0%), 만난 경험 있음(60.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버. 북한에 대한 정서 : 따뜻함

- 전체 응답자의 29.2%가 북한에 대해 ‘따뜻함’을 경험했다고 응답 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0.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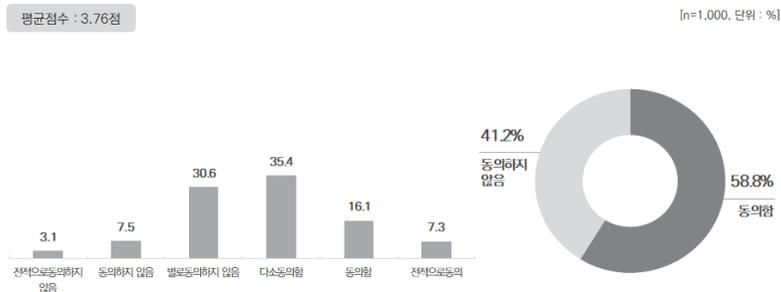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2.3%)이 여성(26.2%)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36.5%)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22.3%)이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30.1%, 여성: 37.8%)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35.6%)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27.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3.2%)가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

- 수(24.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35.7%)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26.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31.0%)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7.4%), 만난 경험 있음(31.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8. 남한의 우월성

가. 남한사람들은 북한사람들에 비해 우수한 특징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 ‘남한사람들은 북한사람들에 비해 우수한 특징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8.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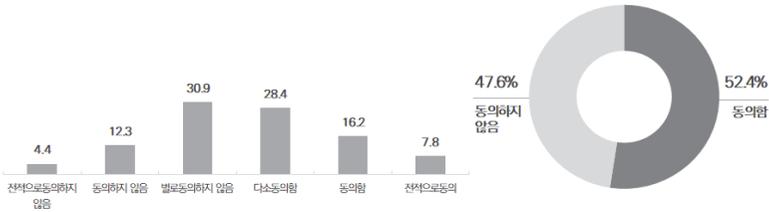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9.5%)이 여성(58.1%)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3.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53.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 40대, 60세 이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54.4%, 여성: 58.2%)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남성: 57.1%, 여성: 58.0%)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3.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53.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5.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6.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5.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52.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6.3%), 300~500만원 미만(59.1%), 500만원 이상(59.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7.0%), 만난 경험 있음(63.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나. 남한은 북한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 ‘남한은 북한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2.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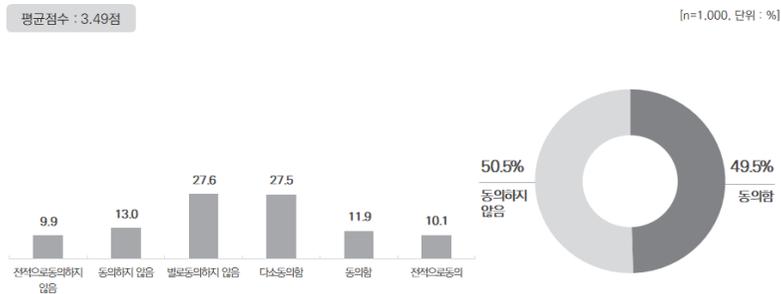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4.6%)이 여성(50.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57.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46.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64.8%, 여성: 50.0%), 30대(남성: 58.3%, 여성: 46.9%), 60세 이상(남성: 55.9%, 여성: 53.4%)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48.5%, 여성: 52.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40대(남성: 47.0%, 여성: 46.4%)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1.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48.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8.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5.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3.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50.0%)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0.3%), 만난 경험 있음(56.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 월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9. 북한에 대한 악마화

가. 북한은 악의 축이다.

- ‘북한은 악의 축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9.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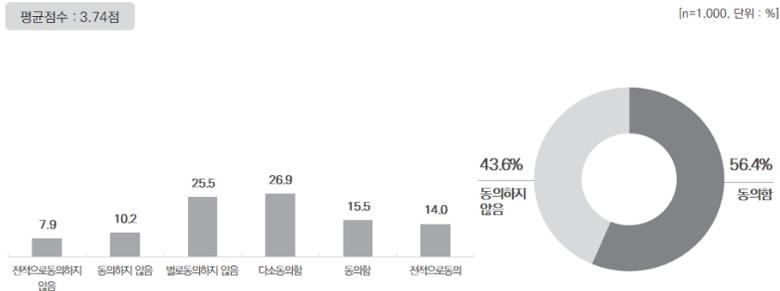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3.2%)이 여성(45.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2.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37.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50대(남성: 50.5%, 여성: 59.2%)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2.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46.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0.9%)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36.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52.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44.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46.6%)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6.%), 만난 경험 있음(54.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나.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적화통일이다.

-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적화통일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6.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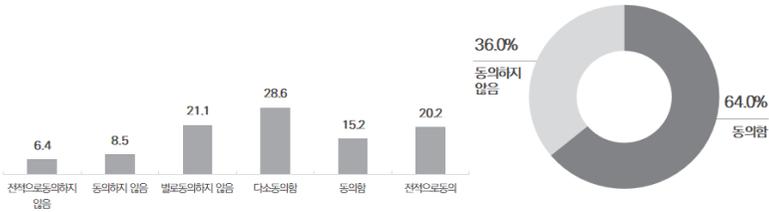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9.7%)이 여성(53.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8.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45.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44.0%, 여성: 46.4%)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7.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0.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6.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3.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63.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52.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54.0%)이 동의하는 비율이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60.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다. 북한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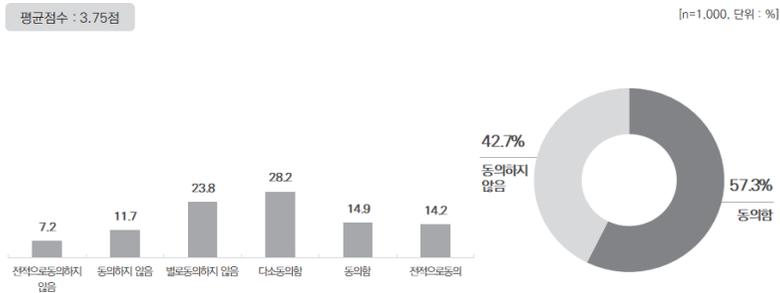
- ‘북한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4.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0%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4.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52.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75.8%, 여성: 51.2%), 60세 이상(남성: 77.1%, 여성: 72.6%)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45.0%, 여성: 60.8%)와 50대(남성: 61.2%, 여성: 68.4%)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남성: 59.5%, 여성: 59.3%)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5.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8.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80.3%)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9.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71.6%)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57.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70.4%), 300~500만원 미만(64.3%), 500만원 이상(60.6%)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65.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라. 북한은 절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 ‘북한은 절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7.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7%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58.1%)이 남성(56.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7.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46.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71.4%, 여성: 53.7%), 30대(남성: 48.8%, 여성: 44.4%), 60세 이상(남성: 68.6%, 여성: 66.4%)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40.4%, 여성: 54.6%)와 50대(남성: 51.5%, 여성: 64.3%)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6.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2.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7.5%)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1.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62.6%)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51.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2.9%), 300~500만원 미만(56.2%), 500만원 이상(55.4%)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73.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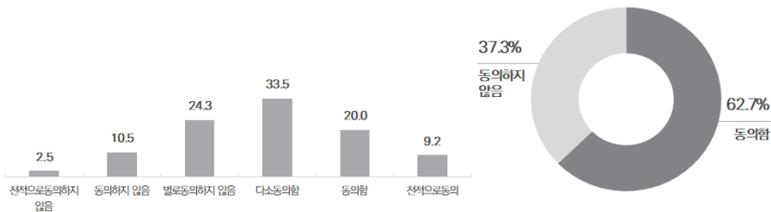
10. 단결, 일치 의 필요성

가.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기 보다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기 보다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2.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3%로 나타남

평균점수 : 3.86점

[n=1,000. 단위 : %]



- 성별로 보면 남성(64.1%)이 여성(61.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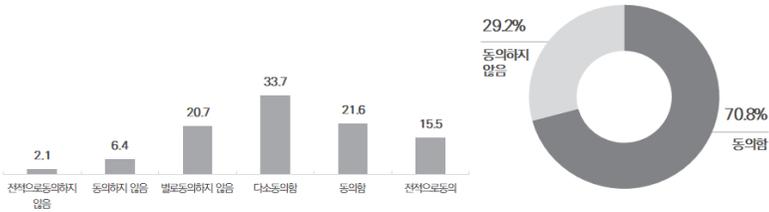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3.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49.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6.0%, 여성: 42.7%), 30대(남성: 58.3%, 여성: 53.1%), 60세 이상(남성: 81.4%, 여성: 67.8%)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51.0%, 여성: 59.8%)와 50대(남성: 68.9%, 여성: 75.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2.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8.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3.0%)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57.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7.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58.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2.0%), 300~500만원 미만(62.3%), 500만원 이상(63.3%)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2.8%), 만난 경험 있음(62.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0%)

나. 북한이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국민들은 일치단결해야 한다.

- ‘북한이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국민들은 일치단결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0.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2%로 나타남

평균점수 : 4.13점

[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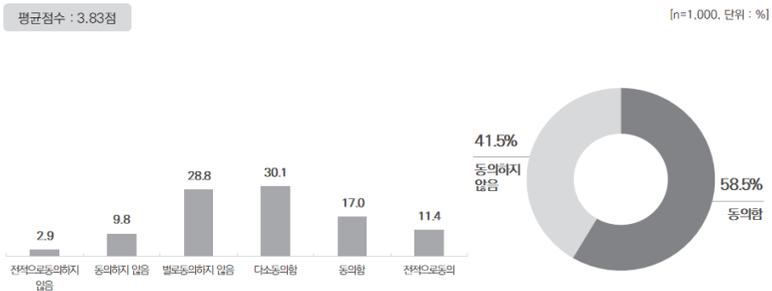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50.9%), 30대(60.6%), 40대(64.5%), 50대(82.6%), 60대 이상(86.0%)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6.0%, 여성: 45.1%), 30대(남성: 63.1%, 여성: 58.0%), 60세 이상(남성: 89.8%, 여성: 82.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57.0%, 여성: 72.2%)와 50대(남성: 80.6%, 여성: 84.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81.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64.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84.0%)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62.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78.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64.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8.5%), 300~500만원 미만(70.1%), 500만원 이상(72.4%)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9.9%), 만난 경험 있음(73.0%),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3.3%)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다. 다양성은 좋은 것이지만 적어도 북한문제에 있어서 다양성은 해악이 더 크다.

- ‘다양성은 좋은 것이지만 적어도 북한문제에 있어서 다양성은 해악이 더 크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8.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5%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9.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46.1%)에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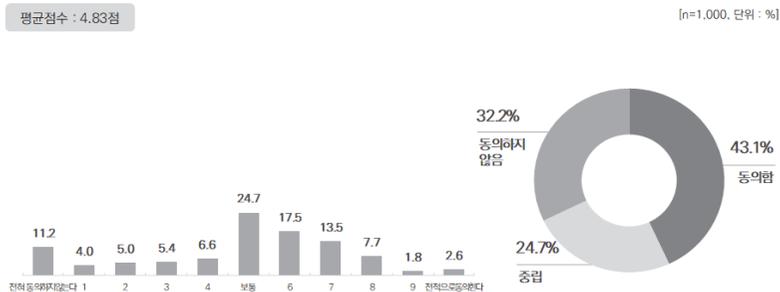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67.0%, 여성: 39.0%), 30대(남성: 51.2%, 여성: 40.7%), 60세 이상(남성: 72.9%, 여성: 67.1%)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45.0%, 여성: 51.5%)와 50대(남성: 63.1%, 여성: 73.%)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1.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1.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5.0%)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7.0%)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64.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54.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59.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57.4%), 만난 경험 있음(59.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6.7%)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11. 북한에 대한 이미지

가. 북한에 대한 이미지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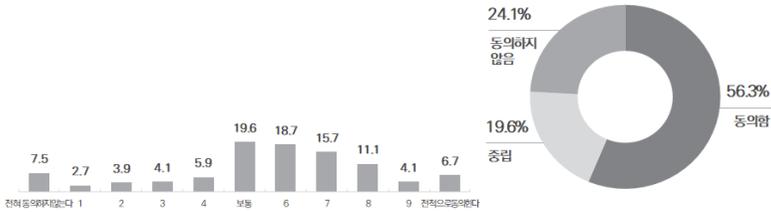
- 북한은 ‘지원대상’이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3.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2%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46.4%)이 여성(39.9%)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50.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31.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의 경우 여성(36.6%)이 남성(26.4%)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44.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8.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8.6%)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33.6%)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이(51.0%)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32.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2.9%), 300~500만원 미만(42.6%), 500만원 이상(48.4%)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48.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나. 북한에 대한 이미지 : 협력대상

- 북한은 ‘협력대상’이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6.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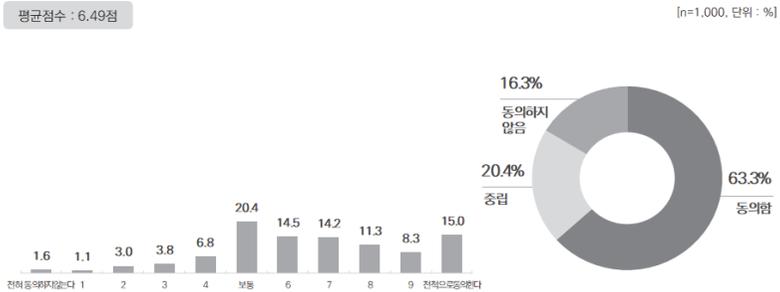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8.5%)이 여성(54.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64.0%)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51.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63.1%, 여성: 45.7%), 40대(남성: 67.0%, 여성: 60.8%), 60세 이상(남성: 53.4%, 여성: 50.0%)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2.7%, 여성: 57.3%)와 50대(남성: 57.3%, 여성: 58.2%)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58.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51.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3.0%)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5.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4.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48.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3.2%), 300~500만원 미만(57.1%), 500만원 이상(62.0%)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3.6%), 만난 경험 있음(62.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0.0%)

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 : 경계대상

- 북한은 ‘경계대상’이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3.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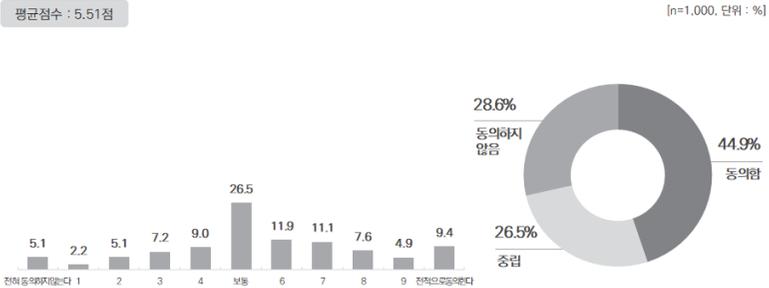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5.1%)이 여성(61.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4.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53.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72.5%, 여성: 58.5%), 30대(남성: 56.0%, 여성: 51.9%), 40대(남성: 48.0%, 여성: 58.8%)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63.1%, 여성: 65.3%)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0.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

(60.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7.9%)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55.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73.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58.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66.1%)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66.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라. 북한에 대한 이미지: 적대대상

- 북한은 ‘적대대상’이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4.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6%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49.6%)이 여성(40.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53.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30.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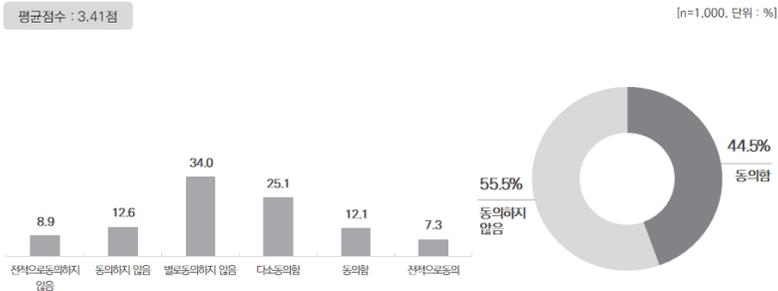
반면, 50대의 경우 여성(51.0%)이 남성(44.7%)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52.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40.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3.%)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32.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51.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42.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47.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3.9%), 만난 경험 있음(47.2%),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0.0%)

12. 남한의 정당성

가. 남한은 북한지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이북을 점령한 불법집단이기 때문이다.

- ‘남한은 북한지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이북을 점령한 불법집단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4.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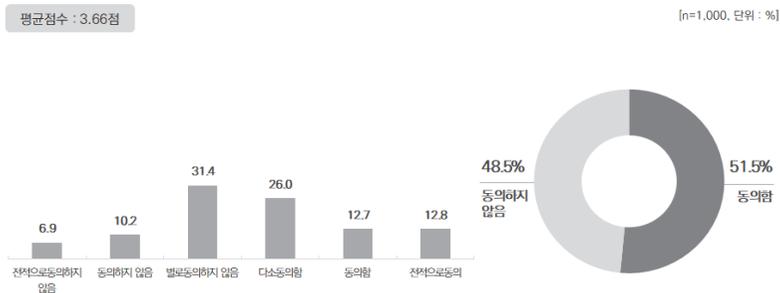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0.6%)이 여성(38.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53.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37.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의 경우 여성(49.0%)이 남성(45.6%)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51.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0.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9.4%)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34.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이(51.2%)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41.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3.2%), 300~500만원 미만(43.5%), 500만원 이상(45.9%)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43.5%), 만난 경험 있음(47.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3.3%)

나. 국제사회는 남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 ‘국제사회는 남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1.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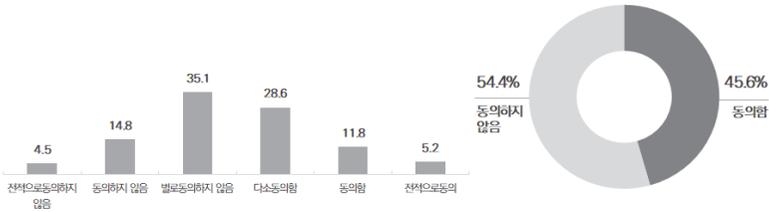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4.8%)이 여성(48.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59.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42.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의 경우 여성(60.2%)이 남성(47.6%)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0.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7.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6.8%)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39.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59.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4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54.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0.1%), 만난 경험 있음(54.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6.7%)

13. 분단의 중심성

가.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경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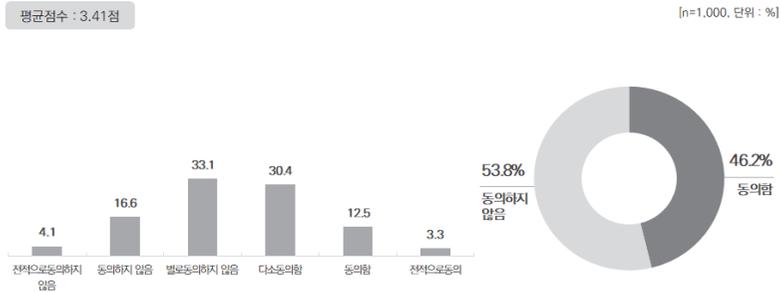
-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경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5.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4%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30대(55.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37.9%)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3.8%, 여성: 54.9%), 40대(남성: 37.0%, 여성: 41.2%), 50대(남성: 44.7%, 여성: 48.0%)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의 경우 남성(57.1%)이 여성(54.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60세 이상(남성: 38.1%, 여성: 37.7%)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48.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41.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2.0%)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2.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49.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38.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43.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6.5%), 만난 경험 있음(43.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0.0%)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나.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경험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의 관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경험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의 관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6.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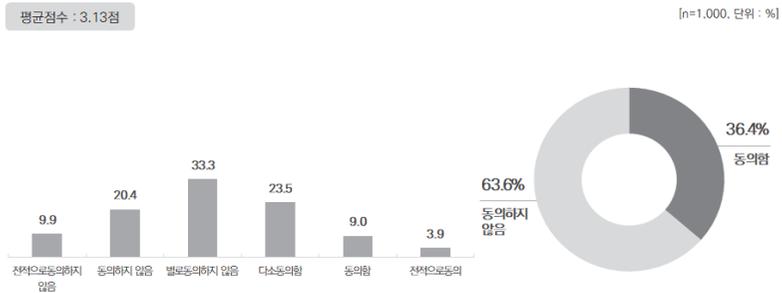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48.0%)이 남성(44.4%)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58.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37.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의 경우 남성(60.4%)이 여성(47.6%)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47.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40.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9.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3.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51.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39.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47.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60.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다. 나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 ‘나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36.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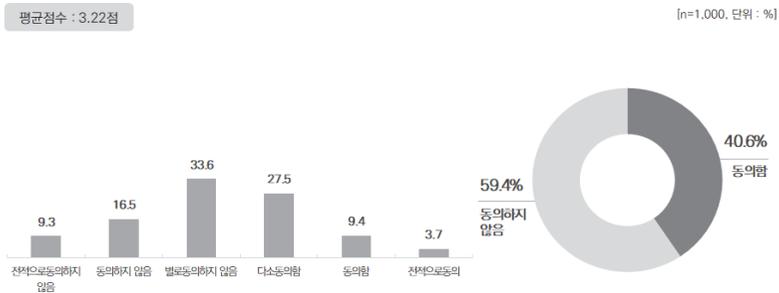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37.1%)이 남성(35.7%)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49.1%) 및 30대(49.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22.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0.5%, 여성: 47.6%), 40대(남성: 40.0%, 여성: 36.1%)의 경우 남성이 여

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27.2%, 여성: 35.7%)와 60세 이상(남성: 18.6%, 여성: 26.0%)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남성: 48.8%, 여성: 49.4%)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40.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31.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39.4%)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31.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39.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30.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8.5%), 300~500만원 미만(35.9%), 500만원 이상(35.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32.1%)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라. 분단의 역사와 과정은 내가 관심있는 영역이 아니다.

- ‘분단의 역사와 과정은 내가 관심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0.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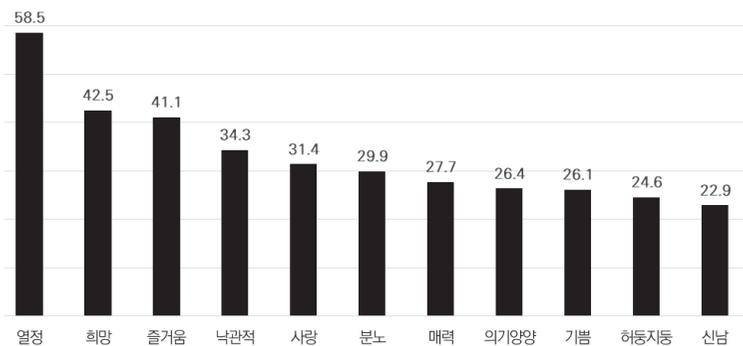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43.3%)이 남성(37.9%)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53.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26.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47.6%, 여성: 56.8%), 50대(남성: 31.1%, 여성: 42.9%), 60세 이상(남성: 21.2%, 여성: 30.8%)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3.8%, 여성: 53.7%)와 40대(남성: 42.0%, 여성: 42.3%)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43.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6.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43.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37.3%)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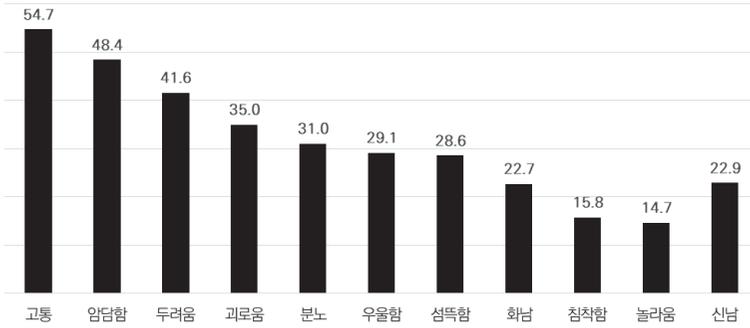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45.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38.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37.8%)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46.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14. 남한사람 및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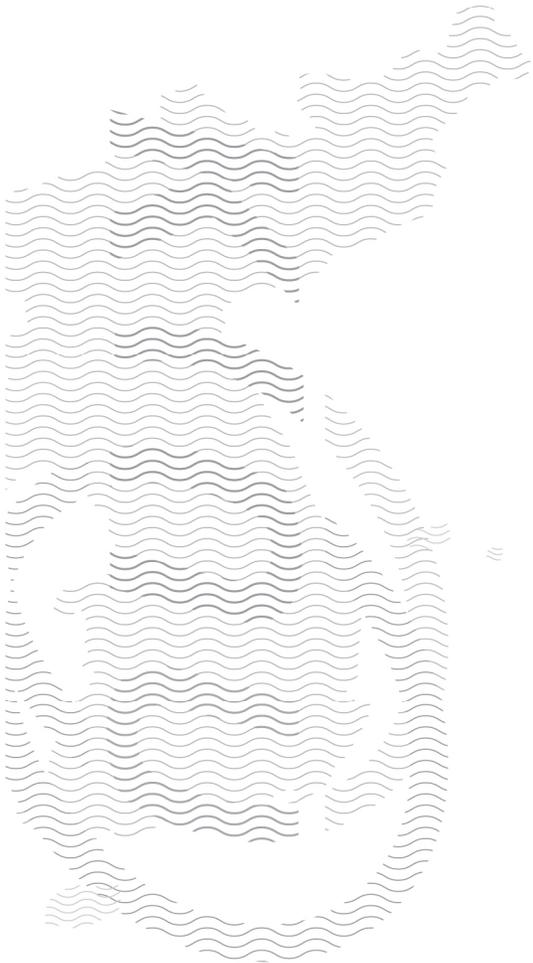
- 남한사람 및 북한사람의 특징은 28개 속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10개의 속성의 ‘빈도’ 비율을 제시하였음
- 남한사람들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 생각되는 속성은 ‘열정’이 58.5%로 가장 높았으며 ‘희망’(42.5%), ‘즐거움’(41.1%), ‘낙관적’(34.3%), ‘사랑’(31.4%) 등 순



- 북한사람들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 생각되는 속성은 ‘고통’이 54.7%로 가장 높았으며 ‘암담함’(48.4%), ‘두려움’(41.6%), ‘괴로움’(35.0%), ‘분노’(31.0%) 등 순임



IV. 화해의 마음



1. 한반도 문제에 대한 희망

가. 나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희망적이다.

- ‘나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희망적이다’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47.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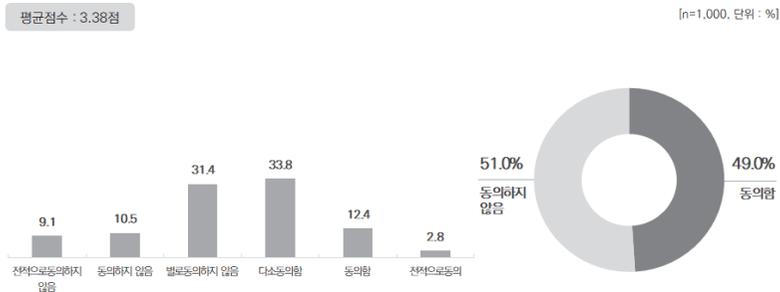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9.4%)이 여성(46.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는 40대(61.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36.0%)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60.7%, 여성: 43.2%), 40대(남성: 67.0%, 여성: 55.7%), 50대(남성: 46.6%, 여성: 42.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47.3%, 여성: 52.4%)와 60세 이상(남성: 30.5%, 여성: 40.4%)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50.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38.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68.3%)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26.6%)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58.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40.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7.6%), 300~500만원 미만(48.7%), 500만원 이상(52.0%)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51.6%)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나. 나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에 대해 희망적이다.

- ‘나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에 대해 희망적이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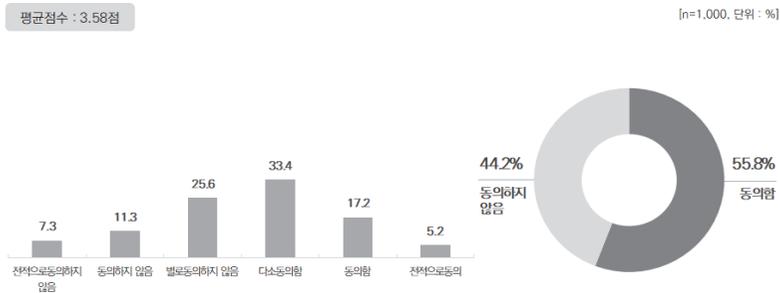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1.8%)이 여성(46.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56.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42.4%)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59.5%, 여성: 39.5%), 40대(남성: 67.0%, 여성: 45.4%), 50대(남성: 49.5%, 여성: 42.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48.4%, 여성: 58.5%)와 60세 이상(남성: 38.1%, 여성: 45.9%)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51.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46.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65.5%)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33.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59.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41.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9.0%), 300~500만원 미만(50.4%), 500만원 이상(52.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7.4%), 만난 경험 있음(51.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다. 나는 남북 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해 희망적이다.

- ‘나는 남북 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해 희망적이다’란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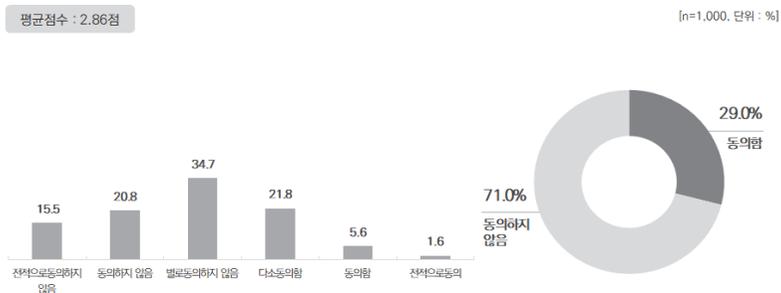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6.9%)이 여성(54.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66.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42.4%)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7.1%, 여성: 65.9%), 50대(남성: 52.4%, 여성: 55.1%), 60세 이상(남성: 38.1%, 여성: 45.9%)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67.9%, 여성: 54.3%)와 40대(남성: 74.0%, 여성: 58.8%)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58.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46.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4.6%)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36.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7.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46.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59.7%)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62.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2. 북한에 대한 신뢰

가. 북한이 남한에 유감을 표시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 ‘북한이 남한에 유감을 표시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29.0%가 동의하였고, 71.0%는 동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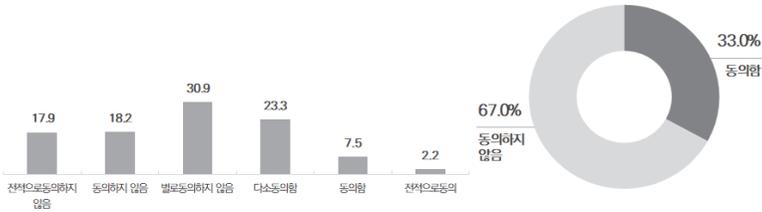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0.8%)이 여성(27.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35.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23.9%)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남성: 23.7%, 여성: 24.0%)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31.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24.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5.1%)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17.6%)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34.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26.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31.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7.7%), 만난 경험 있음(31.0%),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3.3%)

나.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고 말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고 말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33.0%가 동의 하였고, 67.0%는 동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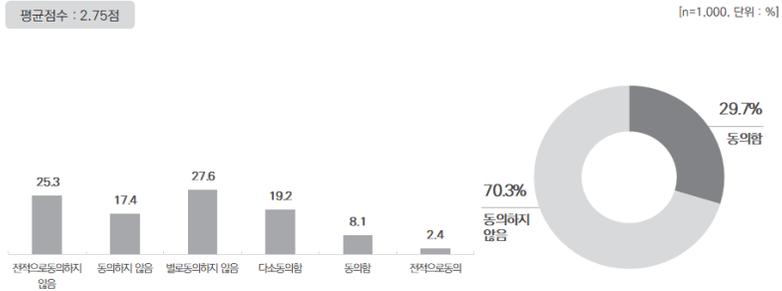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4.7%)이 여성(31.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41.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24.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42.9%, 여성: 39.5%), 40대(남성: 50.0%, 여성: 29.9%), 50대(남성: 30.1%, 여성: 26.5%)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30.8%, 여성: 40.2%), 60세 이상(남성: 22.9%, 여성: 26.0%)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34.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29.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44.8%)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18.0%)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35.8%)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30.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35.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1.5%), 만난 경험 있음(34.9%),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29.7%가 동의하였고, 70.3%는 동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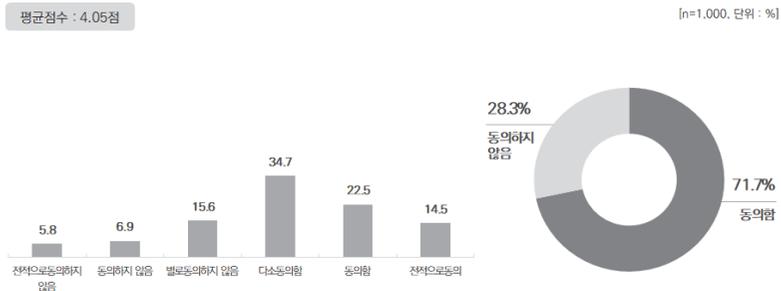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3.9%)이 여성(25.6%)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35.0%)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22.0%)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30대의 경우 여성(33.3%)이 남성(31.0%)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32.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24.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8.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16.0%)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38.8%)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정 지역(23.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33.6%)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7.9%), 만난 경험 있음(32.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0.0%)

3. 북한에 대한 공감

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은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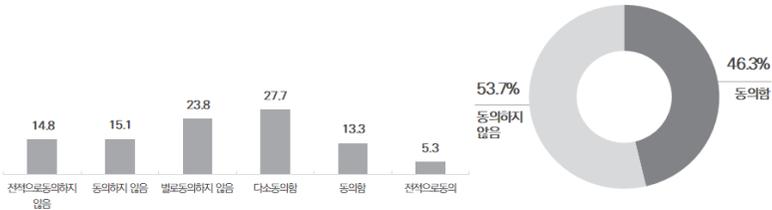
-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은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1.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3%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75.0%)이 여성(68.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75.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68.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75.7%, 여성: 75.5%)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72.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69.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5.9%)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69.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75.5%) 및 대구/경북 지역(75.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61.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76.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73.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나.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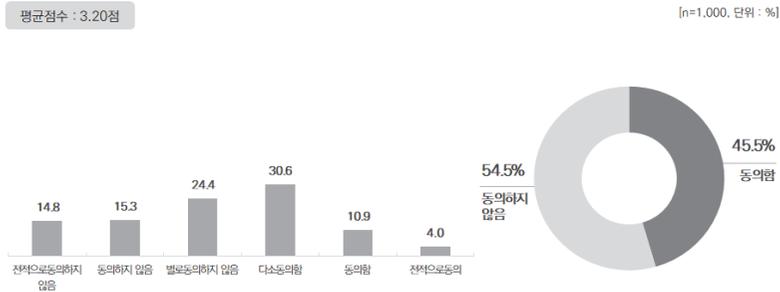
-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6.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7%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51.6%)이 여성(41.1%)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55.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37.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여성(42.5%)이 남성(41.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48.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42.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4.9%)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38.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53.1%)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34.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52.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5.1%), 만난 경험 있음(46.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3.3%)

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외부 세계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외부세계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5.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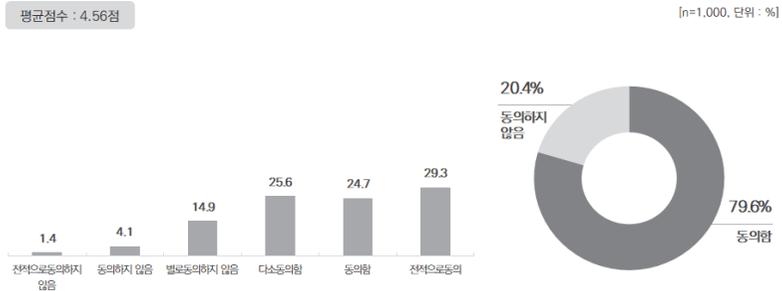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40대(57.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37.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45.1%, 여성: 51.2%), 50대(남성: 39.8%, 여성: 43.9%), 60세 이상(남성: 33.1%, 여성: 41.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46.4%, 여성: 44.4%)와 40대(남성: 64.0%, 여성: 51.5%)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48.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42.2%)에서 가장 낮음
-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55.8%)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32.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49.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38.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48.1%)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60.0%)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라. 어떤 이유에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정당화될 수 없다

- ‘어떤 이유에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9.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4%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80.6%)이 남성(78.6%)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85.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73.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남성: 70.0%, 여성:

76.3%), 50대(남성: 79.6%, 여성: 83.7%), 60세 이상(남성: 83.9%, 여성: 86.3%)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75.8%, 여성: 73.2%)와 30대(남성: 83.3%, 여성: 79.0%)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83.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77.2%)에서 가장 낮음
-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84.4%)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76.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82.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74.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74.6%), 300~500만원 미만(80.3%), 500만원 이상(81.4%)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78.4%), 만난 경험 있음(82.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83.3%)

4. 공통의 희생자 인식

가. 남한이 받은 분단의 고통과 북한이 받은 분단의 고통은 비슷하다

- ‘남한이 받은 분단의 고통과 북한이 받은 분단의 고통은 비슷하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4.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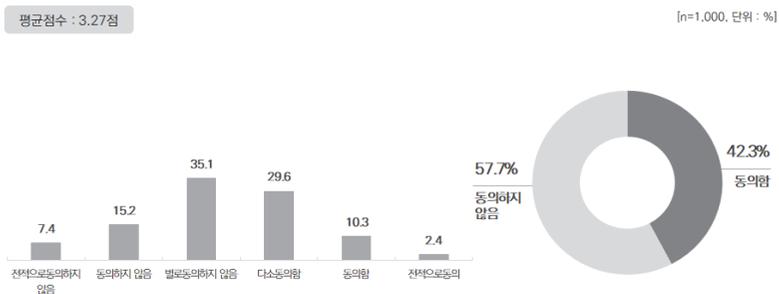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4.6%)이 남성(53.6%)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61.3%), 30대(58.8%), 40대(52.8%), 50대(51.7%), 60대 이상(49.2%)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63.1%, 여성: 54.3%), 40대(남성: 58.0%, 여성: 47.4%), 50대(남성: 54.4%, 여성: 49.0%)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4.9%, 여성: 68.3%)와 60세 이상(남성: 41.5%, 여성: 55.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

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57.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45.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8.3%)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5.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58.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46.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47.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56.7%)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나. 분단으로 인해 북한이 겪고 있는 불공정성과 불평등은 남한이 겪고 있는 불공정성과 불평등과 유사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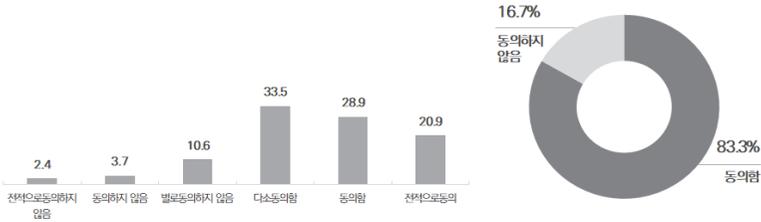
- ‘분단으로 인해 북한이 겪고 있는 불공정성과 불평등은 남한이 겪고 있는 불공정성과 불평등과 유사성이 높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2.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7%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45.0%)이 여성(39.7%)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52.0%), 30대(45.5%), 40대(43.1%), 50대(40.3%), 60대 이상(34.8%)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여성(36.3%)이 남성(33.1%)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45.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6.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46.5%)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32.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49.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37.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38.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66.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다. 남한과 북한은 모두 분단의 피해자이다

- ‘남한과 북한은 모두 분단의 피해자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83.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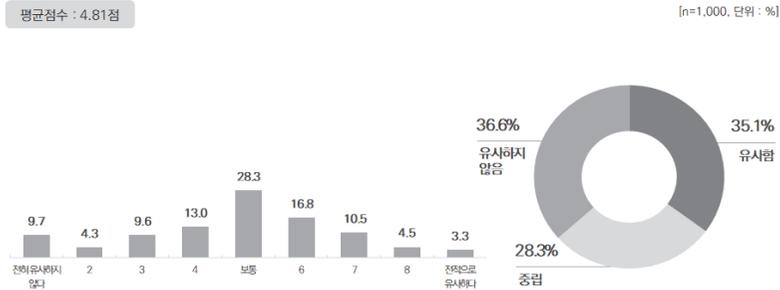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85.3%)이 남성(81.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85.0%), 30대(84.8%), 40대(84.8%), 50대(82.1%), 60대 이상(81.1%)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40대의 경우 남성(81.1%)이 여성(83.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84.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76.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8.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79.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85.6%)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75.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75.6%), 300~500만원 미만(85.2%), 500만원 이상(85.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정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5. 단일민족 정체감

가. 전반적으로 귀하는 북한 사람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십니까?.

- ‘북한 사람들과의 유사성’에 전체 응답자의 35.1%가 ‘유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사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36.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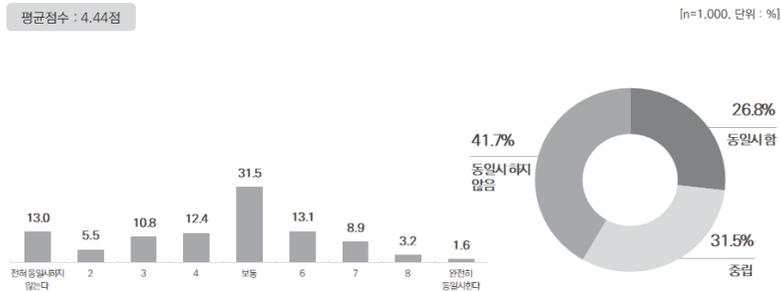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1.7%)이 여성(28.6%)보다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42.8%)에서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23.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의 경우 여성(25.6%)이 남성(22.0%)보다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37.8%)에서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1.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48.0%)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

- 장 높고, 보수(27.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44.9%)이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29.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5.8%), 300~500만원 미만(37.4%), 500만원 이상(37.8%)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2.9%), 만난 경험 있음(40.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6.7%)

나. 귀하는 북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 ‘북한사람들과의 동일성’에 전체 응답자의 26.8%가 ‘동일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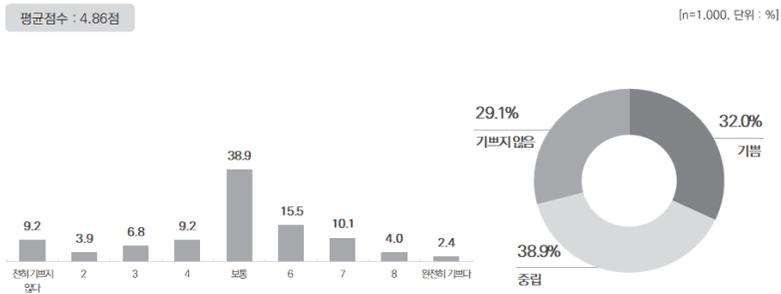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4.1%)이 여성(19.6%)보다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20대(19.1%), 30대(23.6%), 40대(29.4%), 50대(29.4%), 60대 이상(29.9%)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22.0%, 여성: 15.9%), 30대(남성: 35.7%, 여성: 11.1%), 40대(남성: 40.0%, 여성: 18.6%), 50대(남성: 35.0%, 여성: 23.5%), 60대 이상(남성: 36.4%, 여성: 24.7%)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31.8%)에서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24.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2.3%)가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23.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37.8%)이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20.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31.9%)이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일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3.8%), 만난 경험 있음(32.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다. 귀하는 귀하가 북한 사람들과 한민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 ‘북한 사람들과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기쁨’에 전체 응답자의 32.0%가 ‘기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쁘지 않다’라는 응답은 29.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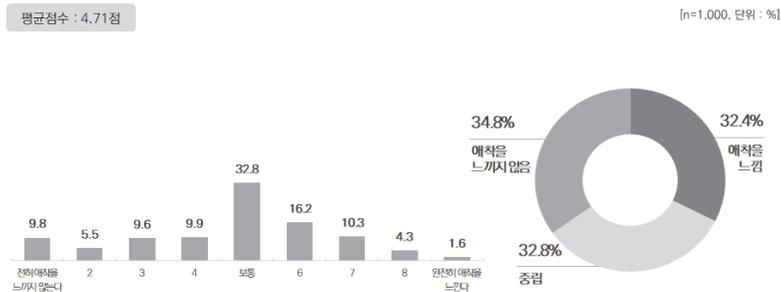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6.5%)이 여성(27.6%)보다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42.3%)에서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19.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40.5%, 여성: 18.5%), 40대(남성: 44.0%, 여성: 26.8%), 60세 이상(남성: 35.6%, 여성: 27.4%)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18.7%, 여성: 20.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50대(남성: 42.7%, 여성: 41.8%)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33.2%)에서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 높고, 불교(29.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9.8%)가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27.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40.8%)이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25.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인 응답자들(35.1%)이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기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9.1%), 만난 경험 있음(38.9%),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3.3%)

라. 스스로 북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 ‘북한 사람에 대한 애착’에 전체 응답자의 32.4%가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34.8%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40.7%)이 여성(24.2%)보다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40.8%)에서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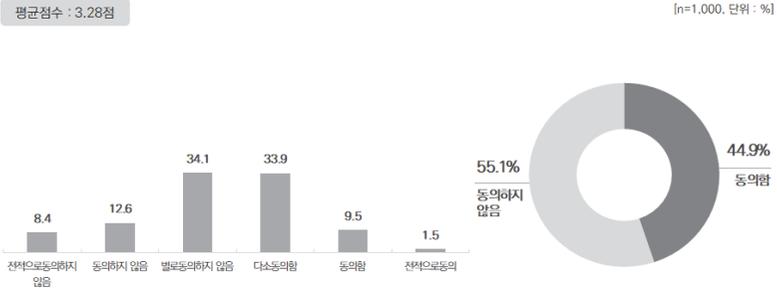
- 이 가장 높고, 20대(23.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28.6%, 여성: 17.1%), 30대(남성: 47.6%, 여성: 12.3%), 40대(남성: 40.0%, 여성: 22.7%), 50대(남성: 44.7%, 여성: 36.7%), 60대 이상(남성: 42.4%, 여성: 27.4%)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36.4%)에서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29.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41.1%)가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고, 보수(26.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40.8%)이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28.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인 응답자들(35.7%)이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애착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9.1%), 만난 경험 있음(38.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0%)

6. 북한에 관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개방성

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나는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나는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4.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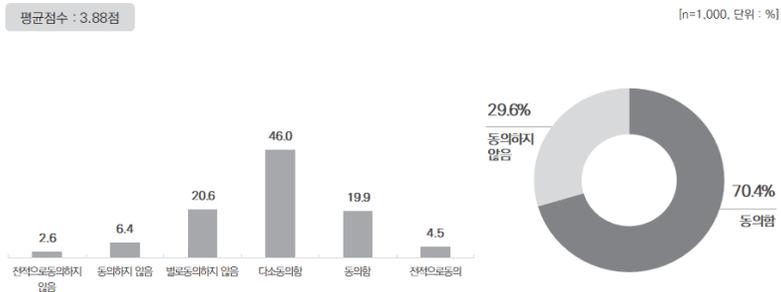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1.6%)이 여성(38.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49.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38.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6.2%, 여성: 29.3%), 30대(남성: 59.5%, 여성: 37.0%), 40대(남성: 52.0%, 여성: 47.4%), 50대(남성: 54.4%, 여성: 41.8%), 60대 이상(남성: 47.5%, 여성: 35.6%)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47.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40.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8.0%)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34.0%)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52.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34.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48.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2.5%), 만난 경험 있음(49.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나. 남북 간 갈등에 대해 남한의 견해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럽국가의 관점을 담은 정보를 받아볼 용의가 있다

- ‘남북 간 갈등에 대해 남한의 견해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럽국가의 관점을 담은 정보를 받아볼 용의가 있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0.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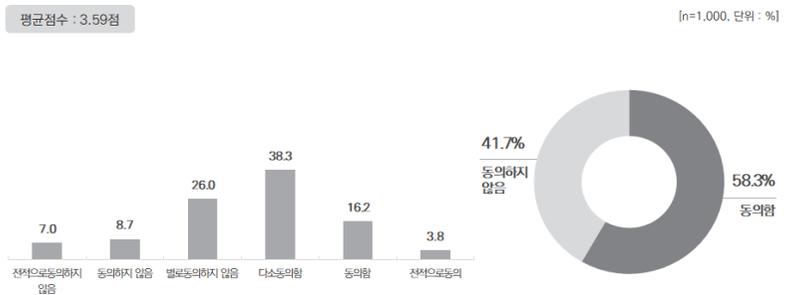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73.6%)이 여성(67.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76.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65.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71.4%, 여성: 69.5%), 30대(남성: 72.6%, 여성: 67.9%), 40대(남성: 80.0%, 여성: 72.2%), 50대(남성: 68.0%,

여성: 63.3%), 60대 이상(남성: 75.4%, 여성: 65.1%)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72.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69.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8.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66.8%)와 중도(66.4%)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77.1%)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67.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74.8%)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76.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다. 남북 갈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영화나 책을 읽어볼 용의가 있다

- ‘남북 갈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영화나 책을 읽어볼 용의가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8.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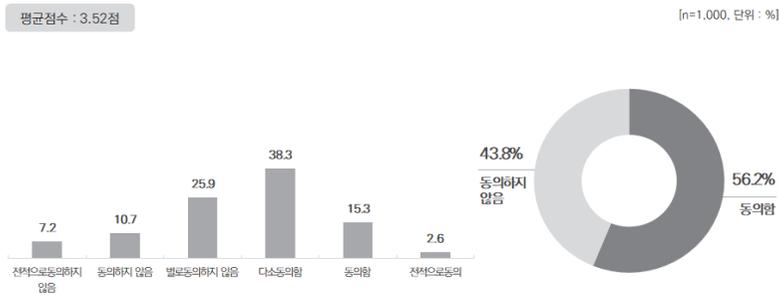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1.5%)이 여성(55.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64.0%)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48.9%)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65.5%, 여성: 56.8%), 40대(남성: 72.0%, 여성: 55.7%), 60세 이상(남성: 54.2%, 여성: 44.5%)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7.1%, 여성: 64.6%)와 50대(남성: 60.2%, 여성: 61.2%)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60.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46.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1.5%)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8.0%)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5.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55.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0.7%), 300~500만원 미만(58.8%), 500만원 이상(61.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6.4%), 만난 경험 있음(62.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0.0%)

라. 나는 북한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읽어볼 용의가 있다

- ‘나는 북한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는 지 읽어볼 용의가 있다’라는 주장에 56.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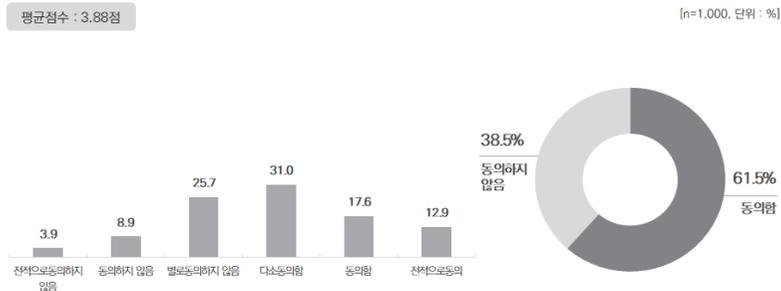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7.1%)이 여성(55.4%)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60.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49.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남성: 64.0%, 여성: 56.7%), 50대(남성: 59.2%, 여성: 55.1%), 60세 이상(남성: 51.7%, 여성: 47.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7.1%, 여성: 63.4%)와 30대(남성: 53.6%, 여성: 60.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4.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49.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65.8%)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 보수(46.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3.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53.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8.4%), 300~500만원 미만(56.5%), 500만원 이상(59.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3.2%), 만난 경험 있음(63.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0.0%)

7.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책임

가. 지금까지 남북한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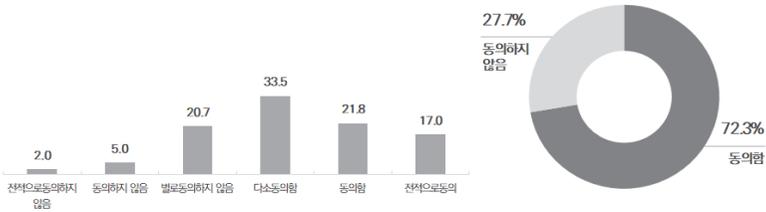
- ‘지금까지 남북한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1.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5%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7.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51.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75.8%, 여성: 57.3%), 60세 이상(남성: 70.3%, 여성: 65.8%)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56.0%, 여성: 61.7%), 40대(남성: 50.0%, 여성: 53.6%), 50대(남성: 55.3%, 여성: 65.3%)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0.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8.3%)에서 가장 낮음
-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70.5%)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57.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66.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57.1%)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67.9%)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성별, 월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나. 만일 북한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했다면 남북한의 갈등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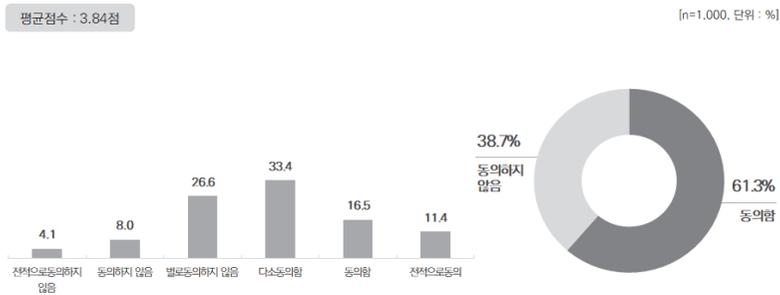
- ‘만일 북한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했다면 남북한의 갈등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2.3%가 동의하였고, 27.7%는 동의하지 않았음



- 성별로 보면 남성(74.4%)이 여성(70.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7.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65.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의 경우 여성(74.5%)이 남성(72.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9.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68.1%)에서 가장 낮음
-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75.0%)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70.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76.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이(65.7%)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74.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70.5%), 만난 경험 있음(75.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86.7%)

다. 북한은 평화로운 갈등해결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의 평화로운 갈등해결은 불가능하다

- ‘북한은 평화로운 갈등해결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의 평화로운 갈등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1.3%가 동의하였고, 38.7%는 동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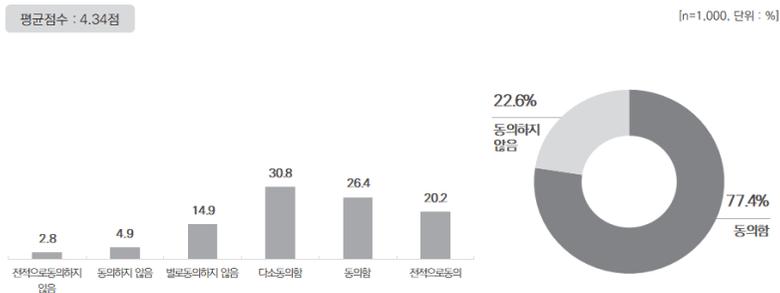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2.1%)이 여성(60.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8.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50.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76.9%, 여성: 51.2%)와 50대(남성: 64.1%, 여성: 60.2%)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54.8%, 여성: 61.7%)와 40대(남성: 45.0%, 여성: 56.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60세 이상(남성: 68.6%, 여성: 67.8%)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9.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6.5%)에서 가장 낮음

-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73.4%)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7.0%)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67.1%)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51.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66.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1.0%), 만난 경험 있음(61.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8. 북한 문제에 대한 죄책감

가. 나는 우리사회가 허위 간첩 사건과 같이 북한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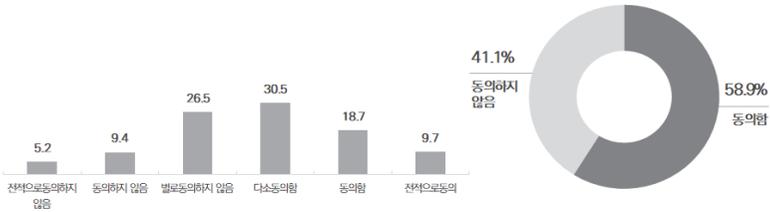
- ‘나는 우리사회가 허위 간첩 사건과 같이 북한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7.4%가 동의하였고, 22.6%는 동의하지 않았음



- 성별로 보면 남성(80.0%)이 여성(74.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84.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71.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남성: 75.4%, 여성: 74.7%)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79.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73.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6.5%)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68.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82.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68.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71.4%), 300~500만원 미만(78.0%), 500만원 이상(79.9%)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77.7%), 만난 경험 있음(77.0%),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3.3%)

나. 나는 우리사회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행위들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나는 우리사회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행위들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8.9%가 동의하였고, 41.1%는 동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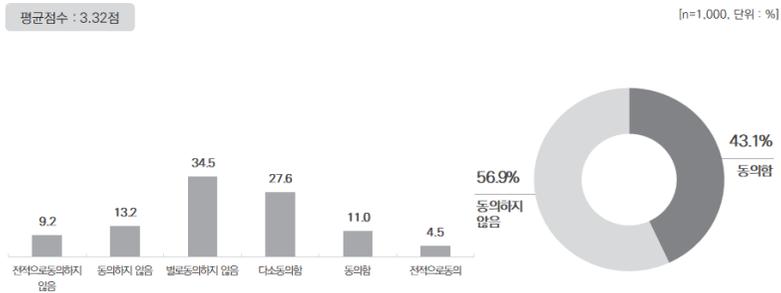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40대(64.0%)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55.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60.4%, 여성: 53.7%), 30대(남성: 64.3%, 여성: 58.0%), 40대(남성: 70.0%, 여성: 57.7%)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56.3%, 여성: 60.2%)와 60세 이상(남성: 48.3%, 여성: 61.0%)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60.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56.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68.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6.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7.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55.2%) 및 대전/충청/세종 지역(55.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61.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8.5%), 만난 경험 있음(59.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다. 나는 우리사회가 북한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우리사회가 북한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3.1%가 동의하였고, 56.9%는 동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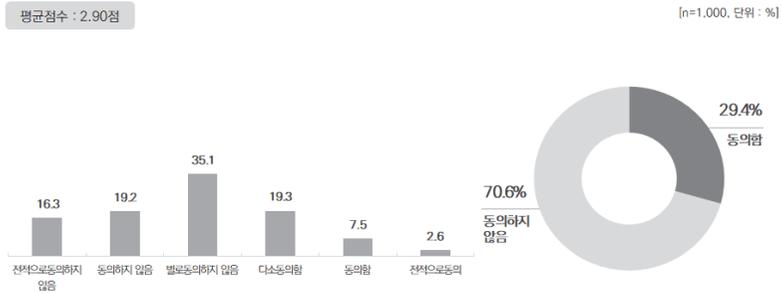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6.8%)이 여성(39.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51.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36.0%)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46.2%, 여성: 36.6%), 30대(남성: 50.0%, 여성: 43.2%), 40대(남성: 61.0%, 여성: 42.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42.7%, 여성: 41.8%)와 60세 이상(남성: 36.4%, 여성: 35.6%)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42.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9.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5.5%)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29.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52.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36.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46.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66.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라. 나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죄책감이 든다

- ‘나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죄책감이 든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29.4%가 동의하였고, 70.6%는 동의하지 않았음



- 성별로 보면 남성(32.5%)이 여성(26.4%)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33.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24.9%)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33.0%, 여성: 15.9%), 30대(남성: 36.9%, 여성: 29.6%), 40대(남성: 41.0%, 여성: 21.6%)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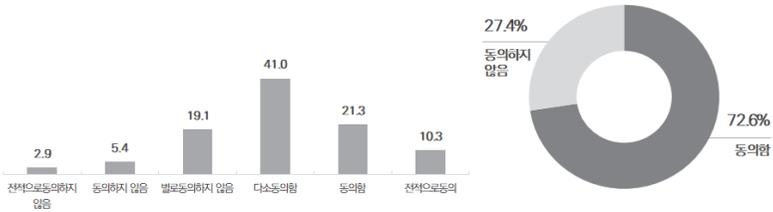
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29.1%, 여성: 30.6%)와 60세 이상(남성: 24.6%, 여성: 30.8%)의 경우 여성의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32.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27.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7.6%)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18.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36.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26.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1.9%), 300~500만원 미만(29.0%), 500만원 이상(28.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7.4%), 만난 경험 있음(30.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9. 용서

가. 남과 북이 과거사를 종결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는 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 ‘남과 북이 과거사를 종결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는 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2.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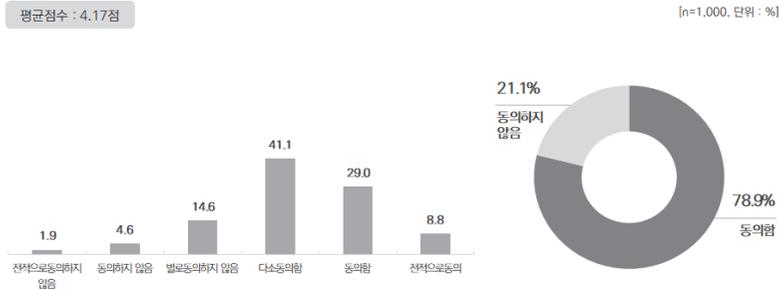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40대(79.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67.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68.1%, 여성: 65.9%)와 60세 이상(남성: 77.1%, 여성: 74.0%)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65.5%, 여성: 67.9%)와 40대(남성: 77.0%, 여성: 81.4%)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50대(남성: 71.8%, 여성: 72.4%)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7.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69.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7.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70.5%)와 중도(70.0%)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76.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68.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68.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74.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나.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남북한 간 정치적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

-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남북한 간 정치적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78.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1%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40대(81.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74.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남성: 84.0%, 여성: 78.4%)와 60세 이상(남성: 83.1%, 여성: 78.8%)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78.6%, 여성: 80.2%)와 50대(남성: 71.8%, 여성: 77.6%)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78.0%, 여성: 78.0%)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80.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76.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6.8%)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73.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90.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73.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70.4%), 300~500만원 미만(80.9%), 500만원 이상(81.4%)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80.6%)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똑같이 복수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똑같이 복수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3.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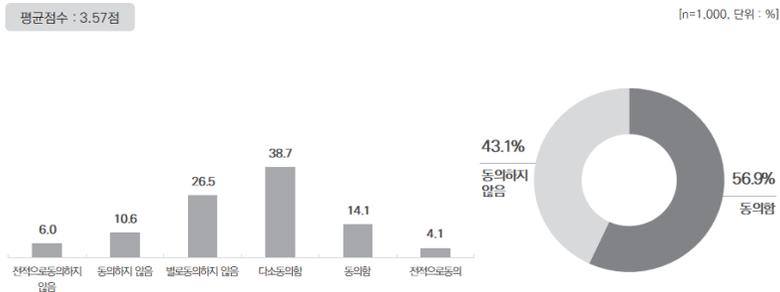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64.7%)이 남성(61.9%)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70.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55.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69.2%, 여성: 72.0%), 40대(남성: 69.0%, 여성: 72.2%), 60세 이상(남성: 48.3%, 여성: 62.3%)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71.4%, 여성: 65.4%)와 50대(남성: 56.3%, 여성: 54.1%)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65.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59.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1.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52.0%)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69.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58.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8.7%), 300~500만원 미만(61.7%), 500만원 이상(66.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2.4%), 만난 경험 있음(64.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6.7%)

라. 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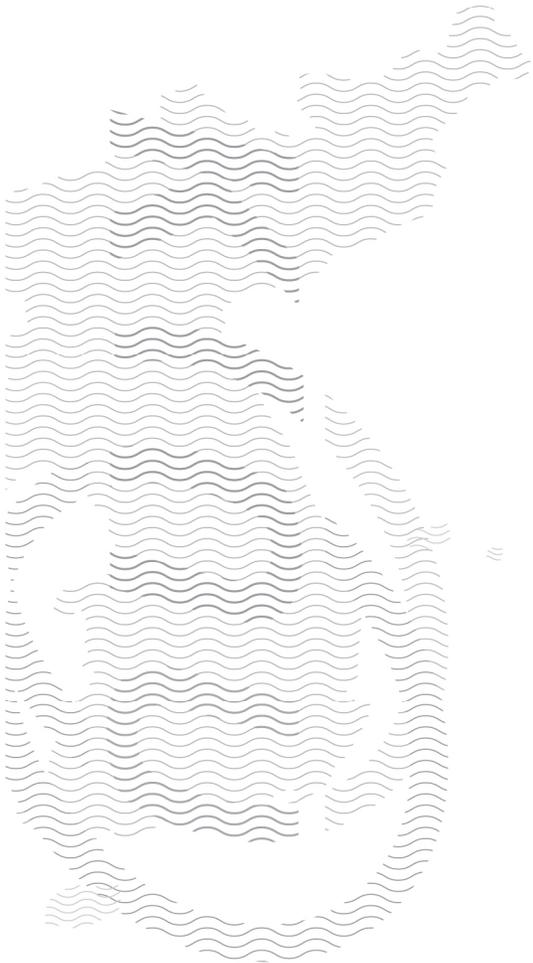
- ‘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6.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1%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58.3%)이 여성(55.6%)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63.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51.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여성(53.4%)이 남성(48.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58.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54.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1.8%)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39.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5.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51.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8.8%), 300~500만원 미만(55.9%), 500만원 이상(61.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5.0%), 만난 경험 있음(61.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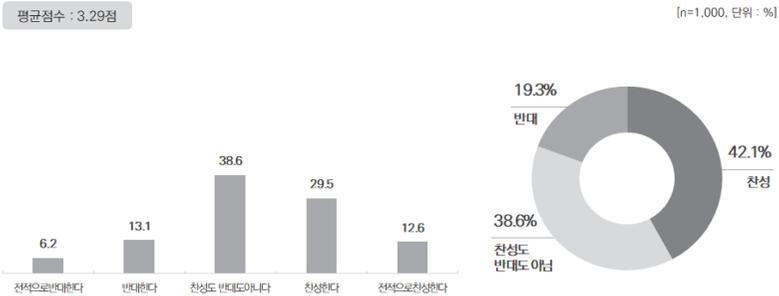
V. 통일, 대북정책, 올림픽



1. 통일에 대한 태도

가.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2.1%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9.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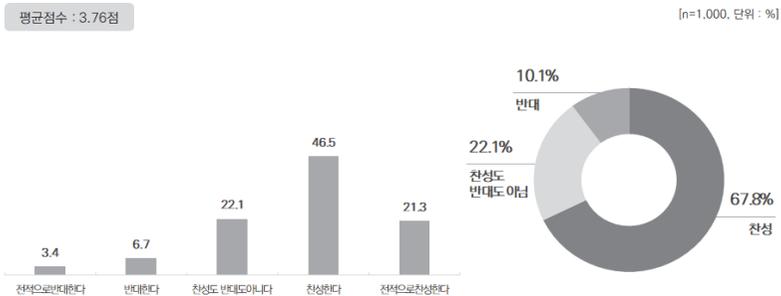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8.4%)이 여성(35.9%)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47.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35.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38.5%, 여성: 31.7%), 30대(남성: 44.0%, 여성: 30.9%), 40대(남성: 58.0%, 여성: 32.0%), 50대(남성: 54.4%, 여성: 40.8%), 60대 이상(남성: 45.8%, 여성: 40.4%)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49.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7.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3.3%)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34.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50.0%)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38.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2.9%), 300~500만원 미만(42.6%), 500만원 이상(46.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9.4%), 만난 경험 있음(48.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나.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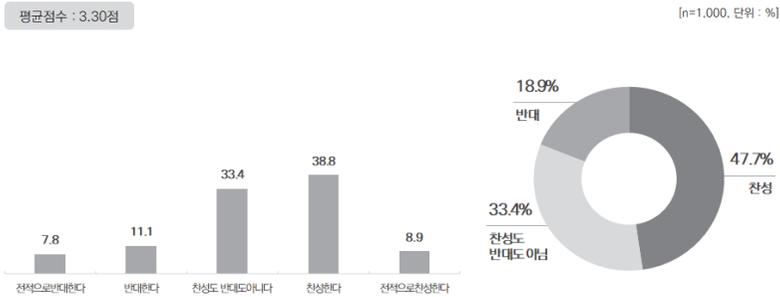
-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7.8%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68.3%)이 여성(67.3%)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2.7%)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56.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의 경우 여성(69.5%)이 남성(45.1%)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75.0%)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64.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4.9%)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63.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78.0%)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63.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2.0%), 300~500만원 미만(68.7%), 500만원 이상(69.9%)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66.7%)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다.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지만 공동의 정부 기구를 창설하는 남북연합은 필요하다.

-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지만 공동의 정부 기구를 창설하는 남북연합은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7.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8.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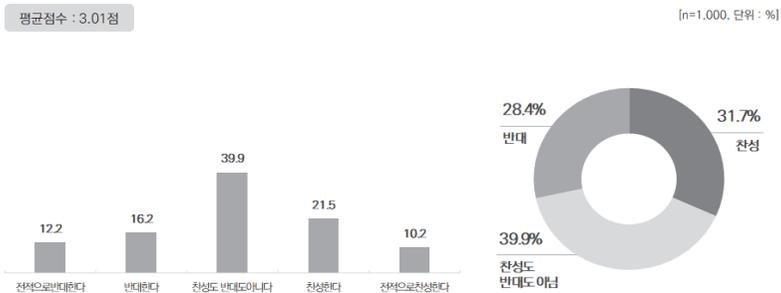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0.6%)이 남성(44.8%)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57.4%)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38.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33.0%, 여성: 43.9%), 40대(남성: 48.0%, 여성: 67.0%), 50대(남성: 51.5%, 여성: 60.2%)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48.8%, 여성: 42.0%)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60세 이상(남성: 42.4%, 여성: 41.8%)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52.6%)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45.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8.0%)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38.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4.3%)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34.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50.4%)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56.7%)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라.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31.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8.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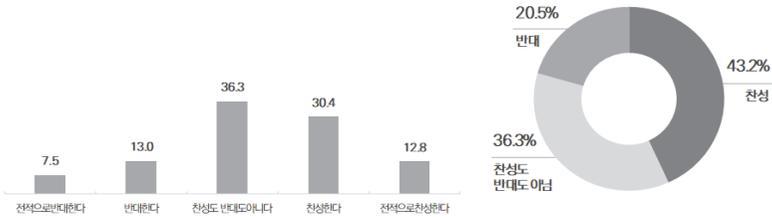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0.1%)이 여성(23.4%)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39.3%)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22.0%)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27.5%, 여성: 15.9%), 30대(남성: 39.3%, 여성: 12.3%), 40대(남성: 48.0%, 여성: 25.8%), 50대(남성: 46.6%, 여성: 31.6%), 60대 이상(남성: 38.1%, 여성: 26.7%)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39.2%)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27.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7.3%)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28.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36.7%)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25.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7.2%), 300~500만원 미만(30.7%), 500만원 이상(34.6%)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9.2%), 만난 경험 있음(36.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0.0%)

마.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3.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0.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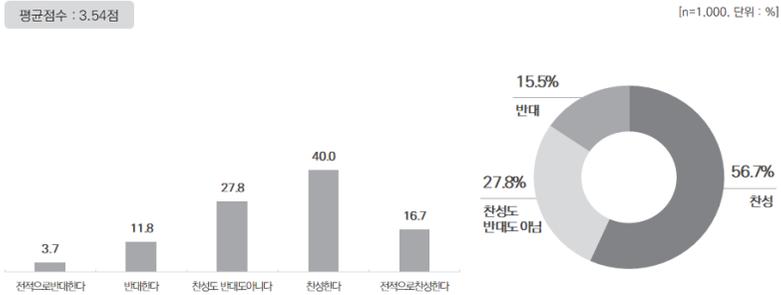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0.8%)이 여성(35.7%)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50.2%)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32.9%)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38.5%, 여성: 26.8%), 30대(남성: 46.4%, 여성: 25.9%), 40대(남성: 54.0%, 여성: 35.1%), 50대(남성: 60.2%, 여성: 39.8%), 60대 이상(남성: 52.5%, 여성: 43.8%)
- 종교별로 보면 불교(48.9%)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38.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1.7%)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37.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50.0%)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36.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4.7%), 300~500만원 미만(41.4%), 500만원 이상(48.6%)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9.6%), 만난 경험 있음(51.2%),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바.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해도 상관없다.

-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해도 상관없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6.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5.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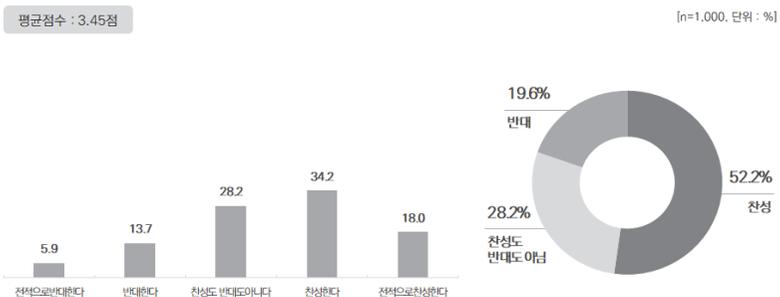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7.3%)이 남성(56.0%)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61.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53.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60.4%, 여성: 56.1%), 50대(남성: 57.3%, 여성: 49.0%), 60세 이상(남성: 60.2%, 여성: 54.8%)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52.4%, 여성: 71.6%)와 40대(남성: 49.0%, 여성: 58.8%)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58.9%)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54.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3.5%)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2.6%)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61.8%)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51.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3.5%), 300~500만원 미만(57.4%), 500만원 이상(57.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8.4%), 만난 경험 있음(52.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0.0%)

사.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굳이 단일국가를 만들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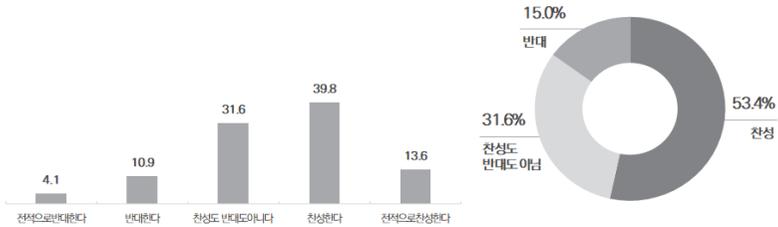
-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굳이 단일국가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2.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9.6%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54.0%)이 남성(50.4%)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54.3%)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47.9%)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7.1%, 여성: 51.2%)와 60세 이상(남성: 55.9%, 여성: 52.7%)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42.9%, 여성: 53.1%), 40대(남성: 46.0%, 여성: 59.8%), 50대(남성: 48.5%, 여성: 53.1%)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54.0%)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51.6%)와 무교(51.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0.2%)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1.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54.9%)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46.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4.0%), 300~500만원 미만(52.8%), 500만원 이상(50.9%)
- 북한이탈주민과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53.6%)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아. 한국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두 개의 국가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 ‘한국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두 개의 국가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3.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5.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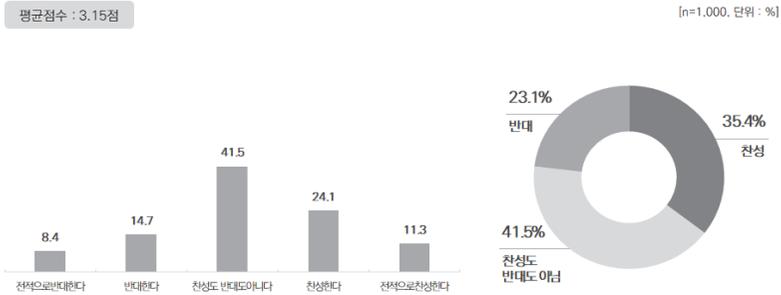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4.6%)이 남성(52.2%)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54.5%)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52.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47.6%, 여성: 58.0%)와 40대(남성: 47.0%, 여성: 57.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58.3%, 여성: 50.0%)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52.7%, 여성: 52.4%)와 60세 이상(남성: 54.2%, 여성: 54.8%)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60.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46.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49.4%)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보수(56.1%)와 진보(56.7%)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56.9%)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46.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8.8%), 300~500만원 미만(53.9%), 500만원 이상(55.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55.2%)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자. 남북한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단일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 ‘남북한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단일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35.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3.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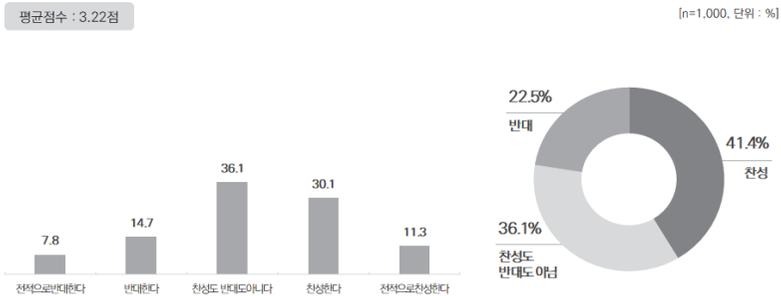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1.3%)이 여성(29.6%)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43.8%)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26.0%)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20대(남성: 26.4%, 여성: 25.6%)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41.9%)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32.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43.9%)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30.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38.8%)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31.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1.0%), 300~500만원 미만(34.5%), 500만원 이상(38.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2.9%), 만난 경험 있음(40.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차.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남한에게 이익이 된다.

-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남한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1.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2.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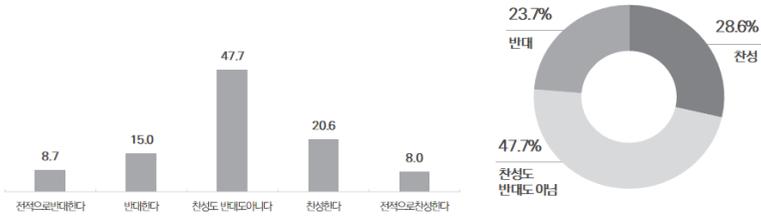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1.4%)이 여성(31.5%)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48.2%)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38.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6.2%, 여성: 30.5%), 30대(남성: 50.0%, 여성: 25.9%), 40대(남성: 64.0%, 여성: 32.0%), 50대(남성: 50.5%, 여성: 31.6%), 60대 이상(남성: 46.6%, 여성: 34.9%)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44.2%)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9.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2.7%)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34.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48.8%)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37.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5.2%), 300~500만원 미만(39.4%), 500만원 이상(45.9%)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7.0%), 만난 경험 있음(52.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카.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

-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28.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3.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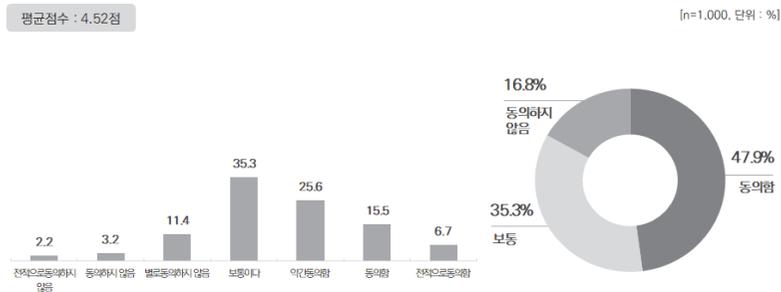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6.5%)이 여성(20.8%)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32.5%)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23.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26.4%, 여성: 20.7%), 30대(남성: 34.5%, 여성: 13.6%), 40대(남성: 43.0%, 여성: 21.6%), 50대(남성: 39.8%, 여성: 23.5%), 60대 이상(남성: 37.3%, 여성: 22.6%)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35.0%)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25.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7.9%)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22.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35.7%)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23.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3.5%), 300~500만원 미만(29.0%), 500만원 이상(30.8%)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4.5%), 만난 경험 있음(36.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2. 통일에 찬성하는 이유

가.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할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할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7.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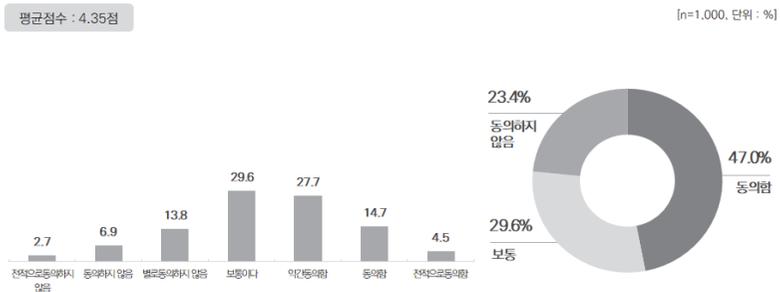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2.6%)이 여성(42.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46.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36.0%)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의 경우 여성(57.6%)이 남성(56.0%)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1.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8.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2.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4.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52.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40.2%)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1.4%), 300~500만원 미만(48.1%), 500만원 이상(50.3%)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6.5%), 만난 경험 있음(48.9%),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4.0%)

나. 나는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에 찬성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나는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에 찬성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7.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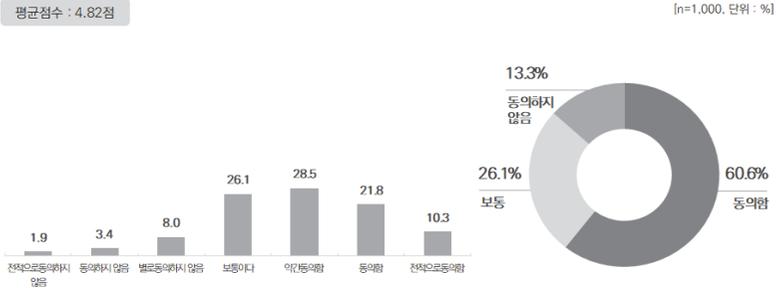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9.4%)이 여성(44.0%)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51.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43.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51.6%, 여성: 40.9%), 50대(남성: 58.7%, 여성: 37.3%), 60세 이상(남성: 44.6%, 여성: 42.7%)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의 경우 여성(59.5%)이 남성(46.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40대(남성: 45.3%, 여성: 45.5%)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54.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43.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2.6%)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3.0%)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54.8%)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38.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0.5%), 300~500만원 미만(46.2%), 500만원 이상(50.0%)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5.5%), 만난 경험 있음(47.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8.0%)

다. 어떤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옳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 ‘어떤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옳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

에 전체 응답자의 60.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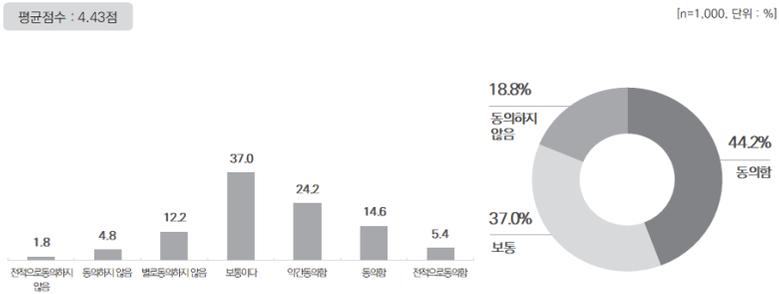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1.8%)이 여성(59.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7.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51.9%)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30대(남성: 51.6%, 여성: 52.3%)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6.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53.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68.0%)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4.0%)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74.1%)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47.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64.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59.2%), 만난 경험 있음(62.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2.0%)

라.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4.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46.8%)이 여성(41.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49.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36.0%)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49.3%, 여성: 49.1%)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54.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

교(40.7%)에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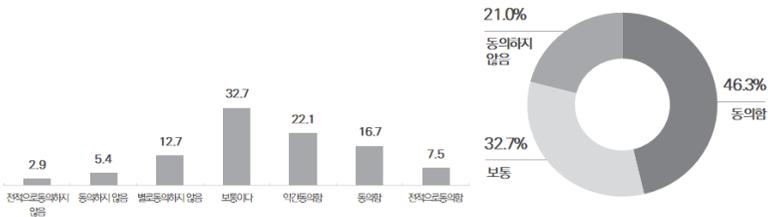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7.3%)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3.8%)와 진보(43.0%)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58.6%)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31.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46.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48.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마.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6.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0%로 나타남

평균점수 : 4.46점

[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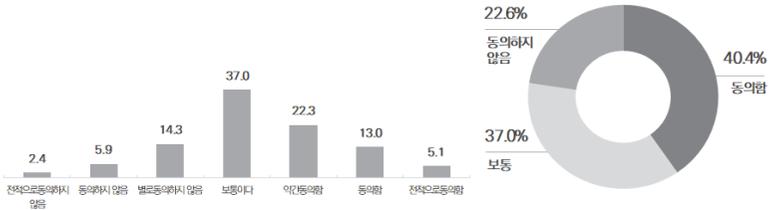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3.8%)이 여성(37.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54.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

대(37.0%)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6.2%, 여성: 29.7%), 30대(남성: 42.2%, 여성: 29.5%), 40대(남성: 62.7%, 여성: 32.7%), 50대(남성: 62.7%, 여성: 44.1%), 60대 이상(남성: 51.4%, 여성: 42.7%)
- 종교별로 보면 불교(56.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5.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0.9%)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2.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51.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34.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34.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4.5%), 만난 경험 있음(46.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2.0%)

바.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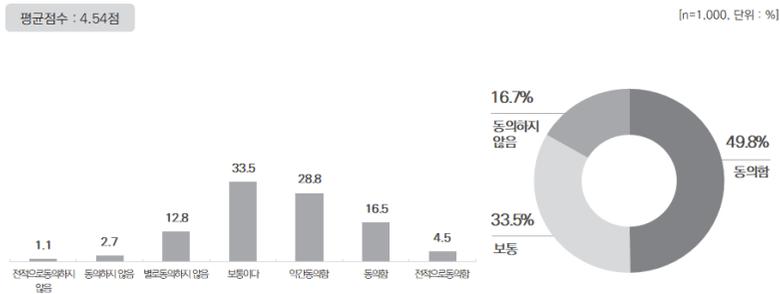
-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0.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6%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49.4%)이 여성(29.6%)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45.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29.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0.4%, 여성: 13.5%), 30대(남성: 45.3%, 여성: 31.8%), 40대(남성: 54.7%, 여성: 29.1%), 50대(남성: 56.0%, 여성: 32.2%), 60대 이상(남성: 47.3%, 여성: 33.7%)
- 종교별로 보면 불교(33.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2.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46.1%)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36.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47.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33.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38.8%)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8.9%), 만난 경험 있음(40.0%),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8.0%)

사. 남북 단일국가와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때 내 의견이 옳기 때문이다

- ‘남북 단일국가와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때 내 의견이 옳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9.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7%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54.1%)이 여성(44.7%)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61.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40.4%)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의 경우 여성(43.2%)이 남성(38.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52.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9.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47.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보수(51.9%)와 진보(51.8%)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57.1%)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43.8%)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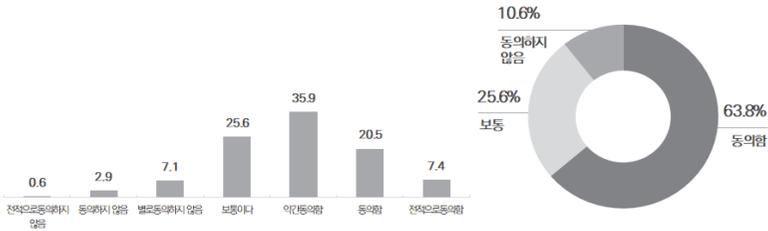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7.1%), 300~500만원 미만(48.1%), 500만원 이상(56.1%)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55.8%)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아.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국)에게 최선의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국)에게 최선의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3.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6%로 나타남

평균점수 : 4.84점

[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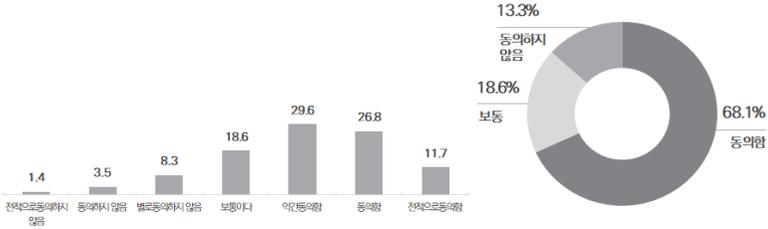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8.8%)이 여성(57.7%)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67.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56.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61.5%, 여성: 59.5%), 30대(남성: 68.8%, 여성: 38.6%), 40대(남성: 66.7%, 여성: 61.8%), 50대(남성: 70.7%, 여성: 64.4%), 60대 이상(남성: 74.3%, 여성: 59.6%)
- 종교별로 보면 불교(70.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50.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0.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8.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71.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56.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67.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2.8%), 만난 경험 있음(65.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8.0%)

자.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8.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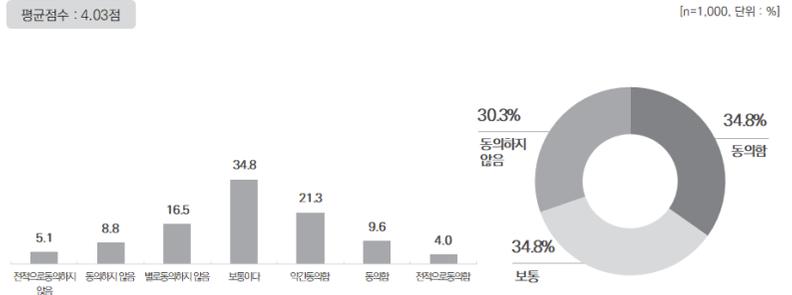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40대(76.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60.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9.6%, 여성: 67.6%), 40대(남성: 74.7%, 여성: 78.2%), 60세 이상(남성: 66.2%, 여성: 73.0%)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64.1%, 여성: 54.5%)와 50대(남성: 72.0%, 여성: 62.7%)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70.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66.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3.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63.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71.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61.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0.3%), 300~500만원 미만(68.4%), 500만원 이상(70.9%)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8.7%), 만난 경험 있음(67.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4.0%)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3.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가. 남북 단일국가를 반대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할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남북 단일국가를 반대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할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34.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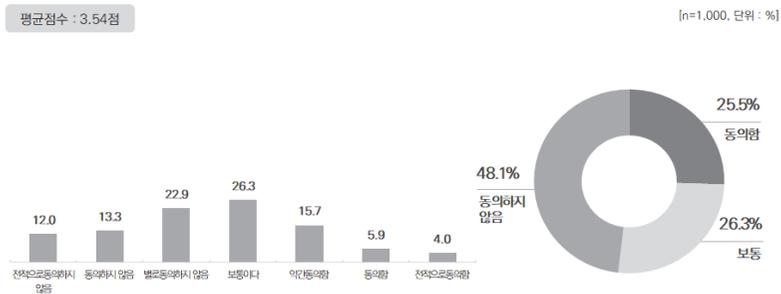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35.9%)이 남성(33.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40.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28.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25.0%, 여성: 29.7%)와 50대(남성: 32.1%, 여성: 43.6%), 60세 이상(남성: 36.4%, 여성: 38.6%)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의 경우 남성(44.0%)이 여성(38.1%)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남성: 28.2%, 여

성: 28.9%)

- 종교별로 보면 불교(42.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27.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44.0%)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26.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55.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27.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0.9%), 300~500만원 미만(32.3%), 500만원 이상(39.7%)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60.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나. 나는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나는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25.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1%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26.9%)이 여성(24.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32.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17.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25.0%, 여성: 13.5%), 40대(남성: 28.0%, 여성: 16.7%), 60세 이상(남성: 27.3%, 여성: 21.1%)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의 경우 여성(41.0%)이 남성(21.4%)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남성: 30.8%, 여성: 31.1%)
- 종교별로 보면 불교(32.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20.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27.4%)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23.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35.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22.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2.0%), 300~500만원 미만(24.1%), 500만원 이상(22.6%)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40.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다. 어떤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나쁜 것이 있기 때문이다.

- ‘어떤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나쁜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6.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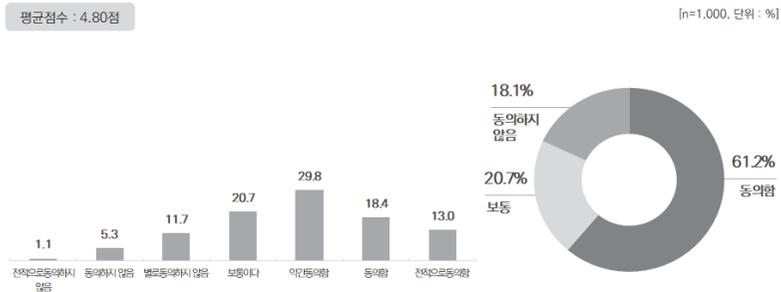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7.3%)이 남성(54.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7.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46.4%)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45.0%, 여성: 59.5%), 40대(남성: 44.0%, 여성: 54.8%), 50대(남성: 50.0%, 여성: 64.1%)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1.3%, 여성: 42.2%)와 60세 이상(남성: 70.5%, 여성: 64.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2.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51.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2.8%)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3.5%)와 진보(52.7%)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70.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52.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7.7%), 300~500만원 미만(55.6%), 500만원 이상(55.5%)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80.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라.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1.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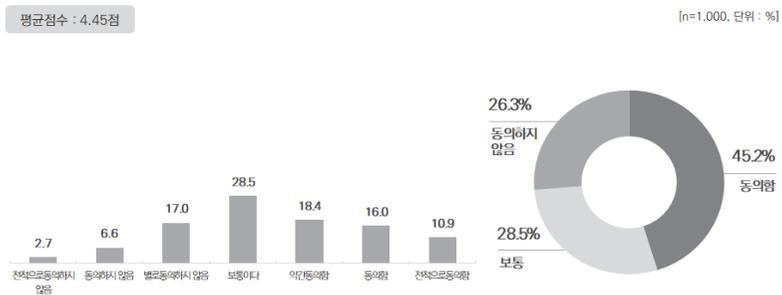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4.1%)이 여성(59.1%)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8.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52.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6.4%, 여성: 53.3%), 50대(남성: 78.6%, 여성: 59.0%), 60세 이상(남성: 75.0%, 여성: 63.2%)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55.0%, 여성: 64.9%)와 40대(남성: 48.0%, 여성: 54.8%)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7.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55.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1.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56.0%)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8.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55.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63.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67.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마. 남북 단일국가를 반대하는 내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남북 단일국가를 반대하는 내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5.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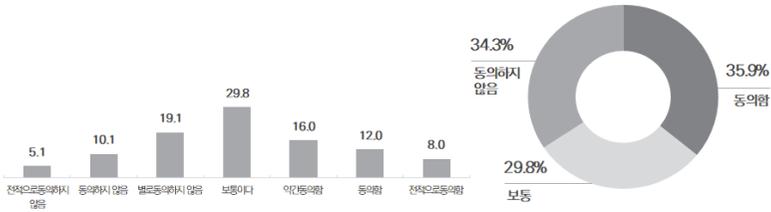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6.2%)이 여성(44.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54.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35.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의 경우 여성(47.6%)이 남성(16.0%)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60.0%)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0.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7.8%)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40.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75.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34.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300만원 미만(40.2%), 300~500만원 미만(46.6%), 500만원 이상(47.3%)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53.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바. 남북 단일국가를 반대하는 내 생각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남북 단일국가를 반대하는 내 생각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35.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37.2%)이 여성(35.0%)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43.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25.4%)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20.0%, 여성: 40.5%), 40대(남성: 24.0%, 여성: 26.2%), 50대(남성: 35.7%, 여성: 48.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43.6%, 여성: 20.0%)와 60세 이상(남성: 47.7%, 여성: 40.4%)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44.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32.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1.6%)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31.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0.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28.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39.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40.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사. 남북 단일국가와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때 내 의견이 옳기 때문이다.

- ‘남북 단일국가와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때 내 의견이 옳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3.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2%로 나타남

평균점수 : 4.98점

[n=1,000. 단위 : %]



- 성별로 보면 남성(70.5%)이 여성(58.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2.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56.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40대의 경우 여성(61.9%)이 남성(60.0%)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73.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60.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7.0%)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57.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80.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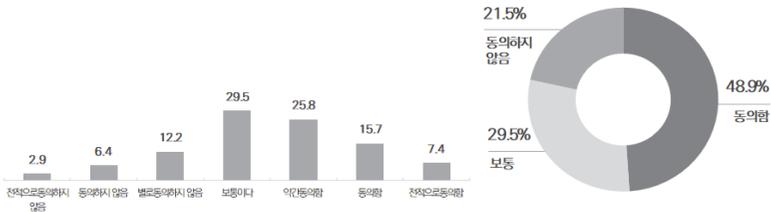
- 고, 광주/전라 지역(56.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4.6%), 300~500만원 미만(61.7%), 500만원 이상(70.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82.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아.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지 않는 것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국)에게 최선의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지 않는 것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국)에게 최선의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48.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5%로 나타남

평균점수 : 4.46점

[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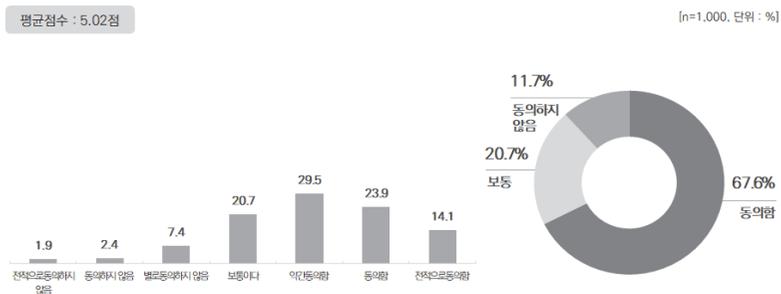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1.9%)이 여성(46.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61.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38.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의 경우 여성(51.1%)이 남성(48.7%)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55.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44.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51.6%)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46.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0.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44.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52.1%)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60.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자.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지 않는 것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지 않는 것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67.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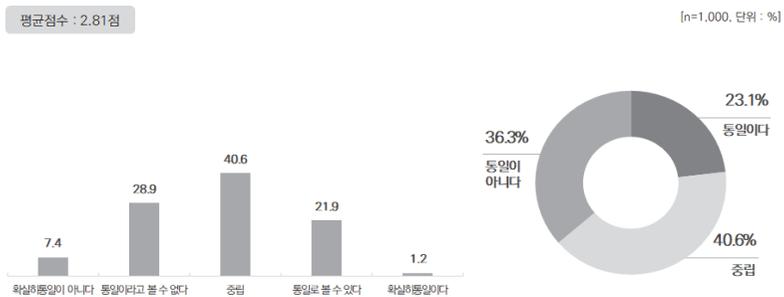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8.6%)이 여성(66.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6.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61.4%)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60.0%, 여성: 62.2%), 40대(남성: 60.0%, 여성: 71.4%), 50대(남성: 60.7%, 여성: 71.8%)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69.2%, 여성: 55.6%)와 60세 이상(남성: 81.8%, 여성: 71.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8.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62.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0.8%)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64.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76.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57.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3.9%), 300~500만원 미만(64.7%), 500만원 이상(72.6%)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6.3%), 만난 경험 있음(72.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80.0%)

4. 통일의 의미

가.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해외여행 가는 정도의 법적 절차를 따라 인적 왕래 및 단기 거주가 가능한 상태

-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해외여행 가는 정도의 법적 절차를 따라 인적 왕래 및 단기 거주가 가능한 상태’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23.1%가 ‘통일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통일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36.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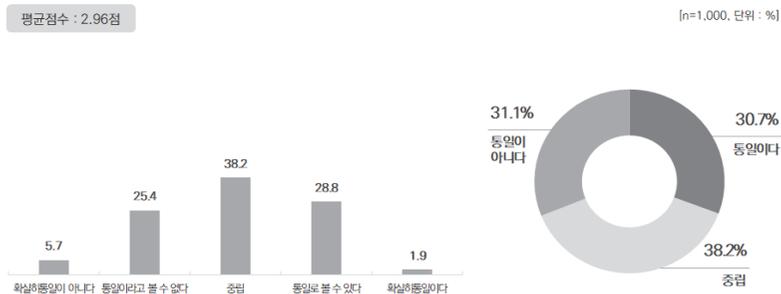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50대(28.9%)에서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18.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15.5%, 여성: 21.0%)와 40대(남성: 22.0%, 여성: 29.9%)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남성: 25.4%, 여성: 19.2%)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19.8%, 여성: 19.5%)와 50대(남성: 29.1%, 여성: 28.6%)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29.5%)에서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 가장 높고, 무교(20.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0.1%)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18.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28.6%)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17.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0.2%), 300~500만원 미만(21.2%), 500만원 이상(26.0%)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0.5%), 만난 경험 있음(29.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33.3%)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나.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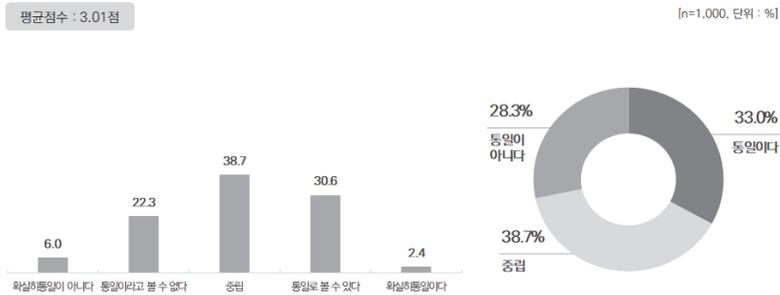
-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된 상태’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30.7%가 ‘통일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통일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31.1%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29.4%)이 남성(31.9%)보다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34.0%)에서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23.0%)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29.7%, 여성: 36.6%), 40대(남성: 32.0%, 여성: 36.1%), 50대(남성: 28.2%, 여성: 36.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남성: 33.1%, 여성: 28.1%)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남성: 22.6%, 여성: 23.5%)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35.3%)에서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27.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6.1%)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27.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36.6%)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23.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7.2%), 300~500만원 미만(28.4%), 500만원 이상(34.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9.0%), 만난 경험 있음(33.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0.0%)

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남북공동평의회, 각료회의 등 남북연합 기구를 창설, 운영하는 상태

-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남북공동평의회, 각료회의 등 남북연합 기구를 창설, 운영하는 상태’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33.0%가 ‘통일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통일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28.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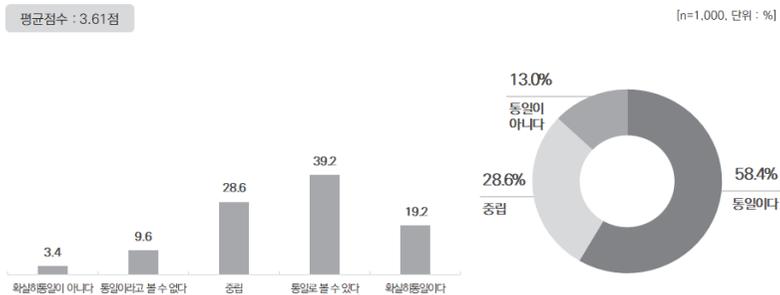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35.3%)이 남성(30.6%)보다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37.1%)에서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28.0%)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의 경우 남성(33.3%)이 여성(23.5%)보다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35.4%)에서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30.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9.5%)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27.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41.5%)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26.5%)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9.1%), 300~500만원 미만(31.3%), 500만원 이상(36.2%)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0.6%), 만난 경험 있음(36.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라. 통일헌법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단일정부, 단일 국회를 구성 두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하는 상태

- ‘통일헌법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단일정부, 단일 국회를 구성 두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하는 상태’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8.4%가 ‘통일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통일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13.0%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60.5%)이 여성(56.3%)보다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63.5%)에서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53.9%)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61.9%, 여성: 45.7%), 40대(남성: 69.0%, 여성: 57.7%), 60세 이상(남성: 61.9%, 여성: 56.2%)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1.6%, 여성: 62.2%)와 50대(남성: 57.3%, 여성: 59.2%)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무교(61.6%)에서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49.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68.7%)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51.0%)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62.7%)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51.0%)과 부산/울산/경남 지역(51.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49.8%), 300~500만원 미만(56.8%), 500만원 이상(63.8%)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60.7%)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5. 대북·통일정책

가.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북한 취약계층(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북한 취약계층(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6.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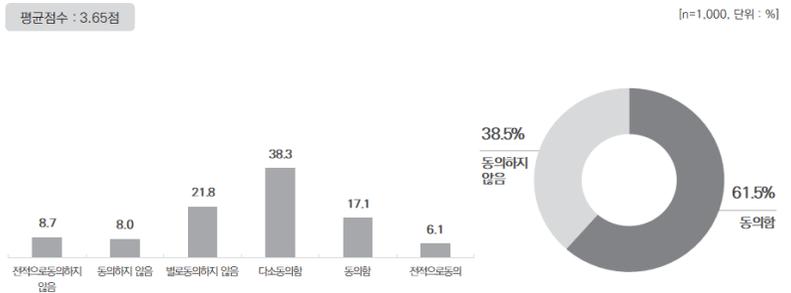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40대(73.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60.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72.6%, 여성: 63.0%), 40대(남성: 76.0%, 여성: 71.1%), 60세 이상(남성: 64.4%, 여성: 61.6%)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54.9%, 여성: 67.1%)와 50대(남성: 65.0%, 여성: 67.3%)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69.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60.9%)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9.9%)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52.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73.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58.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9.6%), 300~500만원 미만(67.2%), 500만원 이상(68.3%)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71.8%)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나. 한국 정부는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는 대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UN에 요청하여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는 대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UN에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1.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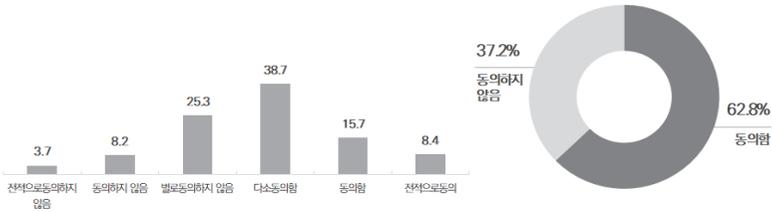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63.9%)이 남성(59.1%)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68.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56.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54.9%, 여성: 57.3%), 50대(남성: 57.3%, 여성: 74.5%), 60세 이상(남성: 50.0%, 여성: 61.6%)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남성: 64.3%, 여성: 59.3%)와 40대(남성: 71.0%, 여성: 66.0%)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65.9%)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외 종교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3.0%)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2.2%)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8.3%)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54.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7.3%), 300~500만원 미만(62.6%), 500만원 이상(62.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0.6%), 만난 경험 있음(63.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다. 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한과의 협상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 ‘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한과의 협상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란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2%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50대(67.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59.9%)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남성: 52.0%, 여성: 68.0%), 50대(남성: 66.0%, 여성: 68.4%), 60세 이상(남성: 57.6%, 여성: 63.0%)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68.1%, 여성: 57.3%)와 30대(남성: 71.4%, 여성: 56.8%)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66.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60.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3.9%)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62.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69.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53.7%)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0.1%), 300~500만원 미만(62.6%), 500만원 이상(64.3%)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64.3%), 만난 경험 있음(58.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0%)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위반이다.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위반이다’란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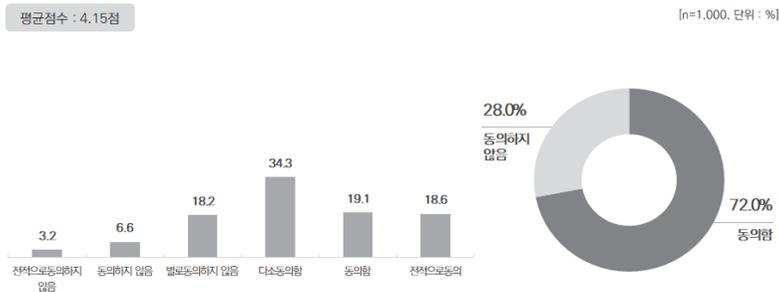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4.8%)이 여성(44.2%)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58.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42.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75.8%, 여성: 39.0%), 30대(남성: 58.3%, 여성: 48.1%), 40대(남성: 46.0%, 여성: 38.1%), 50대(남성: 48.5%, 여성: 46.9%), 60대 이상(남성: 49.2%, 여성: 47.3%)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55.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46.5%)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60.7%)가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진보(35.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54.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46.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50.4%)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8.1%), 만난 경험 있음(52.4%),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0%)

마.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군사력강화에 활용될 것이다.

-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될 것이다'란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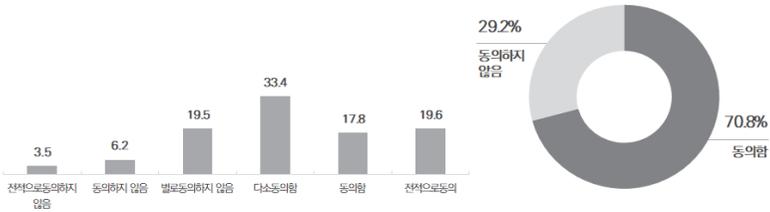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72.4%)이 남성(71.6%)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75.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65.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81.3%, 여성: 65.9%), 30대(남성: 76.2%, 여성: 74.1%), 60세 이상(남성: 79.7%, 여성: 73.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남성: 58.0%, 40세 여성: 73.2%)와 50대(남성: 63.1%, 여성: 74.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7.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68.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82.4%)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59.6%)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80.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63.3%)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72.8%)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76.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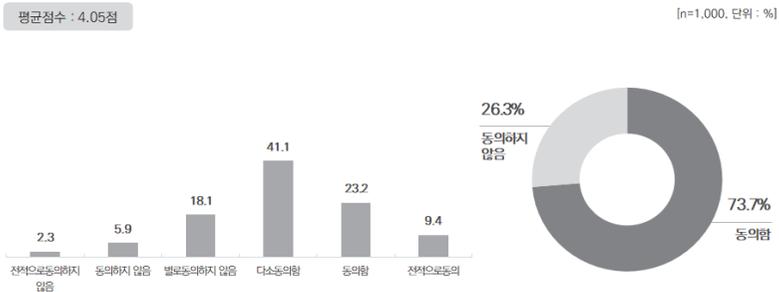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71.6%)이 남성(70.0%)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75.0%)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64.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70.2%, 여성: 74.1%), 40대(남성: 60.0%, 여성: 69.1%), 50대(남성: 68.0%, 여성: 72.4%)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76.9%, 여성: 64.6%)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60세 이상(남성: 74.6%, 여성: 75.3%)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76.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66.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7.9%)가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진보(61.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87.8%)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67.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9.5%), 300~500만원 미만(70.7%), 500만원 이상(71.5%)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9.9%), 만난 경험 있음(72.2%),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80.0%)

사. 남북관계를 민족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 ‘남북관계를 민족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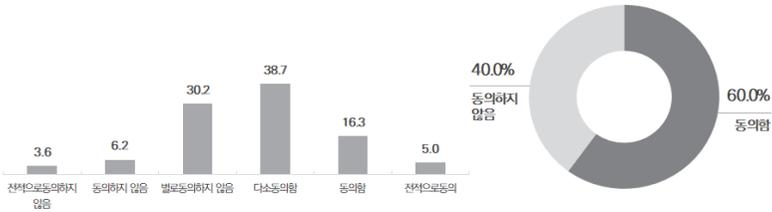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75.0%)이 남성(72.4%)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76.3%), 30대(75.8%), 40대(73.1%), 50대(72.1%), 60대 이상(72.3%)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73.8%, 여성: 77.8%), 40대(남성: 67.0%, 여성: 79.4%)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78.0%, 여성: 74.4%)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50대(남성: 71.8%, 여성: 72.4%)와 60세 이상(남성: 72.0%, 여성: 72.6%)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77.6%)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67.8%)가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76.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72.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80.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지역(69.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71.8%), 300~500만원 미만(72.8%), 500만원 이상(75.3%)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 만난 적 없음(73.7%), 만난 경험 있음(73.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3.3%)

아. 남한과 북한의 거래는 1:1 대칭이 되어야지만 추진해야 한다.

- ‘남한과 북한의 거래는 1:1 대칭이 되어야지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0.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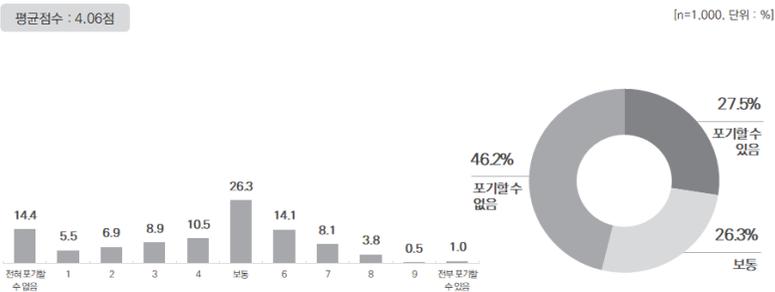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61.1%)이 여성(58.9%)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63.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65.9%, 여성: 58.5%), 30대(남성: 64.3%, 여성: 63.0%), 40대(남성: 64.0%, 여성: 56.7%)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59.2%, 여성: 62.2%)와 60세 이상(남성: 54.2%, 여성: 56.2%)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62.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56.4%)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64.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56.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61.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59.3%), 만난 경험 있음(61.1%),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6. 핵무기 포기를 위한 경제적 희생

가. 위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귀하는 남한의 평균적인 삶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화 될 때 남한의 평균적인 삶의 기준의 포기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7.5%가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포기할 수 없다’는 응답은 46.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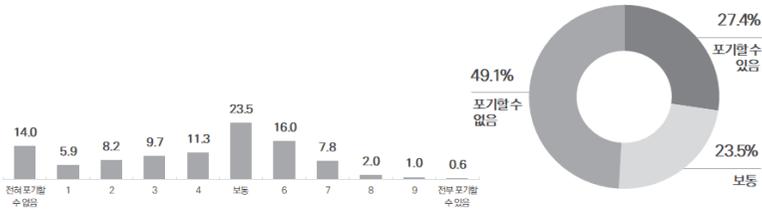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4.1%)이 여성(21.0%)보다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30.3%)에서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24.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30.8%, 여성: 22.0%), 30대(남성: 38.1%, 여성: 22.2%), 40대(남성: 40.0%, 여성: 17.5%), 50대(남성: 33.0%, 여성: 24.5%), 60대 이상(남성: 29.7%, 여성: 19.9%)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31.8%)에서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25.4%)가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6.1%)에서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24.2%)와 중도(23.1%)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34.7%)이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23.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17.8%), 300~500만원 미만(28.4%), 500만원 이상(31.4%)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6.0%), 만난 경험 있음(30.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36.7%)

나. 위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귀하의 가족은 남한의 평균적인 삶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 할까요?

-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화 될 때 귀하의 가족 입장에서 남한의 평균적인 삶의 기준에 대한 포기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7.4%가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포기할 수 없다’는 응답은 49.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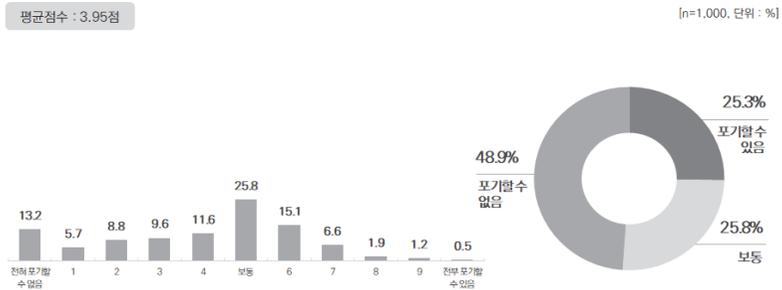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2.3%)이 여성(22.6%)보다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30.3%)에서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23.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27.5%, 여성: 19.5%), 30대(남성: 38.1%, 여성: 22.2%), 40대(남성: 40.0%, 여성: 18.6%), 50대(남성: 30.1%, 여성: 27.6%), 60대 이상(남성: 27.1%, 여성: 24.0%)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33.6%)에서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24.4%)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6.7%)가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21.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35.7%)이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인천/경기 지역(26.8%)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19.2%)이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4.9%), 만난 경험 있음(31.7%),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0.0%)

다. 위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귀하의 친구는 남한의 평균적인 삶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 할까요?

-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화 될 때 귀하의 친구 입장에서 남한의 평균적인 삶의 기준에 대한 포기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5.3%가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포기할 수 없다’는 응답은 48.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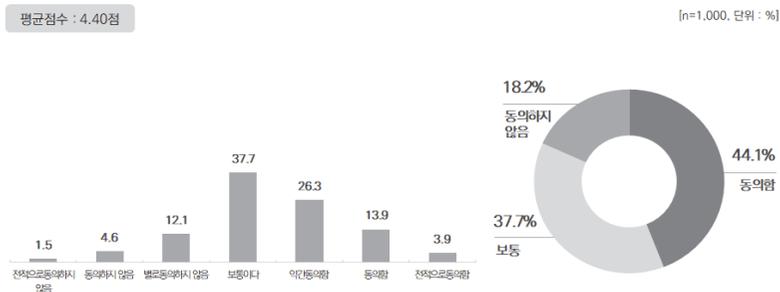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0.4%)이 여성(20.2%)보다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40대(30.5%)에서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20대(20.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의 경우 여성(27.6%)이 남성(24.3%)보다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29.9%)에서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22.8%)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3.5%)가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21.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30.6%)이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21.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14.6%)가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없는 응답자(23.3%)가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음

7. 북한문제 이해도에 대한 평가

가. 나는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 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

-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44.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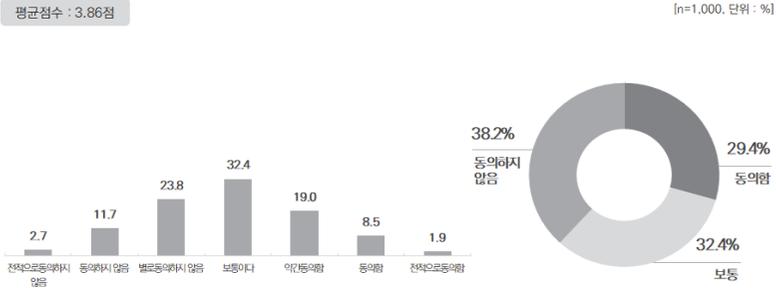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52.2%)이 여성(36.1%)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55.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33.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9.5%, 여성: 23.2%), 30대(남성: 39.3%, 여성: 27.2%), 40대(남성: 54.0%, 여성: 33.0%), 50대(남성: 59.2%, 여성: 52.0%), 60대 이상(남성: 55.9%, 여성: 39.7%)
- 종교별로 보면 불교(51.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38.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3.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33.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45.6%) 및 인천/경기 지역(45.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41.0%)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1.5%), 300~500만원 미만(42.6%), 500만원 이상(51.4%)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난 적 없음(39.4%), 만난 경험 있음(56.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나. 나에게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로 복잡하지 않다

-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별로 복잡하지 않다’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29.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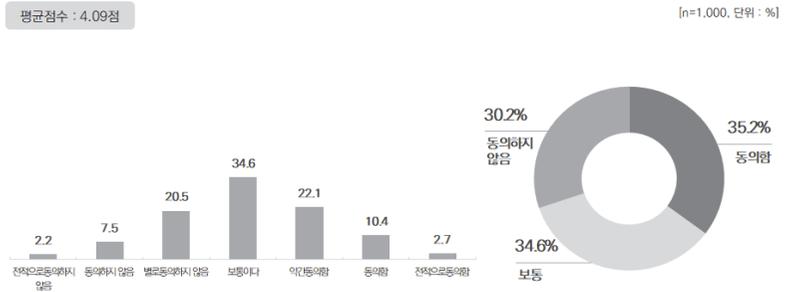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6.1%)이 여성(22.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32.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26.1%)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0.7%, 여성: 19.5%), 30대(남성: 33.3%, 여성: 18.5%), 40대(남성: 35.0%, 여성: 23.7%), 50대(남성: 39.8%, 여성: 25.5%), 60대 이상(남성: 32.2%, 여성: 24.7%)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31.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27.0%)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3.9%)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24.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40.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24.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3.5%), 300~500만원 미만(28.7%), 500만원 이상(32.8%)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7.9%), 만난 경험 있음(31.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0.0%)

다. 나에게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라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35.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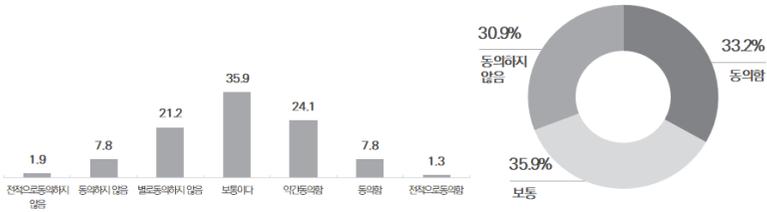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4.8%)이 여성(25.8%)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층대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34.1%), 30대(29.1%), 40대(36.5%), 50대(36.3%), 60대 이상(37.9%)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47.3%, 여성: 19.5%), 30대(남성: 38.1%, 여성: 19.8%), 40대(남성: 44.0%, 여성: 28.9%), 50대(남성: 41.7%, 여성: 30.6%), 60대 이상(남성: 50.8%, 여성: 27.4%)
- 종교별로 보면 불교(39.7%)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32.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1.4%)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29.5%)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42.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31.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7.7%), 300~500만원 미만(32.5%), 500만원 이상(41.0%)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2.6%), 만난 경험 있음(38.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0.0%)

라. 우리국민은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

- ‘우리국민은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33.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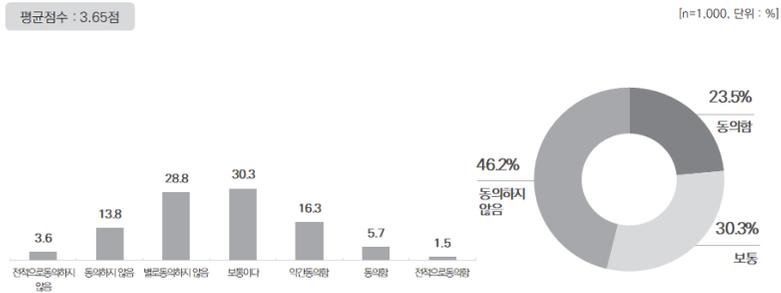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8.9%)이 여성(27.6%)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50대(40.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26.7%)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35.2%, 여성: 22.0%), 30대(남성: 34.5%, 여성: 18.5%), 40대(남성: 42.0%, 여성: 27.8%), 50대(남성: 43.7%, 여성: 37.8%), 60대 이상(남성: 38.1%, 여성: 28.8%)
- 종교별로 보면 불교(42.0%)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26.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40.4%)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27.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43.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29.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5.4%), 300~500만원 미만(33.0%), 500만원 이상(37.1%)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31.5%), 만난 경험 있음(36.9%),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43.3%)

마. 우리나라에게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로 복잡하지 않다.

- ‘우리국민은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로 복잡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3.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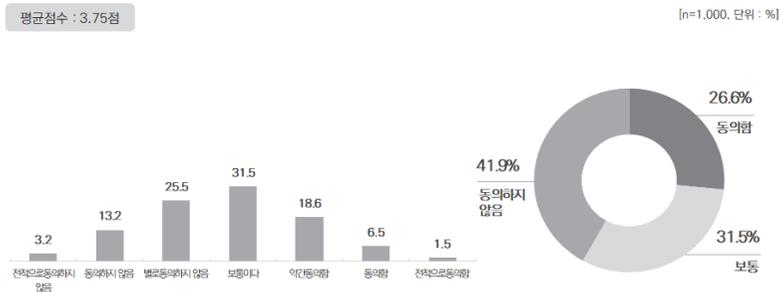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0.8%)이 여성(16.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27.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22.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38.5%, 여성: 14.6%), 30대(남성: 32.1%, 여성: 12.3%), 40대(남성: 29.0%, 여성: 15.5%), 50대(남성: 25.2%, 여성: 20.4%), 60대 이상(남성: 30.5%, 여성: 17.1%)

- 종교별로 보면 불교(27.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20.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22.2%)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보수(24.6%)와 진보(24.5%)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34.7%)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19.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18.3%), 300~500만원 미만(22.6%), 500만원 이상(26.7%)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1.2%), 만난 경험 있음(26.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53.3%)

바. 우리국민에게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우리국민은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6.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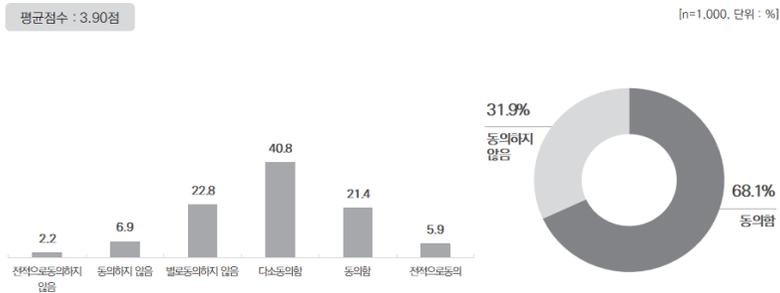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31.3%)이 여성(22.0%)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28.8%)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21.8%)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36.3%, 여성: 18.3%), 30대(남성: 27.4%, 여성: 16.0%), 40대(남성: 29.0%, 여성: 24.7%), 50대(남성: 28.2%, 여성: 24.5%), 60대 이상(남성: 34.7%, 여성: 24.0%)
- 종교별로 보면 불교(30.5%)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24.2%)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28.2%)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25.8%)와 중도(25.9%)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41.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 지역(19.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23.5%), 300~500만원 미만(24.6%), 500만원 이상(29.6%)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24.1%), 만난 경험 있음(29.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0%)

8. 올림픽에 대한 평가

가. 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할 지 예상하지 못했다.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8.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9%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71.0%)이 남성(65.1%)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73.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63.3%)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67.0%, 여성: 75.6%), 40대(남성: 62.0%, 여성: 72.2%), 60세 이상(남성: 54.2%, 여성: 70.5%)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76.7%, 여성: 70.4%)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남성: 67.9%, 여성: 66.7%)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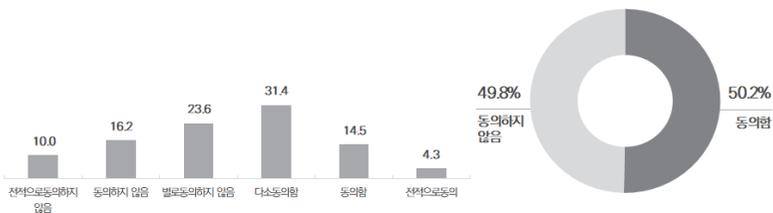
- 종교별로 보면 무교(70.1%)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62.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4.0%)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64.8%)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72.4%)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63.7%)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66.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9.2%), 만난 경험 있음(65.5%),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나. 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접하기 전까지 남북단일팀이 있었는지 잘 몰랐다.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접하기 전까지 남북단일팀이 있었는지 잘 몰랐다’라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50.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8%로 나타남

평균점수 : 3.37점

[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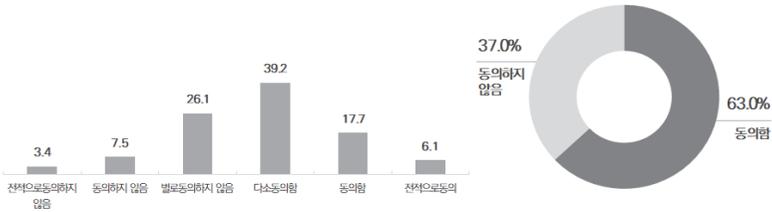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54.8%)이 남성(45.6%)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58.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46.2%)이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의 경우 남성(54.8%)이 여성(50.6%)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55.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46.6%)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52.9%)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47.1%)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65.9%)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경기(47.1%) 및 대구/경북 지역(47.1%)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52.1%), 300~500만원 미만(51.9%), 500만원 이상(48.0%)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9.0%), 만난 경험 있음(52.0%),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다. 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라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0%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64.1%)이 남성(61.9%)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72.3%), 30대(67.3%), 40대(62.4%), 50대(59.2%), 60대 이상(57.6%)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남성: 75.8%, 여성: 68.3%), 30대(남성: 69.0%, 여성: 65.4%), 40대(남성: 63.0%, 여성: 61.9%)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남성: 56.3%, 여성: 62.2%)와 60세 이상(남성: 50.0%, 여성: 63.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불교(64.4%)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천주교(62.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66.8%)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60.7%)와 중도(61.6%)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지역(70.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55.9%)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만남 적 없음(64.5%), 만남 경험 있음(58.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6.7%)

○ 월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라. 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단일팀 구성을 반대할 것이다.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단일팀 구성을 반대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41.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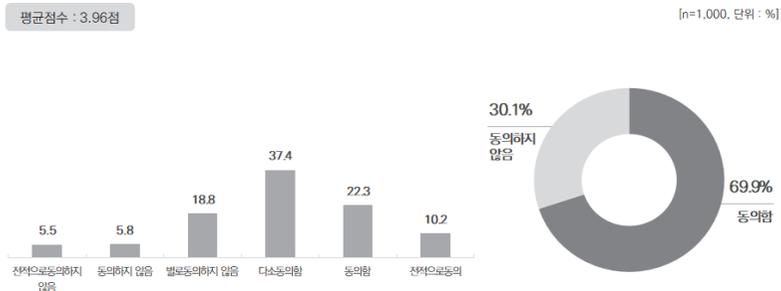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47.0%)이 여성(36.7%)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20대(50.9%), 30대(47.9%), 40대(40.1%), 50대(40.3%), 60대 이상(34.5%)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62.6%, 여성: 37.8%), 30대(남성: 52.4%, 여성:

43.2%), 40대(남성: 43.0%, 여성: 37.1%), 50대(남성: 45.6%, 여성: 34.7%), 60대 이상(남성: 35.6%, 여성: 33.6%)

- 종교별로 보면 불교(46.0%)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독교(38.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9.6%)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33.9%)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46.5%)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제주 지역(34.1%)이 가장 낮음
- 북한이탈주민과 정기적으로 교류가 있는 응답자들(60.0%)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월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마. 남북올림픽 단일팀은 세계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

- ‘남북올림픽 단일팀은 세계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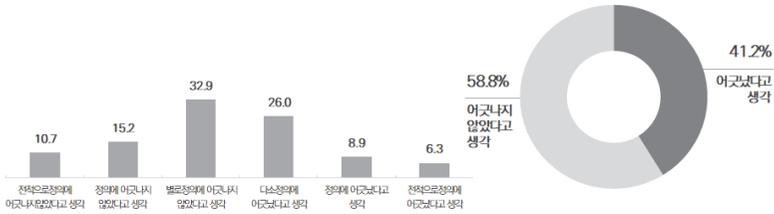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여성(72.0%)이 남성(67.7%)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 보면 60세 이상(72.3%)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67.2%)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남성: 71.4%, 여성: 66.7%)와 50대(남성: 68.0%, 여성: 66.3%)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남성: 60.4%, 여성: 75.6%)와 60세 이상(남성: 66.9%, 여성: 76.7%)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교별로 보면 천주교(71.6%)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무교(69.3%)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83.7%)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보수(55.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73.2%)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 지역(61.9%)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63.4%), 300~500만원 미만(69.9%), 500만원 이상(73.1%)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68.7%), 만난 경험 있음(72.6%),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76.7%)

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당시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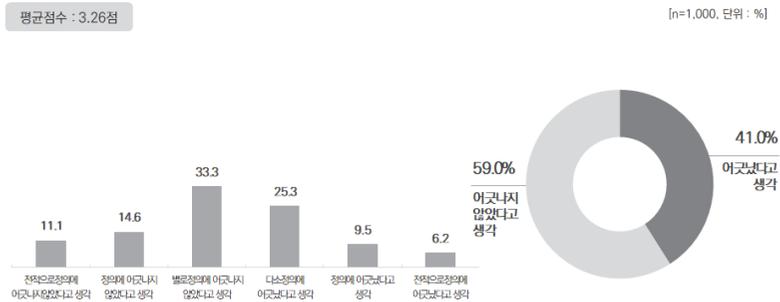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기에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정의와 공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41.2%는 어긋났다고 생각한 반면, 58.8%는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48.0%)이 여성(34.5%)보다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49.1%)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35.5%)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62.6%, 여성: 34.1%), 30대(남성: 34.1%, 여성: 33.3%), 40대(남성: 39.0%, 여성: 32.0%), 50대(남성: 44.7%, 여성: 38.8%), 60대 이상(남성: 42.4%, 여성: 34.2%)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44.7%)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39.1%)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2.0%)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31.3%)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50.0%)이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전/충청/세종 지역(32.4%)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43.0%)인 응답자들이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1.1%), 만난 경험 있음(39.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0.0%)

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정의와 공정에 대한 현재의 생각

-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봤을 때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정의와 공정에 어긋났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41.0%는 어긋났다고 생각한 반면, 59.0%는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49.0%)이 여성(33.1%)보다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47.4%)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38.6%)에서 가장 낮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남성: 60.4%, 여성: 32.9%), 30대(남성: 54.8%, 여성: 30.9%), 40대(남성: 44.0%, 여성: 34.0%), 50대(남성: 45.6%, 여성: 31.6%), 60대 이상(남성: 43.2%, 여성: 34.9%)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42.4%)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39.7%)에서 가장 낮음
-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52.0%)가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30.7%)가 가장 낮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지역(52.0%)이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 지역(30.6%)이 가장 낮음
-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미만(38.0%), 300~500만원 미만(40.6%), 500만원 이상(42.8%)
-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만난 적 없음(40.0%), 만난 경험 있음(41.3%),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63.3%)

2019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통일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조사로, 우리 국민의 평화, 전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본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 국민의 평화, 전쟁, 통일에 대한 의식을 더 잘 이해하고 통일대북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들 약 1,300명을 대상으로 5월-6월 사이에 진행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서 묻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질문을 듣거나 보고 생각나는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설문조사는 한 시간 이내로 진행될 예정이며, 귀하께서 본 설문에 참여하실 경우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는 자료처리 후 폐기 처리됩니다.

이 조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통일연구원 박주화 부연구위원이며,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는 통일연구원의 보안심사를 거쳐 공공자료로 공개될 수 있고 연구 보고서, 학술논문, 전문잡지 등 학술정보로 출판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가 공공자료로 공개되거나, 학술정보로 이용될 때 귀하의 이름은 물론 식별 가능한 다른 어떤 개인 정보도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신원(성별, 연령)에 대한 정보는 통계적인 내용만(예를 들면 '서울 에 거주중인 120명 응답자의 50%는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4.4세였다') 발표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답례품이 금품일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에 의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관 및 파기될 것입니다. 본 조사결과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귀하가 받을 수 있는 피해는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니다. 귀하는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귀하가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언제든지 이 조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결정이 귀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었습니다.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설문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박주화 부연구위원(02-2023-8140)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만일 향후에 연구 대상자의 권익에 피해를 주는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으면 연구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으며, 연구참가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통일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02-2023-8056)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박주화 부연구위원

주관 기관	 통일연구원 <small>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small>	수행 기관	닐슨컴퍼니코리아(유)
		연구 담당	손일란 대리 / 조창우 연구원
		문의 사항	☎ 02-2122-7123

※ 설명해드린 내용을 읽고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자료가 통일연구원의 보안심사를 거쳐 **공공자료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자료가 **학술정보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응답자 선정 질문 (※ 면접원 기재)				
SQ1.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2. 거주지역 크기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SQ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4. 올해 귀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 만 19세 미만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면접 중단		

평화와 전쟁의 심리적 표상

문1. "평화"라는 단어를 듣고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 세 개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순서	떠오르는 단어
(1)	
(2)	
(3)	

문2. "전쟁"이라는 단어를 듣고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 세 개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순서	떠오르는 단어
(1)	
(2)	
(3)	

가치관 & 개인적 성향

우익권위주의

문3.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8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1점)' - '전적으로 찬성한다(7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반대	반대	약간 반대	보통이다	약간 찬성	찬성	전적으로 찬성
1	2	3	4	5	6	7

주 장	응답칸
1)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많은 선동가들의 말을 무시해야 한다. 국가의 정당한 권위자들에 따른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언제나 낫다.	
2)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낙태, 포르노그래피, 결혼에 대한 신성한 도덕적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3)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것들을 파괴하려는 급진주의자,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많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막아야 한다.	
4) 최근의 범죄, 성(性)적 부도덕과 사회무질서를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과 인물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5) 정부는 질 낮고 역겨우며 혐오스러운 내용을 포함한 언론이나 인터넷을 검열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6)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적 권리가 아니라 강력한 법과 질서이다	
7)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방식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8)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악함을 제거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고한 지도자이다.	

사회지배성향

문4.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8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1점)' - '전적으로 찬성한다(7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반대	반대	약간 반대	보통이다	약간 찬성	찬성	전적으로 찬성
1	2	3	4	5	6	7

문 항	응답칸
1) 열등한 개인, 집단과 계층은 자신들의 주제에 맞게 주어진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2) 우월한 계층 또는 집단이 상위에 있고 열등한 계층과 집단은 하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간 위계가 분명해야 한다. 어떤 계층은 상위에, 다른 계층은 하위에 있어야 한다.	
4) 세상에는 남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이 있다.	
5)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개인과 계층에게 동일하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우리는 모든 사람과 계층에게 동일한 삶의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살면서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8) 사람 간, 계층 간 평등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보편적 10개 가치

문5. 다음으로 귀하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인생의 지침, 삶의 원칙으로서 각 가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각 가치들에 대해 '나의 원칙과 지침과 반대이다(-1점)', '전적으로 중요하지 않다(0점)' '중요하다(3점)', '전적으로 중요하다(7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침과 원칙에 반대	전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전적으로 중요함
-1	0	1	2
3	4	5	6
7			

문 항	응답칸
1) 권력(사회적 힘, 권위, 경제적 부)	
2) 성취(성공, 유능, 야심, 사람과 사건(일)에 대한 영향력)	
3) 쾌락(욕구의 만족, 즐거운 삶을 추구, 방종)	
4) 자극(대범함, 다양한 삶, 도전하는 사람, 흥분되는 삶)	
5) 자율(창의성, 자유, 호기심, 독립심,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결정)	
6) 보편주의(편견이 없는, 자연과 예술의 존중, 사회적 정의, 평화로운 세상, 평등, 지혜, 자연과의 조화, 환경보호)	
7) 박애(도움이 되는, 정직함, 용서, 충실함, 책임감)	
8) 전통(전통에 대한 존중, 겸손함, 헌신, 겸양, 자신의 지위에 만족(안분지족))	
9) 동조(복종,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존경, 자기수양, 공손함과 정중함)	
10) 안전(국가안보, 가정의 안전, 사회적 질서, 단정함, 호의에 대한 보답)	

보편적 가치(2개 가치): 자기고양(self-enhancement) vs.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문6. 다음은 여러 사람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입니다. 각 설명을 읽고 아래 설명한 사람이 여러분과 얼마나 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래 설명이 귀하와 얼마나 비슷한지 '전적으로 같지 않다(1점)' - '전적으로 같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조금 같다	어느 정도 같다	같다	전적으로 같다
1	2	3	4	5	6

문 항	응답칸
1) 즐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	
2) 크게 성공하는 것이 그녀(그)에게는 중요하다.	
3)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지 지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	
4) 부유해 지는 것이 그녀(그)에게는 중요하다.	
5)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	
6)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녀(그)에게는 중요하다.	
7)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	
8)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들을 수용하는 것이 그녀(그)에게는 중요하다.	

조절 초점: 향상초점(promotional focus) vs. 예방초점(preventive focus)

문7. 아래의 문장들이 당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각 문장이 귀하를 나타내는 정도를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보통이다(3점)', '전적으로 동의한다(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1	2	3	4	5

문 항	응답칸
1) 나는 어떤 일을 성취한 후 고무되어 그 일을 더 열심히 한 적이 있다.	
2) 나는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들을 잘 해내는 편이다.	
3)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나는 계획대로 잘 진행하는 편이다.	
4)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흥미를 끌거나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취미나 활동들을 자주 발견했다.	
5)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께서 도를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6)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화내실 만한 일들은 하지 않았다.	
7) 나는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통제에 착실하게 따랐다.	
8)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들은 하지 않았다.	

미래-현재 지향성(future-immediate orientation)

문8. 다음으로 귀하의 사고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7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이다	약간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1	2	3	4	5	6	7

문 항	응답칸
1) 나는 미래의 일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현재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행동한다.	
2) 나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문제들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다.	
3) 미래의 결과들은 나중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4) 미래의 문제들은 나중에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행동한다.	
5) 나는 보통 달성하는 데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미래의 성과를 얻기 위해 행동에 착수한다.	
6) 나는 미래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행복이나 웰빙을 기꺼이 희생할 의향이 있다.	
7) 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몇 년 동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8)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이 결정이 미래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한다.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문9. 아래에는 사람들이 집단이나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생각과 느낌, 행동을 묻는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의 양 쪽 끝에 제시된 진술문을 잘 읽고, **A와 B의 방향으로 귀하가 동의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다음 해당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다소 동의한다(1점)' ~ '매우 동의한다'(3점) 사이의 점수에 응답**해주시시오.

1)	<p>Q.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상충하면</p> <p>A. 집단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 B. 개인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매우 동의</td> <td>동의</td> <td>다소 동의</td> <td></td> <td>다소 동의</td> <td>동의</td> <td>매우 동의</td> </tr> <tr> <td>③</td> <td>②</td> <td>①</td> <td></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매우 동의	동의	다소 동의		다소 동의	동의	매우 동의	③	②	①		①	②	③
매우 동의	동의	다소 동의		다소 동의	동의	매우 동의									
③	②	①		①	②	③									
2)	<p>Q. 집단 성공의 원동력은</p> <p>A. 구성원 간 협동이다. ← → B. 구성원 간 경쟁이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매우 동의</td> <td>동의</td> <td>다소 동의</td> <td></td> <td>다소 동의</td> <td>동의</td> <td>매우 동의</td> </tr> <tr> <td>③</td> <td>②</td> <td>①</td> <td></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매우 동의	동의	다소 동의		다소 동의	동의	매우 동의	③	②	①		①	②	③
매우 동의	동의	다소 동의		다소 동의	동의	매우 동의									
③	②	①		①	②	③									
3)	<p>Q. 나에게서 주위 사람들과</p> <p>A. 구별되는 나만의 특징이 중요하다 ← → B. 공유하는 공통된 특징이 중요하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매우 동의</td> <td>동의</td> <td>다소 동의</td> <td></td> <td>다소 동의</td> <td>동의</td> <td>매우 동의</td> </tr> <tr> <td>③</td> <td>②</td> <td>①</td> <td></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매우 동의	동의	다소 동의		다소 동의	동의	매우 동의	③	②	①		①	②	③
매우 동의	동의	다소 동의		다소 동의	동의	매우 동의									
③	②	①		①	②	③									
4)	<p>Q. 나는 함께 있는 상대방이나 상황에</p> <p>A. 상관없이 일관되게 행동한다. ← → B. 따라 종종 다르게 행동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매우 동의</td> <td>동의</td> <td>다소 동의</td> <td></td> <td>다소 동의</td> <td>동의</td> <td>매우 동의</td> </tr> <tr> <td>③</td> <td>②</td> <td>①</td> <td></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매우 동의	동의	다소 동의		다소 동의	동의	매우 동의	③	②	①		①	②	③
매우 동의	동의	다소 동의		다소 동의	동의	매우 동의									
③	②	①		①	②	③									

사회적 믿음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문10. 다음으로 현재 생활에 대한 귀하의 행복과 만족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행복)하지 않다(1점)' - '전적으로 만족(행복)한다(7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이다	약간 만족함	만족함	전적으로 만족함
1	2	3	4	5	6	7

문 항	응답칸
1) 현재 당신의 삶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2) 현재 당신의 객관적 생활조건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당신은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 당신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5) 당신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신의 객관적 생활조건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6) 당신이 바라는 이상과 비교하면 현재 당신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7) 당신이 바라는 이상과 비교하면 자신의 객관적 생활조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정치적 효능감

문11. 다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다음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를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보통이다(3점)', '전적으로 동의한다(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1	2	3	4	5

문 항	응답칸
1) 나 같은 일반시민들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정부는 나 같은 일반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3)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4) 나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보다 정치나 행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한국사회 공정성

문12. 다음에는 우리 사회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다음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를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보통이다(3점)', '전적으로 동의한다(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1	2	3	4	5

문 항	응답칸
1) 나의 노력에 비해 내가 처한 현실은 공정하지 않다.	
2) 한국은 재화와 기회의 분배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공정성 혁명"이 필요하다.	
3) 한국에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성별, 지역, 연령, 사회적 배경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	
4)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내 처지가 더 나아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집단과 갈등의 본질 변화가능성에 대한 믿음

문13. 다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다음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를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1	2	3	4	5	6

문 항	응답칸
1) 집단 또는 조직의 근본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다(노인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미국 속담은 맞는 것 같다.	
2) 집단이나 조직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3) 폭력적 집단은 그들의 행동 방식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4) 모든 집단이나 조직, 국가는 바꿀 수 없는 도덕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5) 설사 분쟁과 갈등에 관련된 모든 쟁점과 환경이 다루어지더라도, 분쟁(갈등)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6) 분쟁(갈등)의 본질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갈등)의 고유한 측면은 변할 수 없다.	
7) 분쟁(갈등)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분쟁(갈등)의 핵심과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불안감 (insecurity, concern)

문14. 다음으로 귀하께서 개인적인 영역이나 사회적인 영역에서 느끼는 불안정감 또는 불안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아래에 제시한 영역에서 느끼는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정감과 불안감을 느끼시는지 '전적으로 불안정하다(1점)', '보통이다(3점)', '전적으로 안정적이다(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보통이다	안정적이다	전적으로 안정적이다
1	2	3	4	5

	응답칸		응답칸
1) 건강 상황		8) 북한과의 갈등	
2) 나의 경제적 상황		9) 한국의 사회적 상황	
3) 직장생활		10) 노후문제	
4) 가족관계		11) 저출산 문제	
5) 국가적 실업률		12) 민주주의의 위기	
6) 국가의 경제 상황		13) 범죄 문제	
7) 외교관계			

민족정체성

문15. 다음에는 **한민족으로서** 귀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래 질문에 답해주시시오.

1) 전반적으로 귀하는 **한민족** 구성원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유사하지 않다	←-----보통-----→	전적으로 유사하다	
1.....2.....3.....4.....5.....6.....7.....8.....9			

2) 귀하는 **한민족**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전혀 동일시하지 않는다	←-----보통-----→	완전히 동일시한다	
1.....2.....3.....4.....5.....6.....7.....8.....9			

3) 귀하는 귀하가 **한민족**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전혀 기쁘지 않다	←-----보통-----→	완전히 기쁘다	
1.....2.....3.....4.....5.....6.....7.....8.....9			

4) 스스로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전혀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	완전히 애착을 느낀다	
1.....2.....3.....4.....5.....6.....7.....8.....9			

남한정체성

문16. 다음에는 **남한국민으로서** 귀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래 질문에 답해주시시오.

1) 전반적으로 귀하는 **남한** 국민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니까?

전혀 유사하지 않다	←----- 보통 -----→	-----→	전적으로 유사하다
1.....2.....3.....4.....5.....6.....7.....8.....9			

2) 귀하는 **남한**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전혀 동일시하지 않는다	←----- 보통 -----→	-----→	완전히 동일시한다
1.....2.....3.....4.....5.....6.....7.....8.....9			

3) 귀하는 귀하가 **남한**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전혀 기쁘지 않다	←----- 보통 -----→	-----→	완전히 기쁘다
1.....2.....3.....4.....5.....6.....7.....8.....9			

4) 귀하는 스스로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전혀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	←----- 보통 -----→	-----→	완전히 애착을 느낀다
1.....2.....3.....4.....5.....6.....7.....8.....9			

북한사람들과 한민족이라는 인식

문17. 다음으로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인식에 대해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를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보통이다(3점)', '전적으로 동의한다(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1	2	3	4	5

문 항	응답칸
1) 남한과 북한은 단일민족으로서 유사성이 높은 집단이다.	
2) 남한과 북한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으로 비슷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3) 남한과 북한은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 검열

문18.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1점)' - '전적으로 찬성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반대함	반대함	다소 반대함	다소 찬성함	찬성함	전적으로 찬성함
1	2	3	4	5	6

문 항	응답칸
1) 우리 집단, 또는 조직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내부 고발자들은 그 정보가 정확하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2) 우리 집단의 부정적인 측면을 노출시키는 사람들은 적들에게 돌아나는 것이다.	
3)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집단과 조직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4) 팩트에 부합하고 신뢰가 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부합하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분단체제의 심리(고질화된 갈등 집단의 사회적 믿음)

전쟁에 대한 태도

문19. 다음에는 남북한 간 전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1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5점)', '전적으로 찬성한다(9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전적으로 찬성한다
1.....2.....3.....4.....5.....6.....7.....8.....9		

문 항	응답칸
1) 한반도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이 필요할 수 있다.	
2)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끔찍한 것이지만 유용한 측면도 있다.	
3) 남북 간의 전쟁은 남북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4)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 외에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	

평화에 대한 태도

문20. 다음에는 남북한 간 평화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1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5점)', '전적으로 찬성한다(9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전적으로 찬성한다
1.....2.....3.....4.....5.....6.....7.....8.....9		

문 항	응답칸
1)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	
2) 모든 남북 간 갈등은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3)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4) 남북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사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군사력

문21. 다음에는 남북한 간 군사력 사용과 평화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1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5점)', '전적으로 찬성한다(9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전적으로 찬성한다
1.....2.....3.....4.....5.....6.....7.....8.....9		

문 항	응답칸
1) 강력한 군사력만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다.	
2)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3)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4)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만 한반도 평화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협력

문22. 다음에는 남북한 간 협력과 평화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1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5점)', '전적으로 찬성한다(9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전적으로 찬성한다
1.....2.....3.....4.....5.....6.....7.....8.....9		

문 항	응답칸
1)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남북 간 비군사적 수단과 협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2)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3)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간 평화는 실현될 수 있다.	
4) 남북 간 평화는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태도: zero-sum belief

문23. 다음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손해이다.	
2) 남북관계는 테니스 경기와 같다. 한쪽이 패배해야만 다른 쪽이 승리할 수 있다.	
3) 남북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배려한다면 그 쪽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4) 남북관계에서 한국과 북한의 이해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충돌한다.	

경쟁적 피해자 의식(competitive victimhoodness)

문24. 다음에는 남한과 북한이 받은 피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지난 70년의 분단기간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고통에 시달렸다.	
2) 지난 70년의 분단기간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3) 지난 70년의 분단기간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	
4) 지난 70년의 분단을 돌아보면 북한은 가해자, 남한은 피해자의 역사였다.	

북한에 대한 정서 (Emotion)

문25. 다음에는 북한에 대해 느끼는 정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을 생각할 때 귀하께서 아래에 제시한 정서를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 '전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경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경험하지 (느끼지) 않음	경험하지(느끼지) 않음	별로 경험하지 (느끼지) 않음	다소 경험함(느낌)	경험함(느낌)	전적으로 경험함(느낌)
1	2	3	4	5	6

	응답칸		응답칸
1) 두려운		11) 성가신	
2) 무서운		12) 지겨운	
3) 긴장하는		13) 즐거운	
4) 분노하는		14) 정겨운	
5) 화가 나는		15) 행복한	
6) 증오스러운		16) 마음이 약해지는	
7) 불안한		17) 공감하는	
8) 수상한		18) 연민	
9) 걱정스러운		19) 슬픈	
10) 절망스러운		20) 따뜻함	

남한의 우월성

문26. 다음에는 남한과 북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남한사람들은 북한사람들에 비해 우수한 특징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2) 남한은 북한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북한에 대한 태도: 악마화

문27. 다음에는 남한과 북한이 받은 피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북한은 악의 축이다.	
2)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적화통일이다.	
3) 북한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4) 북한은 절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단결(unity)

문28. 다음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의 단합된 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기 보다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2) 북한이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국민들은 일치단결해야 한다.	
3) 다양성은 좋은 것이지만 적어도 북한문제에 있어서 다양성은 해악이 더 크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

문29.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10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전적으로 동의한다
0.....1.....2.....3.....4.....5.....6.....7.....8.....9.....10		

1) 지원대상	응답칸	3) 경계대상	응답칸
2) 협력대상		4) 적대대상	

내집단의 정당성

문30. 다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2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남한은 북한지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이북을 점령한 불법집단이기 때문이다.		
2) 국제사회는 남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분단의 중심성

문31. 다음에는 분단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경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경험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의 관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나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4) 분단의 역사와 과정은 내가 관심있는 영역이 아니다.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의 특징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다양한 속성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 놀라움	8) 낙관적	15) 고통	22) 창피함
2) 침착함	9) 사랑	16) 두려움	23) 수치
3) 매력	10) 열정	17) 화남	24) 죄책감
4) 기쁨	11) 의기양양	18) 분노	25) 역겨움
5) 돌봄	12) 향수에 젖은	19) 허둥지둥	26) 우울함
6) 신남	13) 감탄	20) 섬뜩함	27) 암담함
7) 즐거움	14) 희망	21) 괴로움	28) 환멸

문32. **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속성들을 골라 주십시오. 원하는 수만큼 고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 사람들을 특징지을 수 있는 속성을 신중하게 골라주십시오.

문33. **북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속성들을 골라 주십시오. 원하는 수만큼 고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을 특징지을 수 있는 속성을 신중하게 골라주십시오.

화해의 심리

통일에 대한 태도

문 34. 다음에는 통일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11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1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3점)', '전적으로 찬성한다(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반대한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찬성한다	전적으로 찬성한다
1	2	3	4	5

주 장	응답칸
1)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2)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3)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지만 공동의 정부 기구를 창설하는 남북연합은 필요하다.	
4)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5)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6)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해도 상관없다.	
7)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굳이 단일국가를 만들 필요는 없다.	
8) 한국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두 개의 국가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9) 남북한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단일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10)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남한에게 이익이 된다.	
11)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	

문35. 귀하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	반대
1	2

통일의 이유: 통일을 찬성한 사람만

[문35 = ①찬성 응답자]

문36-1. 귀하께서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을 찬성하였습니다. 아래에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이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7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이다	약간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1	2	3	4	5	6	7

나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응답칸
1)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할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나는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에 찬성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어떤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옳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4)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7) 남북 단일국가와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때 내 의견이 옳기 때문이다.	
8)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국)에게 최선의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9)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통일의 이유: 통일을 반대한 사람만

[문35 = ②반대 응답자]

문36-2. 귀하께서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아래에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이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7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이다	약간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1	2	3	4	5	6	7

나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응답칸
1) 남북 단일국가를 반대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나는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어떤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나쁜 것이 있기 때문이다.	
4)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남북 단일국가를 반대하는 내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 남북 단일국가를 반대하는 내 생각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7) 남북 단일국가와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때 내 의견이 옳기 때문이다.	
8)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지 않는 것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국)에게 최선의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9)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지 않는 것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문37. 귀하는 통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보기에서 제시한 남북관계 상태가 통일인지, 통일이 아닌지에 대해 '확실히 통일이 아니다(1점)' - '확실히 통일이다(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통일이 아니다	통일이라고 볼 수 없다	중립	통일로 볼 수 있다	확실히 통일이다
1	2	3	4	5

주 장	응답칸
1)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해외여행 가는 정도의 법적 절차를 따라 인적 왕래 및 단기 거주가 가능한 상태	
2)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된 상태	
3)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남북공동평의회, 각료회의 등 남북연합 기구를 창설, 운영하는 상태	
4) 통일헌법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단일정부, 단일 국회를 구성 두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하는 상태	

북한 문제에 대한 죄책감(collective guilty)

문38. 다음에는 북한문제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나는 우리사회가 허위 간첩 사건과 같이 북한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우리 사회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행위들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우리사회가 북한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죄책감이 든다.	

북한에 대한 신뢰

문39. 다음에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북한이 남한에 유감을 표시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2)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고 말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3)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북한의 책임

문40. 다음에는 남북문제에 있어 북한의 책임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3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지금까지 남북한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2) 만일 북한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했다면 남북한의 갈등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3) 북한은 평화로운 갈등해결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의 평화로운 갈등해결은 불가능하다.	

핵, 미사일 실험, 북한에 대한 공감

문41. 다음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한 것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은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었다.	
3)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외부세계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4) 어떤 이유에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정당화될 수 없다.	

경쟁적 피해자 의식(competitive victimhoodness)

문42. 다음에는 남한과 북한이 받은 피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3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남한이 받은 분단의 고통과 북한이 받은 분단의 고통은 비슷하다.	
2) 분단으로 인해 북한이 겪고 있는 불공정성과 불평등은 남한이 겪고 있는 불공정성과 불평등과 유사성이 높다.	
3) 남한과 북한은 모두 분단의 피해자이다.	

북한과의 동일민족 정체성

문43. 다음에는 북한에 대해 귀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래 질문에 답해주시시오.

1) 전반적으로 귀하는 **북한 사람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유사하지 않다	←----- 보통 -----→	전적으로 유사하다	
1.....2.....3.....4.....5.....6.....7.....8.....9			

2) 귀하는 **북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전혀 동일시하지 않는다	←----- 보통 -----→	완전히 동일시한다	
1.....2.....3.....4.....5.....6.....7.....8.....9			

3) 귀하는 귀하가 **북한 사람들과** 한민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전혀 기쁘지 않다	←----- 보통 -----→	완전히 기쁘다	
1.....2.....3.....4.....5.....6.....7.....8.....9			

4) 스스로 **북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전혀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	←----- 보통 -----→	완전히 애착을 느낀다	
1.....2.....3.....4.....5.....6.....7.....8.....9			

용서

문44. 다음에는 한반도 문제의 용서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남과 북이 과거사를 증결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는 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2)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남북한 간 정치적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	
3)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똑같이 복수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4) 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노력

문45. 다음에는 북한관련 뉴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나는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2) 남북 간 갈등에 대해 남한의 견해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럽국가의 관점을 담은 정보를 받아볼 용의가 있다.	
3) 남북 갈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영화나 책을 읽어볼 용의가 있다.	
4) 나는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읽어볼 용의가 있다.	

희망

문46. 다음에는 남북문제의 미래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3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나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희망적이다.	
2) 나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에 대해 희망적이다.	
3) 나는 남북 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해 희망적이다.	

대북 정책

문47. 다음에는 대북정책 대해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북한 취약계층(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2) 한국 정부는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는 대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UN에 요청하여야 한다.	
3) 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한과의 협상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4)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위반이다.	
5)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군사력강화에 활용될 것이다.	
6)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7) 남북관계를 민족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8) 남한과 북한의 거래는 1:1 대칭이 되어야지만 추진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48.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유일한 방법이 한국의 경제적 지원밖에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한국이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포기할 수 없음	←-----보통-----→	전부 포기할 수 있음
0.....1.....2.....3.....4.....5.....6.....7.....8.....9.....10		

주 장	응답칸
1) 위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귀하 는 남한의 평균적인 삶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위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귀하의 가족 은 남한의 평균적인 삶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3) 위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귀하의 친구 는 남한의 평균적인 삶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북한 문제 이해도에 대한 평가

문49. 당신이 생각할 때 북한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관점은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사고 해서 만든 관점과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타인의 영향력으로 만든 생각	←-----보통-----→	전적으로 나의 힘으로 만든 생각
1.....2.....3.....4.....5.....6.....7.....8.....9		

대북문제 이해도: 자신

문50. 다음은 북한문제, 남북관계, 통일문제 관련 정책에 관한 이해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문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7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이다	약간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1	2	3	4	5	6	7

문 항	응답칸
1) 나는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	
2) 나에게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로 복잡하지 않다.	
3) 나에게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대북문제 이해도: 국민

문51. 다음은 북한문제, 남북관계, 통일문제 관련 정책에 관한 **우리 국민의** 이해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문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7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이다	약간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1	2	3	4	5	6	7

문 항	응답칸
1) 우리국민은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	
2) 우리국민에게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로 복잡하지 않다.	
3) 우리국민에게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단일팀 논란

문52. 다음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 하키 단일팀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귀하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4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다소 동의함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1	2	3	4	5	6

주 장	응답칸
1) 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할 지 예상하지 못했다.	
2) 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접하기 전까지 남북단일팀이 있었는지 잘 몰랐다.	
3) 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	
4) 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단일팀 구성을 반대할 것이다.	
5) 남북올림픽 단일팀은 세계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	

문53. 잠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시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귀하는 2018년 2월 당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정의와 공정에 어긋난다고 생각 하셨습니까?

전적으로 정의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	정의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	별로 정의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	다소 정의에 어긋났다고 생각	정의에 어긋났다고 생각	전적으로 정의에 어긋났다고 생각
1	2	3	4	5	6

문54.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봤을 때 귀하는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정의와 공정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정의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	정의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	별로 정의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	다소 정의에 어긋났다고 생각	정의에 어긋났다고 생각	전적으로 정의에 어긋났다고 생각
1	2	3	4	5	6

DQ15.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귀하의 가정 경제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년 전보다 매우 나빠졌다	1년 전보다 약간 나빠졌다	1년 전과 비슷하다	1년 전보다 약간 좋아졌다	1년 전보다 매우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DQ16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국가 경제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년 전보다 매우 나빠졌다	1년 전보다 약간 나빠졌다	1년 전과 비슷하다	1년 전보다 약간 좋아졌다	1년 전보다 매우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DQ17.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록해주시고 해당번호를 골라주세요.)

- 01) 농업/수산업/축산업
- 02) 자영업(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택시 운전사 등)
- 03)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 04) 기능/숙련공(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기전제품 A/S 기술자, 숙련공 등)
- 05)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기술직, 교사, 회사소속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 06)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교장 등)
- 07)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 08) 전업주부
- 09)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10) 군인/경찰
- 11) 무직, 정년, 휴직
- 12)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DQ18. 만 15세까지 가장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북한 18) 외국

●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응답자 확인용

조사 일시	2018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input type="text"/> 시	면접원 이름		
응답자 성명		검증원	에디터	코더
응답자 전화	()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17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서는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더담 실천전략	홍 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 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예의 함의(1부)	전병근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예의 함의(2부)	전병근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Study Series〉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상백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19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홍 민 외 20,5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종호 외 12,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2018-0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나용우 외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2019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연,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종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민 외	21,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창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현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	--	----------------

-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 · Baek, Sangme
-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 · Park, Juhwa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근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기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통일연구원

값 18,500원



9 788984 739505 84340

ISBN 978-89-8479-990-5
978-89-8479-989-9 (세트)